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지상강좌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비구니스님 차별

부처님은 인도의 사성계급을 타파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희망을 주셨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의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옥선(조선대 · 불교철학) 박사는 "팔경계는 부처님 재세 당시 사회 현실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생겼던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의 비구니 스님의 수는 48%에 이르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은 교계에서 제한적이나마 불교학 연구, 가람 수호, 사회 봉사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단의 핵심적인 역할엔 항상 제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25개의 교구본사 주지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한 명도 없으며, 총무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은 물론 각 부장급 스님들도 모두 비구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여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장급 이하 비구니 스님 종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94년 개혁 종단 출범 이후. 비구 중심의 종단운영으로 파생되는 폐단이 지적되자 비구니 스님이 81명의 중회의원 가운데 10석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단 핵심역할 제외
승려 성차별 개선 시급

이에 대해 한 비구니 스님은 "10이라는 수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한국불교가 실질적으로 '비구 스님의 종교'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비구니 스님이 직접 율(律)을 지도하는 봉녕사 금강율원의 개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비구니 스님이 계율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관습을 깬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비구니 스님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은 금강율원의 개원과 같은 변화가 교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 교계에 팽배해 있는 관습이 점차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대화로 '사태' 해결하자"

총무원 '대화대표단' 논의…정화회의 "개별교섭중"

본사주지등 중재나서

총무원과 정화회의 양측 모두 대화를 위한 대표단이 구성되면 대화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은 20일 교계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로의장 종회의장과 상의해 대화에 나설 대표단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택스님은 또 "저쪽(정화회의)도 대화하겠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한 적은 없다"고 말해 정화회의측에서 대화를 제의하면 응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화회의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견스님의 대변인 원학스님은 21일 "그동안 총무원측이 강경 일변도여서 대화가 잘 안된 것이 사실이었지만 교구본사주지연합회와 원로스님, 친분이 있는 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대화는 계속해 왔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학스님은 또 총무원측의 대표단이 구성되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노력 교구본사주지 등 중진스님들의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본사주지스님은 21일 "몇명의 중진스님들이 총무원과 중앙종회 정화회의를 상대로 중재에 나섰다"며 "25일 이후 중재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화회의측이 총무원장선거에서 고산스님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총무원장으로 밀어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화회의가 총무원장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한 '장내 대결'로 선회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성운 · 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우리도 법장비구처럼" 19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운문스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에서 무대 위의 법장비구와 부처님 등 1천여 출연자들 비롯해 객석의 3천여 불자들은 교계 최초의 오페레타 '아미타불'(정부기 작곡, 이인 원 지휘)을 통해 성불의 발원을 세우며 한마음이 됐다.<관련기사 7면>

"불법행위 용납안해" 조계종선관위 담화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21일 30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종단 혼란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구현할 중요한 일정"이라며 "모두가 주인된 입장에서 30대 총무원장선거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종도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과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달라진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헌 · 종법에 의하지 않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종도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불교TV 19일 직장폐쇄

비노조원 중심 비상편성 방송 송출

노사 갈등을 빚어온 불교TV(사장 허문도)가 19일 낮12시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 갔다.

불교TV 허문도사장은 18일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회복하고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지하 1층 편집실과 지상 1층 스튜디오 등 주요 사업장을 폐쇄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TV는 현재 송출담당자(MD) 2명, 제작PD 4명 등 비노조원 11명으로 구성된 방송제작 요원을 가동해 공고 및 재방송을 내보내는 등 비상편성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주일 기자

징계자 재심청구 50명 넘을듯

조계종 29일 심사예정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징계자가 22일 오후6시 현재 멸빈의 징계의 받은 스님을 포함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청구 시한인 23일까지 해종특위법에 따른 징계자 94명 가운데 60% 가량이 재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은 재심청구자 숫자와 명단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구 시한을 넘겼어도 지연된 사유를 밝히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과 정화회의의 핵심인사가 21일 저녁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정화회의측은 재심사 청구 시 대폭적인 경감과 98년 이전 징계자에 대한 사면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총무원에서는 재심청구자의 대폭 경감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재심호계원장)는 29일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동국대 19대 이사장에 녹원스님 재추대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64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19대 이사장으로 녹원스님을 재추대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1월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벽파, 현성, 고산, 법장스님 등 종단과 견이사를 전원 재임하기로 결의했다. 재가이사 가운데 송석구 · 서돈각 · 류주형 이사는 유임, 안채린 이사 대신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10월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해임승인된 현근스님 공석은 12월1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11월 : 성주산문(성주사지) · 무량사 · 장곡사

11월에는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된 성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오층석탑과 세 기의 삼층석탑 등만이 외로이 남아 번성했던 옛 대가람의 면모를 대변해주고 있는 성주사지를 찾아갑니다.

인근에 있는 무량사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영정을 모셔놓은 산신각과 경내 한가운데 듬직하게 앉아 있는 2층 전각인 극락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대웅전과 하대웅전 등 2개의 대웅전이 있는 장곡사도 참배합니다.

◇출 발 : 11월 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 3만5천원(중식 제공)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해 드려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노스님과 노인 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동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 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 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1개월에 3명
♦지원대상: 스님 ·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
♦지원내용: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구비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진료비 무료 :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0,000원 안팎)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제1차로 무릎관절염 환자 백금향씨(64세 · 대구)가 수술받습니다.

주최 : 동인천 길병원 ·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관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5 · 속초 : 광명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사 설

모범 선거여야 하는 이유

11월 15일로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모든 불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거기에는 종단을 와해로 몰고갈 위험성까지 있는 끊임없는 분규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기대가 겹들여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찌 한번의 선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랴마는, 그래도 이러한 큰 일을 계기로 수습의 가닥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의 기회라는 것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종회도 이런 고심 속에서 멸빈자까지 포함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또 명실상부하게 시행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조치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의 분규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조계종단의 완전한 무력화 내지 와해라는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똑같이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가 정말로 여법하게 치러져 그간 실추되었던 불교의 위상을 만회시키고 다시 화합 승단의 본면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승단의 청정성과 화합이라는 것이 제일 명제로 되어야 한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양시양비론의 칼을 휘둘러 분쟁 당사자 양측을 모두 비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승단 구성원들은 바로 국민과 불자들의 냉소적인 비난이 바로 현 종단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그러한 비난을 불식시킬 커다란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혹 옥석을 가리지 않은 용서와 화해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런 움짐임이 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옥이고 누가 돌인지는 종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큰 화해의 자세를 누가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다 같이 옥일 수 있는 길도 여기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해의 분규도 총무원장 선거가 빌미가 되었으며, 이번 재선거의 소용돌이도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는 그런 악업을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가장 청정하고도 여법하게 치러져야만 한다. 계속되는 분규로 승단의 움직임에 쏠려있는 모든 불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의 눈과 귀에 정말 스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조그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때 생기는 후유증을 철저히 경계하여, 다시는 세속법에 불교의 자율성이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야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기에, 이러한 당부가 쓸데없는 군더더기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도 수 없이 쓸데없는 노파심이 당연한 듯이 현실로 드러나곤 했던 것이 조계종단의 역사이다.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불자들의 의식도 깨이고 변하였다. 무조건 종권을 잡은 쪽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며, 혹 이번 선거마저도 불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면 완전히 등을 돌릴만큼 염증에 차 있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왔던 불교가, 사회적 기능은 커녕 자체 종단의 문제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러하기에 승단의 본래 면목인 청정성과 화합성 회복을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지상 명제로 삼아야 한다.

"군종특별교구 설치하자"

군포교 제도개선위 제안
"포교원 산하 독립적 공식기구로"
실무회의 거쳐 종회에 안건제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군포교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승단 제도로는 불가능하며, 종단내의 공식기구로서 포교원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승단 장성화 사무총장은 지난8일 포교원 주최로 열린 '군포교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정련·포교원장) 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군포교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가칭)군종특별교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장 사무총장이 제시한 새로운 군포교 기구는 포교원 산하의 독립적인 공식기구로, 각 종단에서 군승자원을 파송받아 교육하며 군승들의 임명 해임 등의 제반 신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군불교 정책 수립과 시행, 군포교 방안 연구, 군불교 제반 단체의 관리, 군승의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

구성은 현역 군승과 예비역 군승 중 수용 인원으로 하며, 군승의 대표는 현역이 아닌 비구승(총무원 부장급)으로 하되 포교원장의 2인 이상 추천으로 군승총회에서 선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예비역 군법사는 군종특별교구의 소임이나 군법당의 상임법사로 임명,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은 각종단의 분담금과 군법당의 분담금, 신도 후원금, 사업이익금으로 운용토록 한다는 게 장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군포교의 장기적 전망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제도개선 특위는 장 사무총장의 이번 발제를 기초로 몇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 정기종회나 내년 3월 종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정기종회 11월5일 개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0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145회 정기중앙종회를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종단 긴급현안 대책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 결의 △동국학원 이사 추천동의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승인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타당성 조사 특위 구성 △승적제적법 총립법 등 종법 제·개정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및 종정감사 보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토지처분 △통도사 교구행정 정상화 등 21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군승요원 선발

28일까지 원서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육해공군군승단(단장 이희용)은 군종법사로서 군포교에 헌신할 2000년 충원대상 군종요원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4년제 일반대학(학사이상)을 졸업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임관당시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자로서 25~28일 원서 교부 및 접수, 29일 오후2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 치뤄진다. 문의 (02)749-8646

한편 군승단은 오는 21일 오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올해 군승사관 후보생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올해 군승사관 후보생으로 확정된 8명의 후보생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영산율원 재가자에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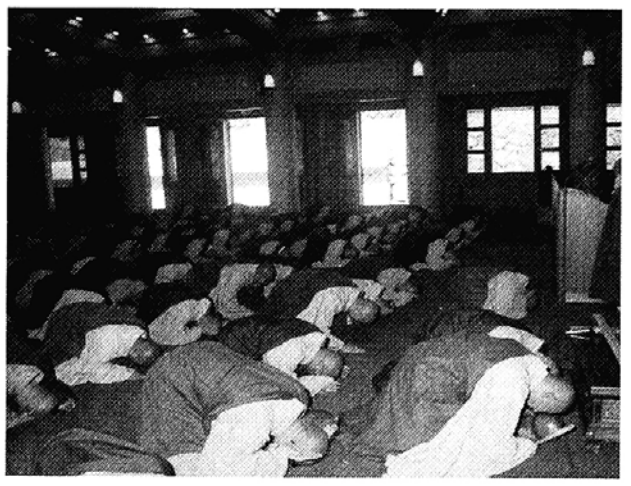
파계사, 내년부터

내년부터 재가불자들도 계율강의를 들을 수 있다.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은 20일 제 3회 비구계본 특강 입제식을 봉행하고 내년부터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재가 5계와 〈범망경〉에 수록된 48계등의 계율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산율원은 불교중흥을 위해서는 계율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아래,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들이 1년에 2~3번 약 1주일 과정으로 하루 2~3시간씩 강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영산율원은 타종단 스님에게도 문호를 개방, 제 2회 특강때 태고종 수진스님이 수강한 것을 비롯 이번에도 태고종의 영운스님이 청강생으로 참여했다.

한편 2회 특강은 영산율원 율주 종진스님이 강의를 맡아 26일 회향됐으며 해인율원장 혜능스님, 송광사율원장 지원스님등 30여명의 학인이 수강했다.

비구계본은 비구가 지켜야할 250계의 이름과 특징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영산율원은 작년부터 봄, 가을 비구계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새스님 321명 탄생

◇ 조계종총무원은 20회 구족계 수계산림을 11~17일 직지사에서 봉행하고 새 스님 3백21명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17일 회향식에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불교자주권 수호 서명운동 돌입

대구·부산등 전국 7개도시 순회

불교자주권수호 전국서명운동본부(본부장 백창기·박광서)는 20일 대구 푸른동산에서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우상종 동화사 신도회장 이상번 보현사신도회장등 70여 지역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대전 부산 광주 전주 청주 원주등 전국 7개지역에 지역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불자들은 조계종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교계내부의 문제를 세속법에 의지하려는 악습의 관행을 끊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운영이 되어야 불교자주권이 확립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주요사찰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성설 서명대를 설치하여 서명작업에 돌입하며 진척상황에따라 중간집계를 통한 불교의 자주적 결의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자주권수호 전국서명운동본부는 40여 불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실무를 맡고 있다. 현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 서명운동은 대외적으로 '불교의 자존을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사부대중 참여교단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중법회,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통도사 '정화불사 완수' 전진법회

폭력종식 1백만명 서명운동 전개

정화회의는 17일 통도사에서 "납치·고문·폭력 규탄 및 제2정화불사 완수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전진법회"를 개최했다.

정화회의측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견스님은 이날 대회사에서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합법적 평화적으로 종무를 인수받고자 기다렸지만 조계사 총무원측은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종도들을 선동해 교단을 분열케 했다"며 "총무원측은 불교인의 양심으로 종단정화불사에 동참하고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화회의는 또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존중, 지난 12일 폭력행위 총무원측 관련자 구속,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승소판결 협박범 수사촉구, 조계사와 총무원내 각종 폭력 위험물 압수촉구 등을 요구했다.

정화회의는 이날부터 "폭력종식과 10.12 폭력 납치 고문사건 수사촉구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화회의측의 이날 법회는 오전의 통도사 1354주년 개산대제와 오후의 문화행사 중간에 치뤄졌다. 정화회의측 스님 2백여명과 개산대제 참석 신도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국강원 학인대회 26~27일 법주사서

조계종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제10차 학인대회를 26~27일 법주사에서 개최한다. 450여명이 참가하는 학인대회는 학술(세미나 및 역경대회) 문화(어산, 법패, 꽃꽂이 서도, 연극 등) 및 체육(축구, 탁구, 장기자랑 등)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김재경 기자

호남·제주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1~22일 삼성생명 김제연수원에서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하고, 29~30일 제주 관음사포교당에서 제주지역주지 연수를 실시한다. 호남지역 연수에는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감청을~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여래의 사자되어 전법에 신명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교육 및 불교의 전망과 대응은 우리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회는 어린이 포교야말로 불교계의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제 28차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근본 과제로 하여 어린이법회 운영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무루 동참하시어 혜안을 넓히시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대화와 토론 등으로 이번 연수회가 어린이포 교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43년 10월 닭은 날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연수회 안내

■ 언 제 : 불기 2543년(1999년)
11월 27일(토) 오후 6시~28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서울 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두

■ 동 참 금 : 5만 5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만들기 재료 일체 준비 - 미리 접수시 : 5만 2천원/ 군종병, 도서벽지지도자 3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10월 25일(월)~11월 20일(토)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분반수업시-강의 6(가위, 풀, 칼, 본드)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808-4571)
PC천리안 :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주요강의내용

주 요 강 의 내 용		강 사	비 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종책과 방향		대한불교 조계종포교원	
경전 상에 나타난 어린이 교화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국악강의)		김 정 민	방송연예인, 서울국악예고 강사
사찰 속 더불어 삶을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 및 프로그램 제안)		조 경 욱	조계사어린이회 지도교사
우리들이 부르는 찬불가		정 유 탁	풍경소리
분반수업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미술활동 / 전통놀이감 만들기)	노 수 산	아동미술전문가, 나무미술학원 원장
분반수업	신나는 가락으로 입모아 마음모아 (노래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최 홍	한국방송연기전문예술원 이벤트 실장
사찰예절과 예법		덕진스님	회장스님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김 종 서	전 덕성여대 총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운성, 원혜, 영조, 해관, 무등,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지역문의처 ■서울·경기 (02)433-1506/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051)853-5486/이선경 총무차장 ■대구·경북 016-505-3143/김형중 사무국장 ■광주 011-719-5550/정수보 사무국장 ■대전 042)433-1141/류재희 사무국장 ■경남 (0551)242-0108/천명숙 사무국장 ■제주 016-691-4728/김봉현 사무국장

영상포교 포기 할것인가

불교TV, 노조총파업…직장폐쇄

사장 퇴진론·불가론 놓고 양보없는 대치

이사회 소극적 태도 일관…중재안 절실

경영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불교TV(사장 허문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허문도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8월 3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불교TV노동조합(위원장 윤상호)은 부분파업을 거쳐 18일 오전10시 총파업에 돌입했으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비조합원 방송요원을 가동하며 재방송 및 광고를 중심으로 긴급 편성해 방송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허문도사장 퇴진을 계속 주장하며 총파업을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허문도사장도 퇴진 불가론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노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사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을 위해 이사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문도사장의 입장

허문도사장은 19일 직장폐쇄 단행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는 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한 사측의 유일한 쟁의행위 조치를 단행한 것이며 자신의 퇴진 운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허사장은 "노조가 총파업을 풀고 언제든지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면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며 직장폐쇄기간중 비노조원을 투입해 기존의 재방송 체제를 지속할 것이며 중요한 교계의 법회 및 행사 등은 생방송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사장은 "금호전기 빌딩 임대료와 하나은행 부채 등은 분할 상환을 통해 해결하도록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도 2명 정도 섭외를 시도하고 있다"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노조의 시각

사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불교TV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해 준법 투쟁중인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에 강력히 맞서 가두시위를 하는등 허사장퇴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노조위원장은 "허사장이 불교TV에 남아 있는 한 투자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허사장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불교TV를 위해 퇴진하는 것만이 회사를 살리는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주 실업인 채모씨 등 3명의 볼자 실업인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 이사들에게 허사장 퇴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반응

30명의 이사진들은 직장 폐쇄 4일째인 22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사회를 소집해도 5~6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면파업과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재방송 편성으로나마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송출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대의 수입원인 광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사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사회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조를 비롯해 교계 일각에서는 현 상황과 같이 골이 깊어진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이사회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가 교섭중인 3명 외에 허사장이 최근 자신이 2명의 투자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더욱 넓어진만큼 이사들이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투자자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불교TV가 문을 닫을 경우 그 책임은 불교 전체의 몫이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현재의 구성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TV는 19일 낮 12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진은 22일 불교TV노조의 가두시위농성 장면.

종무원 움직임

前원장 행정행위 소급 유효결의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은 20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종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지난 6~7일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연수에 140여명이 참석했다. 21~22일 전남북 본말사주지 연수에 이어 29~30일 제주지역 본말사주지 연수도 열린다. 17일 구족계 수계살림도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사태로 각 부서의 사업은 잠시 유보된 상태이나 종무행정은 정상적이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가 난립해 인신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는 소리가 많다. 불교자주권을 부르짖는 마당이니 조용히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15일 종무회의에서 29대 총무원장이 행한 제반 행정행위에 대한 소급 유효확인을 결의했다. 총무원은 이 날자로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명의로 종무회의 결의사항을 공고했다. 소급 유효확인을 결의한 내용은 △본말사 주지 임명 등 인사행정 △종무회의 의결행위 △종회에 안건 상정 요청 행위 △재무행정 등이다.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에 따라 '소송계류증명원'이 발급됐다는 정화회의의 주장에 대해 법통수호대책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계류증명원은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적법한 항소가 계류중이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는 전혀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총무원은 20일 정화회의측이 서울지법에 낸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 소장에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직무대행자 선임의 효력도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화회의는 총무원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다가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을 취하할 뜻이 있다고 번복했다. 정성운 기자

정화회의 움직임

소송계류 증명원 발급 "직대유효"

○…정화회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정영스님이 제출한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 항소 6부에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17일 통도사에서 신도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산대제에서 '폭력종식과 10.12 폭력·납치·고문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정화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11월 15일 총무원장 선거는 고산스님에 의해 불법임명된 사람들만의 선거로 원천적으로 불법무효"라면서 "징계자체가 명백한 원인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재심사' 하겠다는 것은 고도의 교란 및 기만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19일 "오늘 오후 4시45분경 보명, 무덕, 본연스님 등 3명이 조계사 건너편 불교백화점에서 불구를 고르고 있던 중 갑자기 총무원측 승려 10여명과 용역회사 직원 20여명이 왕복 6차선의 우정국로를 건너와 세 스님을 무차별 폭행하고 두 스님을 조계사로 납치, 소지품을 빼앗고 30여분간 감금해 둔 채 집단폭행을 가하다가 112에 납치신고를 하자 폭언을 하며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정화회의는 21일 "서울고법 민사항소 6부는 원고측(정영스님)의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중임을 확인하는 소송계류증명원을 발급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본안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도견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에는 전혀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 시험제도와 꿈

조선왕조 말기 최대의 지성인 박지원(朴趾源)과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등은 공통적으로 과거합격자가 아니었다. 천재도 틀에 박힌 학문에만 매어 있으면 어김없이 머리가 경직화되고 마는데 이들은 시험에 매어 있지 않았으므로 유연한 사고력으로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지적 대상을 골랐던 것이다. 특히 박지원은 시인, 과학자, 문화인류학, 비교문화에 날카로운 시야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중국의 루신(魯迅)에 못지 않은 비판정신과 F. 베이컨(Bacon)에 못지 않은 유토피아의 꿈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신이 시험에 오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최대 문학작품인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등은 원말에서 명초에 이르는 기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일시적으로 과거시험이 중단된 시기였다. 당시 중국의 수재들은 틀에 박힌 과거공부에서 해방되자 마음껏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고 왕성한 지적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조선왕조 이래 우리의 학문 전통은 시험(과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장원급제'가 이상이었으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인생, 인격, 행복… 등의 모든 것이 오직 시험 하나로 결정된다는 미신이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멀지 않아 연중행사의 하나인 수능시험이 실시되고, 전국민의 관심이 고교졸업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의 규격화된 시험으로 평생을 결정한다는 데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고 있다. 꽉 막힌 입시제도가 가능성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가두어 놓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입시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더욱 더 다양한 전형제도의 마련을 바란다.

나라와 겨레의 미래는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있다. 기성세대는 21세기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윤택함이나 출세보다는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일이다.

인류의 빛나는 모든 업적들이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논설위원)

종법우선이냐 정관우선이냐

'사퇴촉구 결의' 종회안건 상정

동국학원 이사선출 '진통'

동국학원 이사회가 19일 이사회를 열어 조계종 파견 이사 5명을 선임하고 녹원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일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기종회에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결의 및 동국학원 이사 추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19일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회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를 선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도 종회에서 동국학원 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채택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해서 종회 전체의 뜻은 아니다. "종회에서 이사후보 추천동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종회의원들도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회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볼 경우 19일 이사회의 결정은 많은 종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회내 종책모임인 일여회와 청림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녹원스님 이사장 선출 취소 △승려 이사 총사퇴 △동국학원 정관에 이사선임시 종단추천 명문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재단의 독선적인 관단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혀 학내분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동국학원정관에 따라 1개월 전에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제때 이사 취임 승인을 못할 경우 이사회 공백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송재운 법인 사무처장은 "일찍이 이사회를 열어야 했으나 종단의 사정을 감안해 기다려왔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동국학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에 선임한 이사의 임기는 11월23일부터 시작된다.

또 종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를 고려한 선임의 방법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종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인 사무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도 "동국학원은 종단에서 세웠으므로 종법과 종회의 의견이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회에서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결의와 이사후보 추천 동의를 안건으로 상정해놓은 상태여서 종회 일부와 동국학원 이사회간에 종법 우선이냐, 정관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회 내 종책연구모임인 청림회와 일여회에서 지난 8월 이사장 녹원스님의 3선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이사장 퇴진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담 화 문

– 제 30대 총무원장선거에 즈음하여 –

1999. 10. 1.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판결과 중앙종회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작금의 종단 혼란을 극복하고 청정승가(淸淨僧家)의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종헌·종법에 의한 여법한 총무원장선거

본 종은 창종(創宗)이래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지켜내고 계승해온 자랑스러운 종헌과 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헌·종법 이야말로 사부대중의 총의(總意)를 모은 종단 내부의 최고 규범이며, 종헌과 종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종도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최고 행정 소임자를 선출하는 금번 총무원장 선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헌과 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종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총무원장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헌·종법에 의하지 않는 선거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 누구라도 종도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종헌과 종법에 의한 여법한 총무원장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종단 화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총무원장선거

선거는 상호비방과 무원칙한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 종단 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금번 제30대 총무원장선거를 이러한 종단 화합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만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선거의 전과정에 걸쳐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종단 화합의 대원칙 속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30대 총무원장선거는 이천만 종도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달라진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종책 제안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금번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종책 제시와 건전한 비판,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단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 첫걸음은 비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과 개인의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 21C를 불국정토(佛國淨土)로 힘차게 열어나갈 종단의 소임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입후보자도 타후보자에 대한 비방보다는 올바른 종책 제안과 토론을 통하여 선거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승가 고유(固有)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제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종단 혼란을 극복하고 21C 를 맞이하여 변화된 새로운 종단의 모습을 구현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된 입장에서 제30대 총무원장선거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입후보자와 선거인단도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여 승가(僧家)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흥미위주가 되지 않도록 각급 언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 드립니다.

불기 2543(99)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

세계적 불교석학 지다

日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지난 10일 별세



일본의 세계적인 불교석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박사가 10일 급성 신부전증으로 동경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장의·고별식은 동방연구회장(장의위원장:前田專學 동경대 명예교수·인도학 불교학회 이사장)으로 11월 6일 오후4시 동경의 정토진종 본원사파 축지별원에서 거행된다.

이에앞서 유족과 직계 제자들은 10월 14일 정토진종 의식에 따라 밀장의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오진스님(동방학원 강사·동경대 강사)도 참석 염불 및 입관을 도왔다.

비교사상분야 큰 업적
한-일 불교학교류 기여

나카무라 박사는 입적하는 날 정토진종에서 '자서원향학창원(自誓院向學創元)거사'란 계명을 받았다. 그는 학문뿐 아니라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사홍서원, 생활신조를 일과경으로 삼아 매일 기도하며 자신을 닦았다.

前田專學(인도학 불교학회 이사장)은 "선생의 학문 영역은 원시불교 인도철학 대승불교까지 섭렵할 정도로 폭넓었다"며 "가장 큰 업적은 비교사상이다"고 말했다. 또 高崎直道(鶴見大학장)은 "종파를 초월한 불교연구, 현지 답사,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세계가 주목한 대학자였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박사는 1912년 출생해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 범문학과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경대 교수, 미국의 하버드·스탠포드대 객원교수, 비교사상학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금까지 동경대 명예교수, 동방연구회 이사장, 동방학원 원장을 맡아 후진양성에 주력해 왔다. 나카무라 박사는 1970년 동양사상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재단법인 동방연구회를 설립했다. 정년후, 동방학원을 개강하고 후학을 키웠다. 특히 한국 관계학을 처음으로 개강했다. 이로인해 일본 각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영향을 미쳐 현재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 관계학을 개설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기 베단타 철학사〉(전4권) 〈동양인의 사유방법〉 〈인도사상사〉 〈원시불교〉 〈고타마 붓다〉을 비롯 불교전도문화상을 수상한 〈불교어대사전〉을 비롯 일본어 저술 800여종과 외국어 저술 300여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中村元選集〉을 완결했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초 번역된 〈종교와 사회윤리〉를 비롯 〈불타의 세계〉, 〈바웃드하 불교〉, 〈불교경전산책〉 등 100여권이 번역·소개됐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부산영화제 참가 외국인 범어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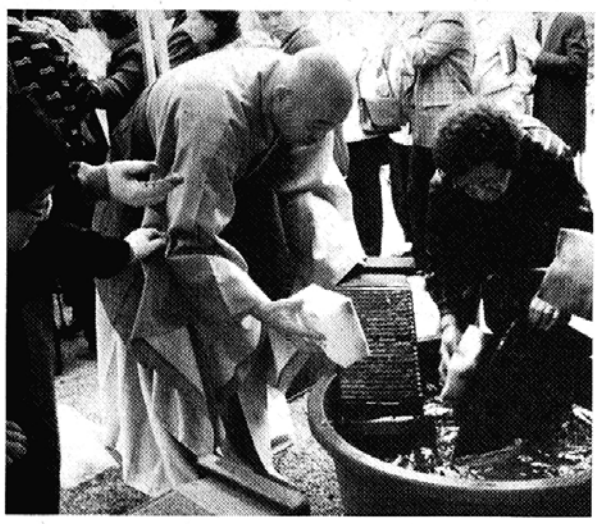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중 부산을 방문중인 외국감독, 배우 30여명이 20일 범어사(주지 성오)를 방문했다.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윤석천)의 주선으로 아시아 영화전문가 프란치스코,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안드레스 디텔라 씨를 비롯 30여명은 대웅전과 삼층석탑 등을 둘러보았다.〈사진〉 이들은 보제루에서 포교국장 지종, 관조스님과 다과를 나누며 다도와 다식, 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들은 동래여자중학교 학생 20명이 선보인 부산무형문화재인 동래북춤을 관람하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판 씻고 인경…신심 절로"



Focus

"경판을 제 손으로 직접 씻으니 신심이 절로 나네요. 인경한 작품은 집에 걸어둘 거예요."

지난 17일 봉은사(주지 원혜) 경내에서는 일반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부처님 경판 인경 체험'이라는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단순한 인경 체험행사가 아닌 경판을 신도들이 직접 소금물에 씻으면서 경판보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5백여 신도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경판 씻기와 인경에 참여했다. 이렇게 봉은사 판전에 보관돼 있는 3천4백38점의 경판은 모두 소금물로 묵은 때를 벗었다. 손상없이 오래 보관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실시됐다.

봉은사는 이번에 경판씻기와 인경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문화재 사랑을 보다 실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교차로

김태복 소장 2심 공판 방청



월운 동국대 역경원장 스님은 27일 오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김태복 소장 2심 4차공판을 방청한다.

회랑 불교중대서 수계법어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스님은 17일 태풍부대 화랑불교중대를 방문해 불자 장병 250명에게 수계했다.

평통자문위원 위촉장 받아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지난 5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9기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서 종교계 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美 백림사 보궁 개산제 참석



도후 신흥사 주지는 美 뉴욕 백림사 주최로 24일 열리는 백림사 보궁 개산대제에 참석키 위해 19~28일 미국을 방문한다.

동방불교대 개교 17주 기념



정태혁 태고종 종립동방불교대학장은 17일 태고종 부장스님들과 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종현선사 법어집 출판기념회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前 관음종 종정 종현대선사 법어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불교언론인회 추계수련



신광식 불교언론인회 회장은 23, 24일 양일간 백양사와 해인사에서 추계수련대회를 갖는다. 조계종 종정 혜암,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을 친견해 선문선답의 시간을 가졌다.

'99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한기호 한국전문신문협회장은 25일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99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관음종 종정추대법회서 공연



엄정화 인기가수는 26일 오후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관음종 혜옹 종정 추대법회에 동참, 축하공연을 한다. (02)763-0054

■사찰음식 연구소 개원 이여영씨

"자극없는 사찰음식 자성 찾는데 도움"



"사찰 음식에는 자극성 있는 재료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음식 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릴 수 있고 마음의 순화가 이뤄져 본래 마음자리의 자성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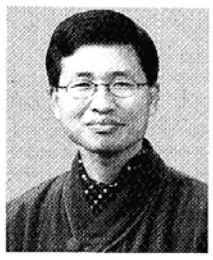
그동안 지리산 쌍계사, 칠불암, 직지사등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스님들의 대중공양에 전념해 온 사찰음식연구가 이여영(50)씨가 최근 한국사찰음식연구소를 열었다.

30여년간 사찰 요리 연구에 전념해 온 이소장은 오신채(파 마늘 부추 생강 흥거)와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연근, 산나물, 야채, 버섯 등 자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사찰 요리를 1천여종류 넘게 개발했다.

사찰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는 가정 식단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 접대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소장은 "사찰음식은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깔끔하며 자극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 스님 및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수행 정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소장은 "사찰음식에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 맛이 녹아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한국 고유의 맛을 소개하며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동숭동 한국사찰음식연구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요리법'을 강의한다. (02)747-8734. 김주일 기자

"가슴 터놓고 청소년 고민 풀어야죠"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불교 포교를 담당할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이 16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청주대 학생회관 옆)에 문을 열었다.

■디지털상담실 연 홍자운 법사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 개원을 주도한 홍자운 상담실장(관음사 상임법사)은 "상담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진학, 이성, 폭력문제 등의 고민을 진솔하게 상담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쉬어갈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여 평 공간에 청소년들의 휴식을 위한 컴퓨터와 대형 TV, 오디오 등을 구비해 두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과 포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는 홍 법사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종교와 성별, 나이를 초월해 모든 지역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서도원 교수, 성기서 교수, 허운택 건축사, 아트피아화장품 강정숙 상무, 등과 청주 관음사를 비롯한 후원회원,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실을 돕는다. (0431)215-0804. 도필선 기자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20세기를 참회하고, 21세기 불국정토 구현 기원

한국·스리랑카 제 5회 대승관정 수기 대법회

(창종 32주년 및 총무원장 및 삼원장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관정경에 관정이란 왕이 즉위하거나 전법(傳法) 수계(受戒)할 때 또는 수도자가 일정한 계위에 오를 때 사해(동·서·남·북의 바다)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하여 주는 불사입니다.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전륜성왕이나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를 큰 인연 공덕을 짓게 됨으로 현세에는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면 복덕이 구족하여 빈곤하지 아니하며, 뜻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희유하고 성스러운 불사이며 일생중 단 한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모든 불자는 기쁘고 기쁜마음으로 동참하여 20세기를 반성과 참회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정진의 서원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래종 삼원장 취임식에 참석하시어 축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위원 일동 -

증명 대법주 종정 석인왕 대승정
스리랑카 담마륵카 대승정

일시

■장 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 금강 톨게이트 있음)
총본산 약사사

■일 시: 1999년 10월 27일 오전 11시
0342-734-3205/ 0475-731-2261

총무원장 명안 신일섭 큰스님
호법원장 법우 김월봉 큰스님
포교원장 범룡 홍승남 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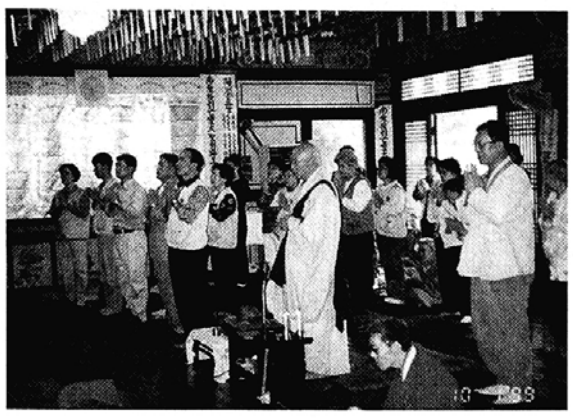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여래종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이력서
· 명안 신일섭 ·

■경력
1952년 3월 경북 고령 출생
1963년 석인왕 큰스님 은사로 약사암 출가, 사미계 수지
1966년 이법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총본산 약사사 주지 현재
1971년 관악산 법륜사 주지 역임
1985년 성남 약사사 주지 역임
1987년 성남 정법원 주지 현재
1987년 현 성남 연꽃유치원 원장 현재
부터 (교육부: 유치원 원장 교사자격증 취득
1999년 보사부: 사회복지사 1급자격 취득)

■학력
1979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연구과정 수료
1993년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학사)
1998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5년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2년 수료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정 수료
1999년 스리랑카 케르니아대학교 세계불교사 박사과정 입학

탐방 청량리 기관차 법우회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는 1일 중계노인복지관 수용 불자 노인들과 여주 연등사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행동하는 불자회 '긍지' 높아

84년 창립…어린이회 운영
노인시설·고엽제장병 후원

회원의 친목도모와 개인의 신행활동을 위한 불자회를 단호히 거부하고 보살행을 통한 포교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직장 불자모임이 있다. 84년 7월 철도청 내 첫 불자회이면서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직장불자회로 관심을 모았던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가 그것.

기관사 허기립씨(본회 지도법사)의 발의로 창립된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불자는 마군의 권속이다'는 〈대반열반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불자회다. 창립이후 5년간 신행활동을 통해 기반을 닦은 법우회는 90년 실천행을 통한 포교에 매진하기로 하면서 직장인 불자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매주 70~80명의 새싹 불자들이 참석할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9년 전 어린이법회 출신자들이 밑거름이 돼 구성된 청년회는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의 자랑이다. 96년 타 종교모임의 부러움 속에 사무소 근처에 문을 연 자체법당 대원사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법우회는 또 96년 서울 시립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법회를 겸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봄·가을로는 사찰순례도 실시한다. 법우회의 실천행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교계 복지시설은 물론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돕고, 자원봉사에 힘을 모은다. 올해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1구좌 1천원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벌여 보살행을 함께 하며 직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장만식 회장은 "법우회 창립과 활동은 철도청 내에 10여개 불자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됐다"며 "모범이 되는 불자회만들기에 회원들 각자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직장법회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과 전문성 있는 어린이 교사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청년불교운동 새모델 제시

부산불교청년산악회 레저·문화·신행 접목 '이색포교'

부산불교계에 새바람
결식자 돕고 회보 발행

청산에 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부산불교청년산악회(회장 김정관)가 21일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일으킨 푸른 산바람은 부산 불교계의 새바람이 되어 청년불교 운동에 불어오고 있다.

60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매월 실시되는 정기산행을 근간으로 불교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부산불교청년산악회의 활동 중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한 청년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다. 레저와 문화, 불교를 접목시킨 새로운 접근으로 젊음에 부쩍 다가서면서 산을 오르는 것을 매개로 많은 일반인이 불교와 인연이 되었다. 90명으로 늘어난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연계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침체되었던 청년회 활동과 포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이들은 청량사, 관음사,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에 힘을 보태는 등 부산불교 청년활동의 흐름을 잡아 나가고 있다.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21일 첫 생일을 맞아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우수회원 표창과 등산장비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실천하는 청년 모임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매 산행마다 쌀을 모아 노숙자 쉼터에 전달하고 북한 선봉라진 지역 탁아소와 결식아동돕기 '작은 이들을 생각하는 모임'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계간으로 〈청산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회보도 발행하고 있다.

손정현 사무국장은 "청년활동의 모범으로 우뚝 서도록 또 한해를 꾸려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맑은 심성을 향한 걸음이 될 산행에 함께 하자"고 귀띔한다.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큰산을 오르는 느긋함으로 문화, 레저, 신행을 접목시킨 실험적 모델을 제시하며 청년불교의 큰 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 궁금증 문답통해 풀어요

유불동 '금강경경전방'

강술 중심에서 벗어나 질의 응답과 토론 중심의 경전공부를 통해 젊은 불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 서경지부(지부장 오기석) 경전방.

유불동 서경지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강남포교원에서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에게 배우는 〈금강경〉 경전방을 연다. 경전반은 강술자와 참석자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전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경전공부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흥미롭다. 수업내용은 매주 유불동 경전방에 공개된다.



오기석 서경지부장은 "경전공부를 자칫 어렵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겨 공부에 소홀했던 불자들이 있다면 부담없이 그리고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02)3479-4508 도필선 기자

광주 서부서 불자회 창립
회원 25명…회장 임희철씨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가 창립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불자회(회장 임희철)는 16일 무각사에서 25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자비와 인욕정신을 실천하는 불자경찰이 될 것을 서원한 서부경찰서불자회는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을 지도법사로 격주 정기법회 및 분기별로 성지순례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공단 무량회 8돌
정병조박사 초청 특강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창립 8주년을 맞아 11월3일 오후7시 올림픽회관 법당에서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동국대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병조 원장은 '대승보살의 길-10바라밑다 실천의 미'에 대해 강의한다.

이완배 회장은 "8주년 기념 특별강좌법회는 대중들에게 불자회를 상기시키고 함께 호흡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량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반야심경의 세계〉를 법보시 한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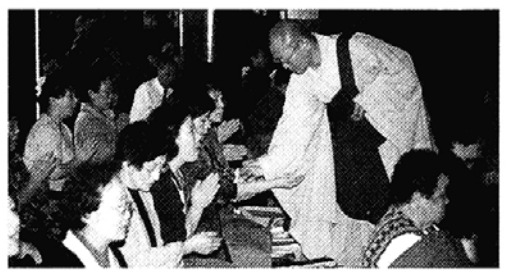
진각종 낙자·죽비 가지 관정 불사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2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낙자(洛子) 및 죽비 가지(加持) 관정(灌頂)불사를 봉행했다. 각해 총인이 증명 아사리로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불사에서는 신교도들의 동참으로 새롭게 제작된 낙자 및 죽비에 대한 가지관정과 성초 통리원장〈사진〉 등 2백여 스승에 대한 새 낙자수여식이 봉행됐다.



쌍계사 통광스님 주지 진산식

쌍계사(주지 통광)는 18일 팔영루에서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고산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 정구읍 하동군수를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진산식에서 쌍계사 직인이 새주지 통광스님에게 인도됐다.통광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벽안납자를 길러내는 선원의 육성과 승가대학의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8~20일 3일간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첫날과 둘째날 무진장스님과 정락스님의 법문에 이어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수계식이 열렸다. 고산스님이 계사로, 정락스님이 갈마아사리로 무진장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나선 수계식에서는 4백50여명의 불자가 계를 받았다.



불교기아기구 터키에 천만원 기탁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공동회장 김재일 김흥국)는 20일 주한 터키대사관 하릴다으대사에게 지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난민돕기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일·김흥국회장은 "터키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한달동안 모금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강메아리 가야산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17일 가야산을 등반하고 자연보호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40여 경은 원당선원과 백련암 코스 등 2개조로 나눠 사찰 참배및 일대 쓰레기줍기 자연환경 보호활동을 펼쳤다.

부산운불회장 고영호씨



부산운전불자기사회 제 2대 고영호회장 취임식이 10월20일 코모도호텔에서 본회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기해 봉행됐다. 고영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4백여 회원과 힘을 모아 달리는 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각종 불사에 앞장 서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임복진의원 후원의 밤

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 임복진의원 후원의 밤이 27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의원은 15대 국회의원 및 국민회의 광주남구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구 '맑고향기' 불교학당개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본부장 하형기)은 25일 지역불자을 위한 불교학당을 개설했다. 5일까지 '불교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문을 연 불교학당에서는 △부처님의 위대한 삶과 새로운 인간형(28일, 김성규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의 근본사상과 깨달음의 세계(29일, 동화사 포교국장 정현스님) 등의 강의가 펼쳐진다.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마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제 끈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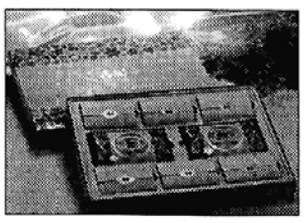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심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도 · 감청

주지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내 전화를 누가 엿듣고 있다" "휴대폰으로 하는 대화도 마음놓을 수 없다."

남의 말을 엿듣는 도청 감청이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 감청기구 및 감청실태' 폭로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감청과 감청 남용이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겨져 거듭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나 정작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원점만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도 · 감청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까지 극성이다. 도청과 감청,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청과 감청은 도둑행위와 같다. 사람사이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남의 것을 허락없이 훔치는 도둑질은 탐욕에서 비롯되고 탐욕의 과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누누히 강조하셨다. 경전에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탐욕은 독과 같으니 그것에 닿으면 치열한 불꽃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럼으로 탐욕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독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이어서 마치 불을 땔나무에 참거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불꽃은 영구히 꺼지는 일이 없게 된다. 저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꾸 열뇌만 더하게 해 가서 마치 나방이 등불을 보고 날아들어 그 몸 타는 줄을 모르눈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의 욕망에 집착함이 이러하니라. 〈제법집요경〉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하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보(後報 현세에서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내생에서 그 보를 받는 것)에 축생이 된다. 〈범천신책경〉

▨탐욕은 걱정을 낳고 탐욕은 두려움을 낳나니 탐욕 곧 없은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보냐. 〈법구경〉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개, 풀 한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된다. 〈범망경〉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욕심은 독사같아 은혜를 모르며 욕심은 햇벌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터 속에 꽃이 피듯 욕심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욕심은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삿된 소견(邪見)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올바른 소견(正見)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삿된 다스림(邪治)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다스림(正治)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삿된 말(邪語)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말(正語)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삿된 행동(邪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행동(正業)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증일아함경〉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탐욕인바 범부는 미혹하여 그것을 즐거운 줄 그릇 생각하나 지혜있는 사람은 그것이 괴로움인줄 알므로 탐욕이 눈에 띄는 대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내어 끝이 없다면 마치 소금물을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성실론〉

▨남에 대해 위증하여 형법에 걸리게 하지 말며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다투어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아함정행경〉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불교TV 회생을 믿으며

목.소.리



나성근
불교TV프로듀서

"불교TV는 과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천덕꾸러기인가?"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다"고 누구나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TV는 곧 공중분해될 운명에 놓여 있다. 이자조차 내지못하는 금융권 채무 압박과, 각종 부채, 이로 인한 수신료의 가압류. 또 밀린 임대료를 청산하지 못해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불교TV는 개국 5년 동안 영상포교사로써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는다. 이미 그동안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중파와 대만 등지에 수출 판매되었고, 태국과 대만 등지에서는 불교TV를 모범사례로 연구해 자국의 불교방송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사회적 병폐와 음란물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불교TV의 역할은 너무나도 막중하다. 지구촌을 한군데로 묶는 인터넷시대에 영상매체인 불교TV가 살아있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영미숙과 주식공모 실패,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표이사의 종단개입 등은 불교텔레비전의 회생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새로 취임한 허문도사장 역시 원칙없는 인사권 남용과 독불장군식 경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사왔다. 직원들은 지난 IMF이후, 상여금은 고사하고 월급마저 50% 밖에 받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은행빚에 몰려 퇴직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사태가 이어졌지만 퇴직금마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TV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난 5년여 동안 축적된 영상물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며, 위성방송과 인터넷 시대를 맞는 이즈음 불교문화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포교의 매체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되어, 결국 낡고 뒤떨어진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교TV는 꼭 회생돼야 하고 꼭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 · 사진 ·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스님들 왜 싸우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스님, 작년 겨울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난해 겨울을 넘겼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물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이나 명예를 좇을려면 왜 출가를 했습니까? 부처님을 믿는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스님들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꼴을 보인다면 당장 그 먹물 옷을 벗으십시오. 욕심이 잔뜩 든 얼굴로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싸우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땅의 문화와 정신의 한가운데 우뚝 섰던 불교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이 대의를 위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대의를 위해서라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재가불자들의 눈에는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욕심으로밖에 안 비칩니다.

사실 불교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알게 모르게 보살행을 행하고도 말하지 않고 작지단 표시나지 않게 부처님법을 따르는 많은 불자들 덕분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싸우는 스님들, 마치 사찰을 악귀들의 싸움터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불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다는 것 아신다면 더이상 추한꼴을 보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저는 올해야 수계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새벽기도 다니는 할머니 따라 절을 내집처럼 드나들었지만 행여 내가 한 행동이나 잘못때문에 다른 이들 눈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쫏쫏…"하는 지적을 들을까봐 조심하면 살았습니다. 불교가 포교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싸우는 모습을 외부로 노출시켜 부처님 이름에 먹칠하고 불자들의 발길을 막다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사자 스님들의 참회와 자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경인(서울 노원구 상계동)

또다시 스님들 폭력사태 불자라는 자긍심에 상처

폭력사태가 난지 불과 1년도 안돼 또다시 스님들의 폭력사태를 보게되다니 실망이 겹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TV나 신문보기가 민망스럽고 어디 가서 불자라고 얘기하기 조차 부끄럽습니다. TV뉴스에 나온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지만 과연 그들이 스님들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법회때마다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비워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일체유심조(一切惟心造)'를 가르치시는 스님들께서 승복을 입고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스님들께서 상처를 입는 만큼 불자들은 더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미래의 불자들인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용히 선방에서 참선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법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시지 마세요. 그 무엇보다도 수승한 부처님법을 잘 알고계신 스님들께서 부처님가르침으로 푸셔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김갑숙(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노골적 사찰매매 광고 게재 신중하게 검토를

현대불교신문을 열심히 읽는 독자다. 그런데 요새 들어 사찰매매 광고가 대폭 늘어난 것 같다. 사찰을 성소(聖所)요 기도처로 생각하는 우리같은 불자에게는 마치 주택매매 처럼 사고 파는 행위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가격까지 노골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광고를 보게되면 사찰이 한낱 매매물로 전락된 것 같아 씁쓰레하다 못해 오늘날의 물질화된 불교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울하다.

가능한 그런 사찰 매매 광고는 싣지 않았으면 싶다. 또 숨어서 보살행을 하는 불자들을 많이 발굴해 소개했으면 한다. 부처님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불자들을 본받아 그러한 보살행자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기민(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사에서 보낸 하룻밤 속진찌든 심신 정화 기회

자장율사가 창건한 금산사는 미륵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최근 도반들과 함께 금산사로 참배를 다녀왔다. 어두컴컴한 초저녁 저수지에서 산사까지 들어가는 주변분위기가 참 좋았다. 스님의 안내로 향적단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앞뒤 방문을 열어젖히자 풀내음이 가득한 신선한 산공기가 속진에 찌든 심신을 정화시켜 주는 듯 했다. 새벽 3시 30분. 작은 듯하다가 점점 커지고 짧은 듯하다 길어지는 장단과 강약의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도량석 소리에 눈을 떴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부처님도량으로 인도되는 듯 했다. 법당으로 가 한배한배 절을 올리고 있자니 스님들께서 조용히 들어오셨다. 앞줄에 스님들이, 뒤줄에 신도들이 앉아 의식에 따라 예불을 올렸다. 예불이 끝나고 다른 분들은 법당을 나갔지만 우리 일행은 남아 〈천수경〉 〈금강경〉에 맞추어 단전호흡을 하며 선정삼매에 들었다. 잡념이 완전히 떨쳐지지는 않았지만 고찰에서 하는 참선이라 그런지 40분간의 좌선에 오롯 몰두할 수 있었다. 참선을 끝내고 나오는 도반들의 얼굴이 평소보다 한층 해맑아 보였다. 부처님향기가 가득 배여있는 금산사 가람에서의 새벽예불과 참선은 세간에 돌아와서도 내게 힘과 격려를 주었다. 자주 산사의 향기를 마셔야겠다.

유영열(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독자 詩

고향모교

교육논리 경제논리 혼동하는 교육행정
구조조정 학교폐합 홍익인간 허구로다
한쪽에선 귀농정책 한편에선 학교폐지
우왕좌왕 농정행정 엎어진놈 잔등밟기
열린교육 하자더니 학교교문 닫아놓고
전인교육 외치더니 인정사정 볼것없네
농촌마을 문화센터 정든학교 없어지니
어느누가 고향가서 오손도손 살것인가
이지경이 되었으니 있는사람 다떠나고
오는사람 쉴곳없어 농민정책 살농정책
형제자매 직장잃어 갈곳만은 고향인데
잡초무성 모교보며 한숨짓는 옛친구여
하늘높이 추석만월 온집안을 밝히는데
교실모퉁 귀뚜라미 밤지새며 슬피우네
흰머리할 어친기침 부모님을 떠나오는
수심깊은 나그네여 천근만근 발길일세

김석태〈시인 · 수필가〉

목탁소리

김 중 근 〈취재2부 기자〉

잘 팔리는 불서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많은 군더더기로 가득차 있음을 반성하게 된다고 아는 이가 추천해 구입하러 왔습니다." 20일 영풍문고 불교코너에서 한 시민은 법정스님의 개정판〈무소유〉를 성큼 집어든다.

최근 조계종 폭력사태가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불교계 위상은 바닥이지만 천진난만한 동자승과 잔잔한 글이 담긴 서화집 〈풍경〉(이레 刊)과 무소유의 의미를 감동깊게 노래한 〈무소유〉(범우사 刊)는 국민적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 두권의 불서는 모두 스님이 지었고 나오자마자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안고있다. 16일 MBC-TV가 9시 정규뉴스에 비중있게 소개했을 정도다.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속에서도 두 불서는 2달여만에 6쇄를 찍었다.

〈풍경〉과 〈무소유〉가 대대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등과 혼탁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견디게 하는 영혼의 정화작용과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란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마음이 산란하고 의부세계가 어지러울 때 내면의 세계를 충전시키려는 간절한 독자들의 심정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귀추가 주목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은 불교의 이러한, 세간의 혼탁함과 갈등을 씻어줄 수 있는 청정함과 광화로운 귀의처를 기대하는 것인데 오히려 불교계가 추악한 내분으로 실망을 주어서야 될 말인가.

불교계는 이러한 세상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 천일기도 八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 · 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터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 · 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법어 **八公山 聖殿庵 會主 哲雄 大禪師**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9월 23일(양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 02)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9월 23일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一柱門 建立을 위한 一人 一燈 萬人萬燈 佛事 接受中입니다.

千日기도 八百日大法會

제9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八公山 聖殿庵 會主 哲雄 大禪師



팔공산 성전암 회주 철웅 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 · 조실 ·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2차
초청법사 · 제1회 화악산 직지사 조실 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법황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회계사 조실 숭산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전 조계종 종정 송서암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 제7회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1999. 3. 3(양 4.18) 성만
· 제8회 삼각산 보광사 조실 정일 대선사 1999. 6. 13(양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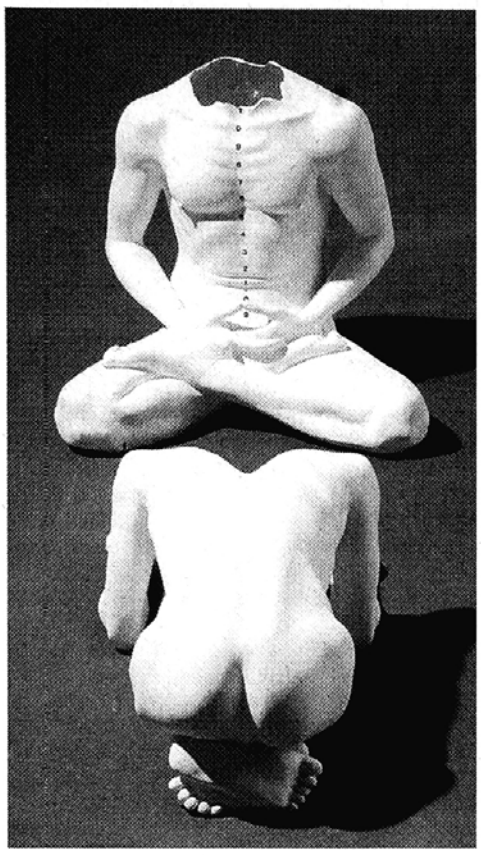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혜월 김북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현 신 옥 순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염무영월
고 문 양보타월 이연화심 이 경 희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 장 이관음행
부 회 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 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 무 손진여심 신월명심
감 사 박선혜월
감 사 권법연화
1 지 역 회 장 이반야행
2 지 역 회 장 유정혜성
3 지 역 회 장 최 복 식
4 지 역 회 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 창 단 장 유정혜성
총 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 무 박보리성
선 정 회 회 장 배 경 주
부 회 장 박보리성
총 무 이 상 희
총 무 최 은 섭
운영위원 일동
청 년 회 장 이 상 훈

약도
· 안국역에서 150m
선학원
3호선 안국역
경복궁 ← 안국동 로타리 → 창경궁
종로경찰서
↓
종각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김영원作 '절하기'. 이상화된 인간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인체에 내재된 정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체조각으로 윤회 표현

김영원씨 禪퍼포먼스…11월14일까지 금호미술관

'절하기' 시리즈 下心강조…"법당 들어선 느낌"

극히 사실적인 인체 조각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윤회의 원리로 설명해온 조각가 김영원씨가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94년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정신을 선(禪) 퍼포먼스로 보여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가다.

개막 당일 오후 5시, 김씨는 새끼줄이 동여매진 커다란 석고 원기둥을 맴돌면서 무아의 경지에서 뿜어나온 기운으로 손을 휘두르며 채 마르지 않은 석고 위에 선계를 그려내는 화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김씨는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물질과 정신, 의식과 무의식 등으로 분열 대립된 세계를 통합하고 전체적인 비전을 확보해 그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우리 삶과 존재의 본래적 의미를 찾고 싶었다"며 '선 퍼포먼스'를 설명했다.

사실 김씨는 빛깔 곱고 질감 좋은 대리석으로 다듬은 이상적인 여인상이나 현대적 세련미로 단장한 조각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다. 대중적인 조각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초대전에서 김씨는 '절하기' '중력 무중력' '걸어가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환' 등 1백여점의 낯설어 보이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인간의 윤회와 순환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선(禪) 조각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즉 선 조각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 과정과 자신의 행위 그 자체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절하기' 시리즈는 현대 산업사회의 빡빡하고 건조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성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하심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력 무중력' 시리즈는 크기가 다른 20개 인체 조각들의 연속 동작을 통해 복잡하고 서글프기만 한 인생의 숨겨진 뜻을 갈구하는 인간을 표현한다.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해 대형사진으로 뽑아놓은 '걸어오는 남자(여자)' 시리즈는 수십개의 인체가 다양한 배율로 겹쳐지면서 하나의 소실점으로 향하는, 역시 '합일'의 경지를 응변한다.

따라서 김씨의 작품에는 모종의 압도감이 잠재해 있다. 마치 법당에 들어섰을 때처럼 숙연함을 느끼기도 하고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김씨의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선(禪)사상에서도 우러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영원씨는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두 차례 했으며 현재 홍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20-5114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선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김영원씨.

▨운문스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

4천여 관중 '48원' 서원

첫 오페레타 '아미타불' 극흐름 단조로워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운문스님 불교 음악 40년 기념음악회'는 밀레니엄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40여년동안 청소년 법회와 찬불가 창작 보급 운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살아온 운문스님의 업적에 대한 치하는 물론 해방이후 한국 찬불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불교 음악의 장르로서는 처음으로 창작 오페레타 '아미타불'(작곡 정부기, 지휘 이인원)을 함께 발표해 공연전부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행사는 출연자 1천여명을 비롯 3천여명의 관객이 동참한 대규모 음악회였다. 1부에서는 조계종 소년소녀합창단 등 35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연합합창단의 '누가 누가 예쁠까' 등과 8백여명의 어머니연합합창단의 '찬불가' '보현행원' '산회가' 등 운문스님의 작품들이 연주됐다. 2부에서는 법장비구의 48서원과 성불과 정을 극으로 꾸민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40분간 장엄하게 공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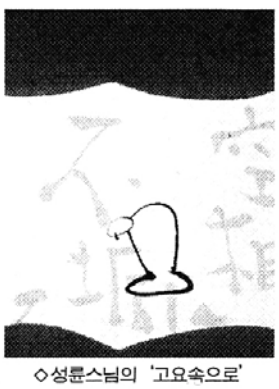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미타불'의 마지막 장면.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믿는 중생은 누구든지 끝없는 열반의 기쁨을 누린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대목에서 공연에 참가했던 1천여명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와 손을 잡고 '찬불가'를 합창하며 객석과 함께 발심화합하는 모습은 최근 조계종 사태와 대비되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번 음악회는 봉원사·봉선사·화계사·영산 법화사·한마음선원 등 서울 및 수도권 20개 합창단을 비롯해 대구·부산·제주 등 전국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다만 오페레타 '아미타불'은 단조로운 줄거리를 뒷받침 해줄 법장 비구의 드라마틱 하며 극적인 모티브가 약해 관객들로 하여금 재미를 덜 느끼게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관현악단과 무대위의 배우들, 합창단등을 흡인력 있게 리드하지 못한 것은 서정적이며 동음 진행에 대한 선율 사용으로 극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시도한 작곡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타종교에 비해 포교 음악의 역사가 짧기에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불교 음악계의 현실속에서 이번 음악회는 새 천년을 앞두고 교계 최초의 음악 장르인 오페레타의 서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성륜스님 '북한산 심곡암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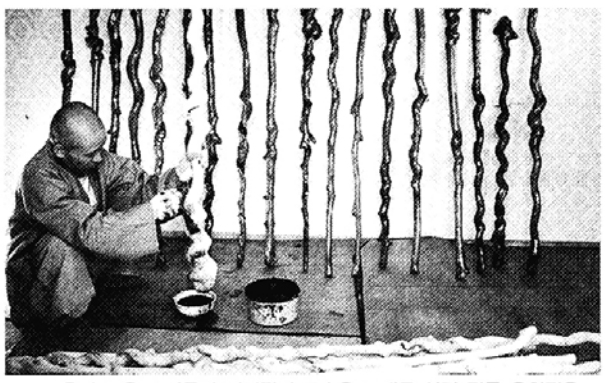
◇성륜스님의 '고요속으로'

성륜스님이 30·31일 양일간 서울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몇 안되는 승려화가 중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펼쳐온 성륜스님의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북한산 심곡암'이다.

"심곡암의 전경을 화폭에 옮기면서, 수행처 본래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는 성륜스님은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정갈한 수행도량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개인전이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성륜스님은 흔히 '선화'라고 지칭되는, 불교적 사유가 담긴 작품활동 외에 설치미술에도 남다른 솜씨를 갖고 있다. (02)943-0851



◇우리 고유 소나무의 자연적인 모습을 그대로 살려 전통 육환장을 만들고 있는 학림스님.

학림스님 수공예전 '어바부바솔'

25~31일 부산 태화백화점 전시관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육환장, 송진목으로 재현한 생활다기 등 사원전통 수공예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봄 서울에서 사원전통수공예 수행용품전을 개최해 호평을 받은 학림스님(조계종 육환장 연구원장)이 10월 31일까지 부산 태화백화점 원앙홀 전시관에서 사원전통 수공예전 두번째 '어바부바 솔'전을 개최한다. '어바부바'란 '참 좋다'라는 한겨레 진언.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과 함께 수천년을 살아왔고 약재와 건축재 식량등 다양하게 쓰였던 토종 소나무를 재료로 만든 찻상, 다기, 촛대, 향꽂이, 목침, 육환장, 지팡이, 죽비, 종망치 등과 호신불, 읊판 등 생활용품, 불구용품 등 총 2백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찻잔받침, 다과접시, 송차잔, 활력광솔 등은 거송(巨松)이 죽어 수십년 발효된 솔뿌리기름인 송진으로 만든 것으로 자연적인 모습과 그윽한 솔향기가 일품이다. 학림스님은 3년의 진통끝에 가볍고 장엄하며 소리가 맑은 육환장을 재현해 이번에도 33개를 전시한다. 나무의 자연적인 비틀림을 그대로 살린 육환장은 생옻칠과 금도금을 해 전통 육환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011)888-1118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부산에 동국불교미술연구소 개소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미술연구소가 최근 문을 열었다. 월간 불교세계 부설로 발족한 이 연구소 이름은 '동국불교미술연구소(소장 한승구)'.

연구소는 불화 단청 벽화외 불교미술사료에 대한 연구 및 재조명, 불교미술서적 발간, 불화 단청제작 및 보수 등을 하게 된다. 불교미술에 관심있는 1·2·3년 과정의 연구생을 모집, 불교미술가로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있다.

연구소는 정명호 문화재전문위원(동국대 교수), 자문위원은 김용환(부산대교수) 황신규씨(동의공업대 교수), 연구위원은 곽동해 정경용 천성철 문화재 단청수리 기술자, 그외 수석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051)515-0925

'직지심체요절' CD-롬 제작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과정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CD-ROM이 개발됐다.

청주 사이버직지문화연구소(대표 정덕형)가 청주지역 업체 '한 인터내셔날'과 손잡고 제작한 CD-ROM '깨달음의 이야기-직지'는 △직지의 역사적 배경 △직지의 구체적 내용 △직지 제작과정 △도표로 보는 인쇄사 등의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자로 된 직지 내용 전문, 최초 한글 금속활자 월인천강지곡 전문뿐 아니라 쉽게 풀어쓴 직지 이야기, 인간 문화재 오국진씨의 금속활자 제작과정 동영상,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프랑스 국립도서관·청주 고인쇄 박물관 사진 영상 등이 담겨있다.

정덕형 소장은 "그동안 직지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 것이 거의 없어 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신세대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CD-ROM으로 제작돼 교육용뿐만 아니라 상품화로 직지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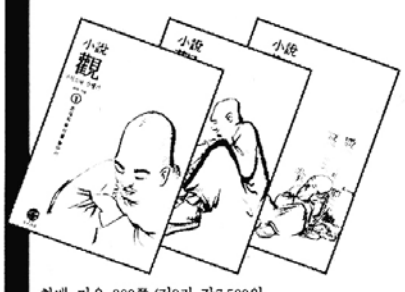
◇연극 '천년보다 깊은'에서 광기어린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무송.

전무송씨 연극 '천년보다 깊은' 출연

불자 연극배우 전무송(59)이 29일부터 12월5일까지 광화문 제일화재세실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천년보다 깊은'(변영국작, 민복기연출)에서 종(鐘)만드는 광기어린 장인으로 무대에 선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만든 장인의 열정을 그린 이 작품에서 전무송은 최고의 종소리를 얻기 위해 손녀까지 제물로 바치려는 '박부부'라는 주종박사다.

그는 이같은 무모한 방식을 반대하는 라이벌 박종익(전국환)과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 갈등으로 인해 박부부는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02)543-4994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한백 지음 300쪽/전3권 값7,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구선스님 수행기

소설 觀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의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의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봉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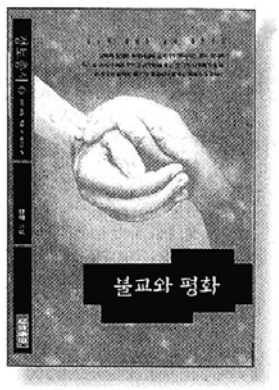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觀



"불교정신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법륜스님 '불교와 평화' 출간

다툼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평화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은 〈불교와 평화〉(정토 刊)가 나왔다. '(사)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이 펴낸 이 책은 다시금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4편의 글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갈등을 넘어서'와 '원효의 화쟁-불교의 평화'는 좋은 벗들에서,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불교적 대안'은 한국불교사회연구소에서 주최한 종교와 문명의 대화모임에서 강의한 것이다.

첫번 째 장인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서는 인종 민족 계급 종교간 갈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를, '세계 평화와 민족통일'에서는 우리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불교적 대안'에서는 불자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 기능과 대안에 대해 각각 설하고 있다. 또 마지막 장인 '원효의 화쟁-불교의 평화'에서는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 모든 다툼과 의견 불일치가 결국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상을 정립한 원효스님을 통해 불교의 평화사상을 진단한다. 값 5천원.

"평상심 수행 '주인노릇'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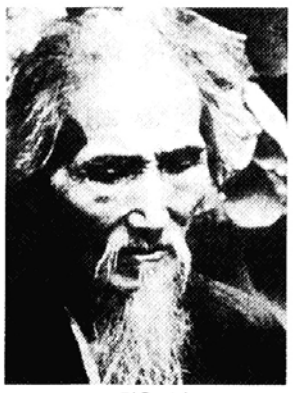
'허운스님의 방편개시' 대성스님 옮김/ 여시아문 펴냄

典章과 詩偈해설 인과에 관한 고사 계율의 중요성등 다양한 실천 설파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훌륭한 교화방법은 무엇일까. 100년 동안 수행과 교화에 진력한 중국의 허운스님(1840~1959)의 법문이 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302' 〈방편개시(方便開示)〉는 격식을 갖춘 상당설법(上堂說法)과는 달리 여러가지 일상적인 비유와 예화를 들어가면서 대중을 경책하고, 일상 생활을 지도하는 방편적 성격이 강한 허운스님의 현실법문이다.

이 책은 허운스님이 116세이던 1955년 봄부터 여름까지 운거산 대중을 상대로 한 법문으로 1부는 〈허운화상개시록〉〈허운법사연보〉등에 수록된 '운거산 방편개시'를, 2부는 단편적인 법문인 〈참선과 염불〉〈선종과 정토〉를 하나로 묶어 번역한 것이다. 인과, 마음닦기, 계법, 20가지 어려운 일등 40여편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전장(典章)과 시게(詩偈)의 해설에서부터 인과(因果)에 관한 여러가지 고사, 계율의 중요성과 전계 관행에 관한 이야기, 심지어 논밭에 나가서 운력하자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실천을 설파하고 있다.


◇허운스님

허운스님의 법문은 계정혜(戒定慧) 3학과 인과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된다. 〈방편개시〉도 이러한 골격이 현실적 관심속에서 여러가지로 응용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먼저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계율을 배우고 지킬 것'과 전장을 보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능엄경〉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설하고 있다.

여기에 평상심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인노릇'을 강조하면서 힘써 수행하라, 일체를 놓아 버리고 오롯한 마음으로 도를 추구하라'는 경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 자신의 공부도 겸허하게 자책하여, 읽는이로 하여금 부끄럽고 숙연한 마음이 들게한다.

청말(淸末) 이후 금세기 중반까지 어지럽고 비참했던 중국 역사 속에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불법을 중흥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허운스님의 행은 불교의 진리를 구현하려는 대승적 발심의 귀결이다. 스님의 이러한 실천의 심원한 법향이 책에 수록된 법문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방편개시〉는 단일한 대중을 상대로 한 법문이다. 이 일련의 법문이 주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논리로 인해 수행의 관심사를 두루 아우르는 하나의 긴 법문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다른 맛이다.

역자 대성스님은 "노화상의 법문은 당신 생애의 한 정리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깨달음의 빛이다"며 "이 빛에 이끌려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말로 옮겼으나, 말씀의 진정한 낙처(落處)와 그 이면의 깊은 체험이야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라고 허운스님의 높은 법력을 찬탄했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인사 장경각 뉴 피라미드 구조"

김형극씨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벗기다'

해인사 팔만대장경각 지붕, 석굴암 석굴, 불국사 석가탑의 중간부 등 불교건축이 피라미드 에너지를 발산하는 구조다라고 밝힌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형극씨가 펴낸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벗기다〉(반도기획 刊)이 바로 그것. 이 책에서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의 경판이 썩지 않고 있는 것은 골격 즉 피라미드의 에너지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경각은 뉴 피라미드의 백미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대장경판이 썩지 않고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골격 즉 피라미드 에너지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라미드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부패 억제 및 방지라는 것. 또 이 책은 석굴암의 석굴 돔형 구조, 석가탑의 탑 중간부, 금산사 미륵전 내부 등이 피라미드 구조로 건립됐다고 밝히고 있다. 값 9천원.



한승원 중단편집 6권 출간

30년 창작 총정리

〈아제아제 바라아제〉(전3권), 〈스님의 맨발〉 등으로 유명한 중견작가 한승원씨(60)가 30년 문학사를 총정리한 〈한승원 중단편집〉(문이당 刊·전 6권)을 내놓았다.

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목선〉에서부터 최근작 〈유자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70편의 중·단편이 수록돼 있다.

1권 〈목선〉에 실린 작품은 갯가 사람들의 억척스런 삶과 운명적 정서인 한을 주제로 한 〈목선〉을 비롯 〈갈매기〉 〈폐촌〉 등 69~75년에 발표된 초기작들, 2권 〈아리랑 별곡〉, 3권 〈누이와 늑대〉, 4권 〈해변의 길손〉에는 80년대 까지의 중기작으로 초기와 변모된 창작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5권 〈내 고향 남쪽 바다〉, 6권 〈검은댕기두루미〉는 암울한 시대가 남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삶의 궁극적 진실을 모색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씨의 딸인 작가 한강(29)의 〈아기부처〉가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값 각권 9천원.

새로나온 책



▲모든 게 인연일세(이현덕 지음)= 평생을 염불과 참선 자비행을 실천하다 지난해 11월 입적한 명진스님(前 해인사 주지)에 관한 에세이. 저자 이현덕씨(전자신문 논설실장)가 97년 여름 해인사 길상암에서 요양생활을 하며 명진스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느낀 점과 스님에게 들은 법문 등을 정리한 것으로 명진스님의 법향이 녹아 있다. 가야산 해인사에 대한 느낌을 시작으로 길상암, 절 식구들 등의 순으로 쓰여진 이 책은 마치 산사에 와 있는듯 생동적이다. 저자는 "길상암 생활 후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졌다"며 "명진스님의 삶은 탐욕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집현전 刊. 값 6천원.



▲새 천년이다(홍희표 지음)= 새로운 천년은 화해와 협력, 인간존엄의 제 2문예부흥시대로 열어 나가야 한다는 홍희표 시인(목원대 교수)의 4번 째 산문집. 꼼돌의 소리, 시인의 고향, 겨울만행 등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80년 대부터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쓴 96편의 산문으로 생태파괴에 대한 저자의 간절함이 곳곳에 배어 있다. 저자는 "새 세기는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 파멸의 불안, 사이버문화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된다"며 "새 이념과 문화를 개화시키는 의지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머리말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학아카데미 刊. 값8천원.



▲엄마가 만드는 꼬마철학자(에바 쥴러 지음 · 김현자 옮김)= 아이들을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세계로 이끌어 주기 위해 꼬마철학자에게 걸맞는 여러가지 유형의 재미있는 '철학놀이'를 제시한 책. 철학놀이란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기다. 사고와 언어를 통한 놀이,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하기 등. 이 책은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늘 궁금하면서도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신만의 가능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에 충분하다. 인북스 刊.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있는 그대로	정 창 영	한 문 화
3	풍경	원 성	이 레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6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7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 창 호	정 우 사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 타	불교시대사
9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10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 암	여 래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누가 문화재를… 고제희 지음

문화재에 얽힌 流轉과 비화 적어



〈누가 문화재를 벙어리기생이라 했는가〉(다른세상 刊)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예술품에 얽힌 유전(流轉)의 비화를 적은 책이다. '역사의 문항에 담긴 그림들' '정교한 조각과 법열의 미소 불상들'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란 비화가 전해지는 금동여래입상(보물 401호)을 비롯 금동신묘명무량수삼존불입상(국보 85호), 추사의 세한도(국보 180호) 등 27점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또 예술혼이 배인 각 작품의 감상 포인트와 각 문화재 지정절차, 금속유물 감상법 등도 각 장마다 곁들여 문화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높여주고 있다. 값 9천원.

중국사상이란 무엇인가 힌혜원 옮김

유가 · 도가 · 불교등 사상특징 분석

중국 사상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정리한 책이 나왔다.

〈중국사상이란 무엇인가〉(학고재 刊)는 공자와 맹자를 대표로하는 유가, 노자와 장자를 대표로하는 도가, 그리고 외래사상이지만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불교, 여러신들이 가득찬 도교 등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중국철학자인 하치야 구니오씨(前 동경대 교수)가 쓴 이 책은 각 사상의 특성을 '도(道)'의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유가의 도는 도덕이며 도가의 도는 철학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불교나 도교의 도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다. 값 9천원



49재 및 각종 불사의 법보시용으로 가장 좋은 책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큰스님 著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판 / 3,500원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著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6판 / 3,500원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著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6판 / 3,5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著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풀이되어 있는 이 책은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著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해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4×6판 / 3,500원



범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낙산사 홍련암, 해상안전 신앙적 거점"

조용헌씨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해상용왕 협시배치 용신앙 불교적 흡수 호국불 상징에서 아미타신앙 전환"

낙산사 홍련암의 창건은 중국과 해상교류가 활발했던 당시 신라인들에게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신앙으로서 해상용왕에 바탕을 둔 관음신앙이 요청됐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시아에서 의상의 관음신앙과 낙산사'를 주제로 24일 낙산사에서 열린 제1회 의상법사 국제학술회의에서 조용헌 강사(원광대)는 '의상대사 창건사찰에 나타난 용신앙'을 통해 "낙산사 홍련암의 창건 연기에서 해상용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항해와 관련있음을 시사하는 단서가 아닐까 추측한다"며 "낙산사 홍련암 창건의 사회사적 의미는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 증가하는 해상교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앙적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해상용왕은 홍련암 법당의 주존인 관음보살 좌우에 남순동자와 함께 협시로 모셔져 있다. 이러한 협시의 배치는 한국 사찰에서는 보기드문 경우이다. 법당의 천장에는 용트림을 하는 용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홍련암 법당의 구멍은 관음보살 친견과 해조음을 관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해온 조 강사는 이번에는 용이 들락거리기 위한 통로라는 가설을 하나 더 덧붙였다. '용즉불' 사상이 성행하던 당시 신라사회에서 '용즉관음'의 등식을 따르는 사례는 홍련암이 최초일 것으로 추정했다. 관음신앙에서 관음과 용은 산신과 호랑이처럼 짝으로 잘 나온다. 통상 관음은 남해에 주처하고 있는데 홍련암이 해동에 위치한 관음도량이라는 것도 특이하다. 조 강사는 그 이유를 신라인들이 신라를 불국토로 생각하는 오대산 신앙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오대 중 동대는 푸른 바탕의 관음방이고 오행에서 동쪽은 청색과 용을 상징함을 들었다. 이로 인해 홍련암은 관음도량이 될 수 있는 원리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 강사는 "홍련암 창건설화에 나타나는 용은 재래의 용이 의상대사에게 포섭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재래의 용신앙이 불교내에 흡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용으로 상징되는 바다의 신앙이 불교와 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상대사의 창건 사찰인 부석사 역시 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량수전 내부에는 목조로 된 8미터 크기의 용조각이 장식돼 있고 무량수전 아미타불 대좌 밑에서 그 두부가 시작되어 S자형으로 법당 앞뜰의 석등과 정재석 밑의 미부가 끝나기까지 십수간 길이의 용형을 조각한 석물이 땅 속에 묻혀 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은 바로 이 석조 용의 머리 위에 얹혀 있다. 조 강사는 용의 머리 위에 아미타불이 조성되어 있는 무량수전의 구조는 의상대사 설립 당시 품었던 종교사상적 의지가 직접적으로 투영돼 있다고 추정한다.



◇홍련암 관음전에 있는 달집 용두.

조용헌 강사는 "의상 이전까지 용은 호국불의 의미지만 의상의 용과 아미타불 배치는 불교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전환"이라며 "신라불교가 현실참여적이고 호국적인 미륵신앙에서 현세초월적이며 개인적인 아미타신앙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보여주는 사찰이 부석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의상과 주변(민영규) △의상전의 재고(김지견) △의상의 화엄사상(정병삼) △낙산사 홍련암과 불긍거관음전(조영록) △법계도기 텍스트의 문제(사또 아쯔지) △소리로 깨닫는 의상의 관음신앙(최석환) △낙산사와 범일(최현식) 등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의 공간성 회복할 때 토착화된 불교 더 잘 이해"

소흥렬 교수, 비판불교 문제제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비판불교의 파라독스'를 주제로 16일 제5차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비판불교에서처럼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를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를 역설한 소흥렬 교수(포항공대)는 "오늘의 시대가 공간적 사유를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불교는 본래 공간성을 중요시해 온 종교이기 때문에 마쓰모도의 역설과 갈등을 지성공간과 감성공간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그 갈등의 해결을 영성공간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공간적 사유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불교의 공간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특수 문화적 공간에 토착화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불교를 파라독스 개념으로 비판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뜻은 현단계의 이론화 수준에서는 제거될 수 없는 파라독스를 찾아내어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는 데 있다. 소 교수는 지성주의 인식론, 근본주의 방법론, 무아론적 존재론, 문화주의적 가치론, 마쓰모도의 파라독스를 지적해낸다.

소흥렬 교수는 "비판불교를 불교(종교)가 아닌 불교철학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비판의 역할과 비판의 힘이 더 분명하게 된다"며 "남은 문제는 불교철학이 또는 불교와 철학이 비판불교의 온갖 파라독스로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불교는 우파니샤드철학 아류아니다"

조준호 박사 주장



인도학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베다시대 브라흐마나시대 아란야카시대 우파니샤드시대 이후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 도식적인 연대기로 불교의 기원을 구하던 기존 연구방법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다크리슈난이나 나카무라 하지메 등 인도학불교학자들의 해석처럼 불교는 바라문교 전통의 연장선상 또는 반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처음부터 불교가 불교만의 독창적인 성격의 종교로 출발할 수 있었음은 케사푸티야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붓다가 전통과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연기, 4성제, 무아의 교설이 불교 흥기 전후의 같은 사문종교인 자이나교에서나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바라문 전통에서 찾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초기 우파니샤드의 성립지역은 불교의 발상지인 동북부 인도인데 불교전에 성립할 수 없음을 다른 고대 인도 문헌에서도 뒷받침해준다며 "바라문교 전통인 우파니샤드와 사문종교 전통인 불교는 사상적으로 혈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문종교의 기원을 바라문 종교의 반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술단신

제2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는 28일 오후2시 동아대 교수회관에서 '21세기의 불교신행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정토학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승가의 신행방향'을, 홍윤식 교수(동국대)가 '정토와 의식'을, 선진규 회장(전국신도회)이 '새천년 정토신행의 포교적 당위성'을, 정철호 박사(동아대)가 '21세기 불교 신행의 과제-재가불교의 입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정태혁 박사, 김재일 회장(동산반야회), 김영미 교수(이화여대)등이 참석한다.

동국대-북경대 학술회의

동국대·북경대가 주최하는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북경대학 중국전통문화연구센터에서 열렸다. '전통문화와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은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종찬 교수는 '한중 외교시 별견(瞥見)'을, 임기중 교수는 '19세기 한중 외교화답시의 현대적 의미'를, 송재운 교수는 '유가전통과 현대 한국 가족문화'를, 박영환 교수(이상 동국대)는 '굴원 사상 경계의 현대적 의의'를, 윤사순 교수(고려대)는 '유교 윤리의 현대적 가용화'를 발표했다.

癸未명 고려종 종합고찰

용인대학교 부설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춘남)는 27일 오후2시 용인대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계미(癸未)명 고려종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제4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최응천 학예연구관(국립중앙박물관)이 '계미명 범종의 양식적 특징과 편년'을,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범종의 불교적 기능과 의미'를, 나형용 교수(서울대)가 '계미명 고려종의 주조법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부대미디어 사이버 기행

캄보디아 투어

프놈펜 사원·앙코르 사원등 소개

툴 스렘 박물관과 연동서비스 제공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롯이 귀의한 순박한 눈동자와 불가사의한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함께 하는 캄보디아를 가상 공간에서 방문해 보고 싶다면 인터넷 '캄보디아 투어(Cambodia Tour)' 사이트를 클릭하면 된다.

캄보디아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투어사(社)가 인터넷 상에 오픈한 '캄보디아 투어' 사이트는 △불교 개관 △프놈펜 사원 △앙코르 사원 △앙코르톰 사원 등의 메뉴를 제공, 불교 행사와 사원을 집중·소개하고 있다.

'불교 개관' 서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는 79년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3천 4백여 사찰을 두고 있으며, 스님은 5만여명에 이른다. 상좌불교 보다는 대승불교의 특징을 지녀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의 90%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에서는 스님들이 각별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누구나 출가생활을 해 보는 것을 원해 소수의 청년들은 과거의 단기출가 전통을 살려 2주간의 행자생활에 참여하기도 한다.

프놈펜에서의 긴 탁발승 행렬과 노천에 설립된 불단 앞에서 향을 사르고 무언가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프놈펜 사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구 1백만의 도시 프놈펜에는 국립예술박물관뿐만 아니라 프놈펜 사원, 랑카 사원, 툴 툼 퐁 사원 등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찰들이 곳곳에 있어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서비스에서는 각 사원의 역사·유물을 소개한 텍스트와 전경 사진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감상할 수 있다.

'앙코르 사원' 서비스에서는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크메르제국의 수도였으며 북으로는 라오스, 서쪽으로 미얀마, 남으로는 말레이 반도 그리고 동으로는 남지나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도시 앙코르의 불가사의한 문화유산을 열람할 수 있다. 2백3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에 세워진 280여개 사원으로 구성된 앙코르 와트는 불교와 힌두교의 유물들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스며 있어 오늘날 세계인의 눈길을 모으는 문화유산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껏 진행된 다각적인 보수·복원 작업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앙코르 와트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에 위치한 앙코르톰도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교 유적이다. '앙코르톰' 서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원인 앙코르톰은 자야바르만 7세가 관세음보살에게 바치기 위해 증건한 불멸의 업적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51개의 탑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바이은 유적에 대한 13장의 그래픽을 열람할 수 있다. 이들 사진에는 204구의 관세음보살상 모습과 고대 크메르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조물들이 담겨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asiatour.com/cambodia/e-03phno/ec-phn24.htm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육근 청정해야 실상경계 본다

법 화 경 ⑪

글쓴이



이 기 운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38

무량의 뜻으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
오종법사 수행설해 염불의 길 안내

〈법화경〉에서는 물론 깨달아 성불(頓悟成佛)하는 여래의 선사상을 설하고 있다. 돈오성불이란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도를 이루어 곧 바로 불도에 들어가는 일불승으로, 일념으로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일체의 번뇌와 습기를 끊고 일체를 보고 알아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달리 일념신해(一念信解: 일념으로 믿음과 이해) 일념수희(一念隨喜:일념으로 따라 기뻐함)로도 표현한다. 그러나 〈법화경〉이 다른 대승경전보다 강조하는 것은 불도를 향해 나아가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敎菩薩法)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호념하시는 경(佛所護念)이라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호념(護念, Parigraha)하고 섭수(攝受)하는 경이란 '서품'에서는 '무량의 뜻으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설하고, '안락행품'에서는 '제천이 주야로 항상 법을 위하여 위호(衛護)한다'고 하며, '다라니품'에서는 '두 보살(막왕보살,용시보살) 두 하늘(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십나찰녀도 다섯가지 신주(神呪)에 의하여 〈법화경〉을 수지하는 오종법사(五種法師: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 이)를 옹호(擁護)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호념하시는 것은 곧 돈오의 일불승을 설하는 비밀법을 설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일불승 여래선정의 경계는 경의 서두로부터 보살대중과 성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품'에서 부처는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 법화삼매의 일종으로 실상을 아는 삼매)에 들어 백호에서 동방으로 만팔천토를 비추어 불국토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무언의 설법을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들은 문수보살을 제외하고 이 광명이 뜻하는 바 실상의 법을 알지 못하여 의혹에 쌓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방편품'에 이르면 삼매속에서 일어나신 부처님께서 온갖 선정 삼매등 미증유의 법을 성취했다고 밝히고 오직 부처님이라야만 제법실상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법은 "이와 같은 상(相), 이와 같은 성(性), 이와같은 체(體), 이와 같은 역(力), 이와 같은 작(作), 이와 같은 인(因), 이와 같은 연(緣), 이와 같은 과(果), 이와 같은 보(報), 이와 같은 본말구경등(本末究竟等)"라고 실상의 경계를 밝히자, 지혜제일 성문제자 사리불도 부처님의 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여래는 삼승 방편 일승 진실의 법을 폈다고 선언하자, 오천의 대중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여래의 선정으로 도달하는 돈각의 실상은 어떻게 체득되는가? 이를 위하여 부처는 무수한 인연과 비유가 필요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어 육근청정(六根淸淨)으로 얻어지는 수행법을 설하고 있다. 육근이 청정해지는 과정은 경을 통달해 지니고(受持), 읽고(讀), 외우고(誦), 해설(解說)하고, 베껴씀으로써(書寫) 끊임없이 〈법화경〉의 오종법사를 수행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六根: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의 육근은 자신의 업(業)에 의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의식하였으나, 이제 법화의 공덕으로 인하여 이것은 모두 허망한 감각들임을 깨닫고 참회하면 자연 오욕락이 허망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를 〈법화론(法華論)〉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법화경〉의 힘으로 인해 뛰어난 근기의 활동력을 얻어 비록 초지(初地: 견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주신 육안(肉眼: 육근)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을 꿰뚫어 보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육근을 장엄하면 이제 냄새만 맡던 비근(鼻根)에서 안근의 색을 볼수 있고, 소리를 듣고, 촉감을 느끼며, 법을 아는 등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곧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안(肉眼)에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의 작용이 갖춰지므로써 신통력이 생기고 불가사의한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나머지 오근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이 육근청정을 얻는 과정이고 법화삼매에 드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법화삼매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9

부처님의 자유 ①

우리 시대가 우렁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자유이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자유를 부르짖는 소리가 넓게 또 절박하게 울렸던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며, 인간의 존재 기반 깊숙이까지 그 소리가 파고 든 적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유를 찾아 몸부림친 결과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각자가 소속 집단의 향방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제나 과두제와 같은 낡은 정치 형태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에게 길을 비켜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교마저도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해방 전선에서 성역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신앙 체계와 행위 규범은 이전처럼, 신이 명했다거나 경전이 성화시켰다거나 성직자가 규정했다는 근거만으로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제 신앙 체계와 행위 규범도 신성의 베일을 걷어부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대 지성인들의 비판적인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자유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싶어 하는 인류의 요청에 응답이라도 하듯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의 가르침인 법을 펴 2천5백년 전에나 지금에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자유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큰 바다에 맛이라곤 오직 한 가지 소금맛이 있듯, 이 법(dharma)과 율(vinaya)에는 오직 한 맛, 자유의 맛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 한마디로 불법이 인간 해방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단언했다.

불법 본질은 인간해방
법과 계율 자유의 향기로 충만
수행비례 닦은 만큼 자유 누려

대양의 물은 표면에서 떠서 맛보거나 중간에서 떠서 맛보거나 바닥에서 떠서 맛보거나 그 물맛은 매양 똑 같으니 짠 맛일 뿐이다. 또 바닷물을 한모금 마시거나 한잔을 마시거나 한 통을 다 마시거나 그 맛은 언제나 똑같이 짠 맛일 뿐이다.

이 점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모든 법과 계율은 단 한 가지 향기, 자유의 향기로 충만해 있다. 비교적 기초단계에서 법을 맛보거나, 다시 말해서 관용과 도덕적 수련을 닦는 중에, 기도와 신행을 실천하는 중에 법을 맛보거나, 또는 중간 수준에서 맛보거나, 즉 선정을 통해 고요와 통찰을 이루는 단계에서 맛보거나, 아니면 가장 깊은 수준, 즉 해탈을 이룬 수행자가 실현하는 초세간적 지견(知見)과 해탈에서 맛보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법의 맛은 똑같으니 바로 자유의 맛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재가 생활을 하여 법을 한정된 범위에서 닦으면 그 사람은 한정된 자유를 그대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출가하여 한갓지게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사람다운 덕행을 짓고, 일체 조건지워진 것들의 생(生)과 멸(滅)을 관하는 등, 보다 충분히 법을 닦으면 자유도 보다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행자가 법을 최종 단계에까지 닦아 이 생에서 해탈의 목표를 성취해내면 수행자는 한량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어떤 수준에서도 가르침의 향기는 단 한 가지 성질뿐이니 자유의 향기다. 다른 점이라면 어느 정도로 이 향기를 누리는가 하는 그 차이뿐이며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수행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조금 법을 닦으면 조금 자유를 얻고, 많이 법을 닦으면 많이 자유를 얻는다. 법은 언제나 과학적 법칙처럼 정확하게 자유라는 독특한 보상을 베푼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통일장 이론 ③

존재하는 모든 양자장
입자-힘-진공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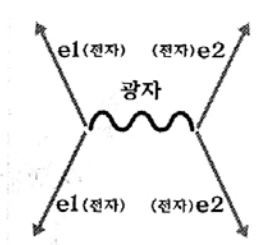
'통일장 이론'이란 근본적인 수준에서 표면적인 차이를 분별하는게 아닌 개별적인 차이를 통합적인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자와 힘이 다르다고 느낀다. 그러나 양자장 이론에서는 오직 장(場)만이 있을 뿐 입자와 힘의 차이는 기능상의 문제이다. 즉, 입자와 힘 모두 같은 장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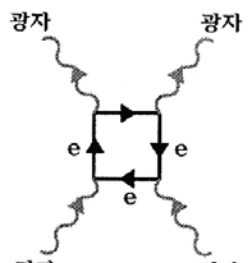
양자장에는 세가지 뚜렷히 다른 모드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입자로 인식하게되는 장의 상태로 '안정적 장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의 장의 에너지는 잘 정의되고 이산적인 에너지를 가졌으므로 입자라고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이산적인 높이를 가진 파만이 안정된 파이다. 이는 어떤 장(場)의 에너지량이 이산적이 혹은 양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이산적인 값을 가지지 않은 파들은 모두 불안정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는다. 양자장이 이산적 단위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입자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한 단위의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장의 상태를 한 입자 상태라고 하고 장이 두 단위의 에너지를 가지면 두 입자 상태라고 이름한다. 장의 입자 상태는 안정되어 있으며 다른 입자를 만나거나 상호작용에 의해 자신의 상태가 변경될 때까지 자유롭게 이동한다. 둘째 상태는 '과도기적 장' 상태이다. 진행되지도 않고 잘 정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다. 파이만의 도식에서는 내부선으로 나타나는데 입자들 사이에서 힘의 역할을 한다. 이 상태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이다. 이를 가상 입자라고 부른다. 세번째로 진공 요동상태가 있다. 연속적이고 모든 흥분된 상태 뿐만아니라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양자장의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활동이 일어난다.

전에 언급했듯이 양자장 이론에서의 진공은 고전 물리학의 진공과는 달리 에너지가 가득하나 완전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파이만 도식은 양자장의 상호작용을 도식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실은 도식(1)은 전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전자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기장은 증개 상태인데 안정적인 입자 상태가 아니다. 즉 양자장의 두 번째 상태인 과도기적 장 상태이다. 실험으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 입자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힘의 역할을 한다. 전자 e1과 e2는 도식 및 부분으로부터 올라와 가상 광자를 매개로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도식의 위 방향으로 서로에서 멀어진다. 실험으로 관측되는 것은 전자 e1, e2이다.



〈도식1〉



〈도식2〉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양자장은 입자나 혹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역할은 전자장(電子場)을 중간 매개로 일어나는 두 광자(빛 알갱이)의 산란을 나타내는 도식(2)에서는 반대가 된다. 여기에서는 가상 전자가 힘의 역할을 하고 광자가 측정되어지는 입자의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두 개의 빛 입자 혹은 두 개의 빛 줄기는 서로 산란하지 않는다. 왜냐면 빛은 일종의 전자기장이며 전자기장은 전기를 띤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에 의한 빛의 산란은 순전히 양자역학적 예언이다. 이와 같이 파이만 도식에 루프(loop)가 있으면 이는 항상 고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양자역학적 효과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효과는 항상 프랑크 상수를 포함하게 되는데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 조건에서는 빛에 의한 빛 산란은 관측되지 않는다.

양자장 이론은 그래서 전에는 관계되지 않았던 입자와 힘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론적 구조안에서 통합되는, 간단하며 심오한 자연에 관한 관점을 제공한다. 즉 입자와 힘은 단순히 드러나지 않는 양자장의 다른 활동 모드에 해당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체탈도첩 및 제적공고

하기 승려는 본종 종헌종법 상벌법 제3장 제8조 3항 및 6항에 의거 체탈도첩 및 제적을 공고함.

문 수 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496-16
기우근 (法一, 智山)
중 생 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200-11
허명선 (정담)
약 수 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 208-8
허덕현 (보경)
도 선 암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038
이재모 (금해)
옥 여 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오유리 121-1
윤태수 (원각)
관 음 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53-82
김말자 (보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5 세종아파트 642동 802호
송창호 (도일)

불기 2543년 10월 16일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중 총무원장 석 효 성

오로지 불법포교에 전 생을 바친 성운대사 수상록

쉽지 않은 만남

불교가 나를 의지할 결심을 해야지,
내가 불교를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산사를 건립하고
전 세계에 150여 개의 말사를 운영하며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성운스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의 일상과
불법포교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훈과 삶의 지침 등을 자전적으로 쓰고 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대범하면서도 세심하게
수많은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스님의
삶의 철학을 통해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인옥 편역/신국판/229쪽/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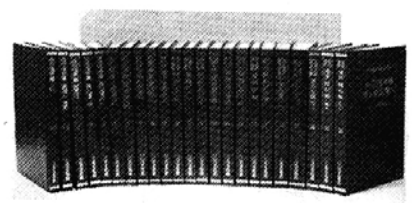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사주추명학
아부태산 전집 23권

운명학의 금자탑
아부태산 전집 드디어 번역 출간되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운명을 알 때 재난과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새 흐르는 물 말없는 바위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지혜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사주추명학 12권
○사주추명학 육임신과 7권
○사주추명학 적천수한해 3권
○사주추명학 천문자미운명학 1권



※낱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당 15,000원, 전집은 330,000원

삼원문화사 문의전화 TEL. (02)333-4005, 323-3493
FAX. (02)323-3494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고려시대 의생활 '한눈에'



◇ '1302년 아미타불' 조성에 참여했던 고려 재신 유홍신의 처 이씨가 평소 착용했던 '초삼배'. 깃에 시주자의 이름이 쓰여져있다.

白綿衣 (D8-17)



◇금비단으로 찐 '토끼문양주머니' 유홍신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부인 이씨가 물복장에 넣은것이다.



◇ 주홍무문라(朱紅無紋羅). 오방에 따라 복장물을 쌌던 주홍색 비단이다.

온양민속박물관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출간

14세기 아미타불 복장염직물 228점 소개
한-중-일 복식문화교류 실상 연구자료

신앙의 대상으로 아미타불상의에 복장(腹藏) 염직물이 700년간의 시간을 초월해 고려시대 의복, 염직 그리고 한·중·일 복식문화 교류의 실상을 파악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온양민속박물관(관장 신탁근)이 1990년 입수한 아미타불의 복장물 267점 가운데 의류 3점, 직물조각 220점 향주머니 5점등 염직물 228점을 분석한 연구서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1302년 직조환경과 직물의 특성〉(계몽사 펴냄)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복장물은 경상북도 소재로 추정되는 사찰에 1302년 조성된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고려시대 염직물이 출현하기는 처음이다. 복장물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조상경〉의 법식에 따라 복장 안에 넣는 사리, 사리통, 5곡, 오색실, 불경, 의복, 다라니, 만다라, 조성기 등의 75가지 각종 물품을 말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이 입수한 복장물은 헤인사 비로자나불, 흑석사 아미타불 등의 복장물과는 달리 다양한 류의 염직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게 특징이다.

고려의상 동정사용 입증
현대직물과 비교 손색없어

이에 따라 이들 염직물이 91년 첫 공개되면서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여성의 상의에 동정을 사용했을 만큼 의생활이 발달했고, 〈고려사〉 등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장복서' '염직국' '잡직서' 와 같은 염직·직조 관청의 실체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이들 염직의 섬세함과 문양의 다양함은 현대직물과 비교해 손색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당시 중국·일본의 유관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염직·직조술은 중국 원나라에서 직수입한 것일뿐 아니라 '동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조선시대로 볼만큼 우리나라의 의생활 수준을 경가절하 하는 분위기였다.

아미타불의 염직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의상 3점과 7종의 천이다. 복장물의 하나인 발원문에 '자의' '상의' '초배삼'로 기록된 3종의 의복은 모두 웃옷인데 등솔에서 세로로 자른 반 쪽이다.

김영숙 문화재전문위원은 '자의'를 남성용 관복으로 '상의 초삼배'를 여성용 일상복으로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1123년에 쓰여진 〈고려도경〉에 왕과 대신은 '자라포'와 '자문라포'를 각각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상의'에서는 넓이가 1.5㎝인 동정이 발견돼 고려시대부터 동정이 사용됐던 것을 처음으로 밝혔고, '초배삼'은 〈동사강목〉에 나오는 '배삼(背衫)'의 형태를 가늠케한 전기를 마련했다.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7종의 천은 그 동안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염직물들이 어떠한 직조와 문양으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7종의 염직물은 '능(綾)' '라(羅)' '초(綃)' '겸(縑)' '주(紬)' '기(紵)' '마(麻)' 등이며 준제구자(다라니)가 찍혀 있는게 특징이다.

'능'은 출현 염직물 중에서 가장 고급 염직물로 꼽을 수 있는데 밀도가 높고 질기고 풍부한 광택이 나는게 특징이다. 〈삼국사기〉 흥덕왕 복색금조에서 소문능·중소문능·능견 등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는 신라시대부터 다양한 능이 직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302년 아미타불에서 '능'이 출현했다는 것은 문헌 상으로만 전해진 능직의 실존을 파악케 한다.

무늬있는 비단을 일컫는 '라'는 한·중·일 삼국에서 귀인 남녀 의복에 많이 사용되었던 천이다. 1302년 조성 아미타불에서는 주홍색 비단이 나왔는데, 인금(금박) 처리된 봉황문이 새겨져 있다. 인금(印金)은 공양의 관에 풀이나 아교 등의 접착제를 칠해 그 위에 금박을 덮어서 모양은 낸 것. 따라서 이 유물은 문헌에 나타난 비단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금박 기술을 이용한 고려시대의 우수한 직조술을 잠작케 한다.

'초'는 누에에서 추출한 실로 짠 안개와 같이 얇고 가벼운 천을 말하는데, 〈삼국사기〉 연오랑 세오녀조에 나오는 염직물이다. 〈해동석사〉에 인용된 당나라 시(詩)에는 "신라에서 용초상(龍 衣)를 구하였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초는 당시 고가로 매매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겸'은 〈설문〉에 '초'보다 조직이 치밀해 물이 새지 않는 염직물로 설명되어 있다.

이외에도 굵은 실로 제직한 '주', 모시풀의 줄기 껍질을 가공하여 제직한 '마'는 신라시대부터 상하 귀천없이 광상복으로 널리 사용된 염직물이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송나라 사신 서경이 "흰색 삼베옷은 그 깨끗함이 백옥과 같고, 왕과 신하들이 즐겨 입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1302년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염직물은 그 개수, 색상, 넓는 방법 등에서 불복장물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조상경〉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고려시대의 의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일뿐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복식문화사에서 우리 나라의 염직 및 직조 기술이 중국과 어깨를 견주었으며 일본의 의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자료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다라니가 찍힌 다양한 작물들. 보리심을 증득하여 지혜의 법신인 대일여래의 불과를 얻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신앙의식의 형태이다.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한껏 치장한 산사가 물자들을 부르고 있다. 단풍으로 장엄된 내장산 내장사 일주문.

빨갛고 노란 단풍길따라
부처님 품으로 여행

가볼만한 단풍비경

노랗게 빨갛게 형형색색으로 단장한 자연이 구성지게 가을을 부르고 있다. 분단 반세기만에 금강산에서 눈부시게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단풍은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으로 내려와 신흥사·낙산사에서 한껏 치장을 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산사에 들러 불심도 깊게하고 단풍이 절정인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정화해 보면 어떨까.

■ 치악산 구룡사=노송림과 계곡미가 뛰어나다. 적악산이라는 옛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단풍이 워낙 빼어난 곳. 0371-744-8100

■ 태백산 망경사=문수봉 정상까지 이르는 길은 눈덮힌 단풍이 유명해 초겨울 등산코스로 정평. 요즘 같이 갑작스레 첫눈이라도 내리면 그 풍광은 형용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함을 보여준다. 0395-553-1567

■ 계룡산 갑사='추(秋)갑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5리숲'이라 불리는 길목은 투명하리만큼 맑간 단풍잎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관음봉에서 은선폭포를 거쳐 오다보면 그 옛날 시주물을 머리에 이고 갑사를 향하던 우리네 어머니의 불심이 절로 느껴진다. 0416-857-8981

■ 월악산 신륵사=신라 아도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신륵사는 용하계곡과 960봉을 잇는 길이 단풍으로 유명. 0443-642-3803

■ 가야산 해인사=삼보사찰 중 가장 단풍이 뛰어난 사찰. 용기폭포 상왕봉에 이르는 등산로를 걷다보면 성철스님의 수행담이 들려오는 듯하다. 0599-931-1001

■ 가지산 석남사=푸른 노송이 늘어서 있는 사이 사이로 빨갛게 물든 단풍이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귀바위 쌀바위를 잇는 코스 역시 단풍 물든 길목이 가을 불심을 재촉한다. 0522-264-8900

■ 도솔산 선운사=들어가는 길목에는 시냇물에 두둥실 떠내려오는 붉은 단풍잎이 제일 먼저 나그네를 반긴다. 선운사에서 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이 봉안된 도솔암으로 가는 길의 붉게 젖어든 단풍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자비심을 담아낸다. 0677-561-1422

■ 지리산 연곡사=연곡사에서 직전마을 피아골을 거쳐 노고단에 이르는 4시간의 산행은 지리산 단풍의 진수. 지리산은 불교문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화엄사, 천은사 등 전통사찰들은 단풍계곡에 쭉 빠져들어 가을을 한껏 피우고 있다. 0664-782-7412

■ 내장산 내장사=11월1일부터 5일간 단풍축제가 열리는 내장산 단풍의 절정은 백양사에서 내장사로 넘어가는 산행길 구비구비이다. 0681-533-8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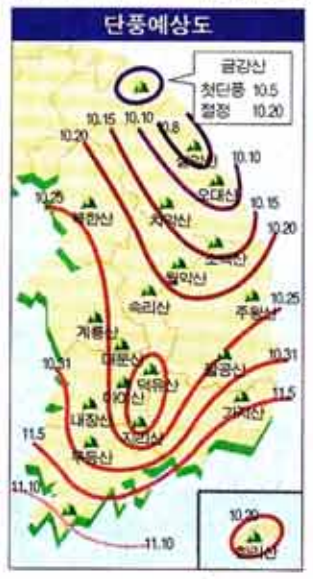
■ 용문산 용문사=황금빛 가을을 구워내는 은행나무가 오롯이 서있다. 1천년의 세월을 어깨에 짊어진채 60m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30호 용문사 은행나무는 동양에서 가장 오랜 나이를 자랑한다. 매표소에서 용문사까지 약 1km의 숲길은 계곡을 따라 고송과 단풍나무가 그윽한 가을풍취를 느낄 수 있는 절묘한 장소. 0338-773-3797

■ 봉황산 부석사=매표소에서 일주문을 지나 무량수전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은 온통 은행나무 천지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질 때면 노란 눈꽃이 흩날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꿈결같은 길이다. 0572-633-3464

■ 광덕산 광덕사=5백년 나이를 먹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방문객들을 반긴다. 일주문인양 하늘을 향해 고개 세우고 있는 은행나무 앞에서 합장하면 세속의 때가 씻겨나가는 듯하다. 0417-567-0050

■ 칠현산 칠장사=들어가는 길목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터널이 200m 정도 쭉 늘어서 있어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하늘 하늘 흩어져내리는 노란 잎으로 눈 앞이 아득해진다. 0334-672-7777

■ 오대산 월정사=초입의 전나무숲길, 상원사로 이어지는 숲길 등이 빼어나다. 상원사 입구의 숲길은 1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과 낙엽침엽교목들이 즐비하고 당느릅나무 까치박달나무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산서어나무 계수나무 함박꽃나무 잣나무 옴나무 등이 천연수림지역을 이루고 있다.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오르는 길에는 방한암선사가 사용하던 지팡이가 단풍나무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0374-332-666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⑭

自性門則曰 任運寂知
자성문즉왈 임운적지
元自無爲 絶一塵而作對
원자무위 절일진이작대
何勞遣蕩之功 無一念而生情
하로견탕지공 무일념이생정
不假忘緣之力 判云此是頓門箇者
불가망연지공 판운차시돈문개자
不離自性 定慧等持也
불리자성 정혜등지야
隨相門則曰
수상문즉왈
稱理攝散 擇法觀空
칭리섭산 택법관공
均調昏亂 以入無爲
균조혼란 이입무위
判云此是漸門劣機所行也
판운차시점문열기소행야
就此兩門定慧 不無疑焉
취차양문정혜 불무의언
若言一人所行也 爲復先依自性門
약언일인소행야 위부선의자성문
定慧雙修然後
정혜쌍수연후
更用隨相門對治之功耶
갱용수상문대치지공야

고루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 즉 상(相)을 따르는 방법으로 경계를 다스려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공부로써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뒤에 자기 성품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若先依自性定慧則任運寂知
약선의자성정혜즉임운적지
更無對治之功
갱무대치지공
何須更取隨相門定慧耶
하수갱취수상문정혜야
如將皓玉 彫文喪德 若先以隨
여장호옥 조문상덕 약선이수
相門定慧 對治功成然後
상문정혜 대치공성연후
趣於自性門則宛是漸門中劣機
취어자성문즉완시점문중열기
悟前漸熏也 豈云頓門箇者
오전점훈야 기운돈문개자
先悟後修 用無功之功也
선오후수 용무공지공야
若一時無前後則二門定慧
약일시무전후즉이문정혜
頓漸有異 如何一時竝行也

"돈문과 점문의 선정과 지혜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나요"

爲復先依隨相門 均調昏亂然後
위부선의수상문 균조혼란연후
以入自性門也
이입자성문야

돈점유이 여하일시병행야

자기 성품이란 '걸림없는 고요함과 아는 것이 원래 무위여서 하나의 티끌도 상대함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한 생각의 망령된 정(情)도 일어남이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필요도 없다.' 하고는 결론짓기를 '이것이 담박에 깨닫는 문(頓門)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을 따르는 문(隨相門)은 '이치에 따라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법에 따라 공을 관조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하고 결론 짓기를 '이것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아는 것이 자재하여 다시 대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공력이 없을 텐데 어째서 수상문, 즉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김으로써 본바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먼저 상을 따르는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완성한 뒤에 자기 성품의 문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점차로 수행하는 열등한 근기가 깨닫기 이전의 점차로 닦아나가는 공부이니, 어째서 돈문(頓門)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가되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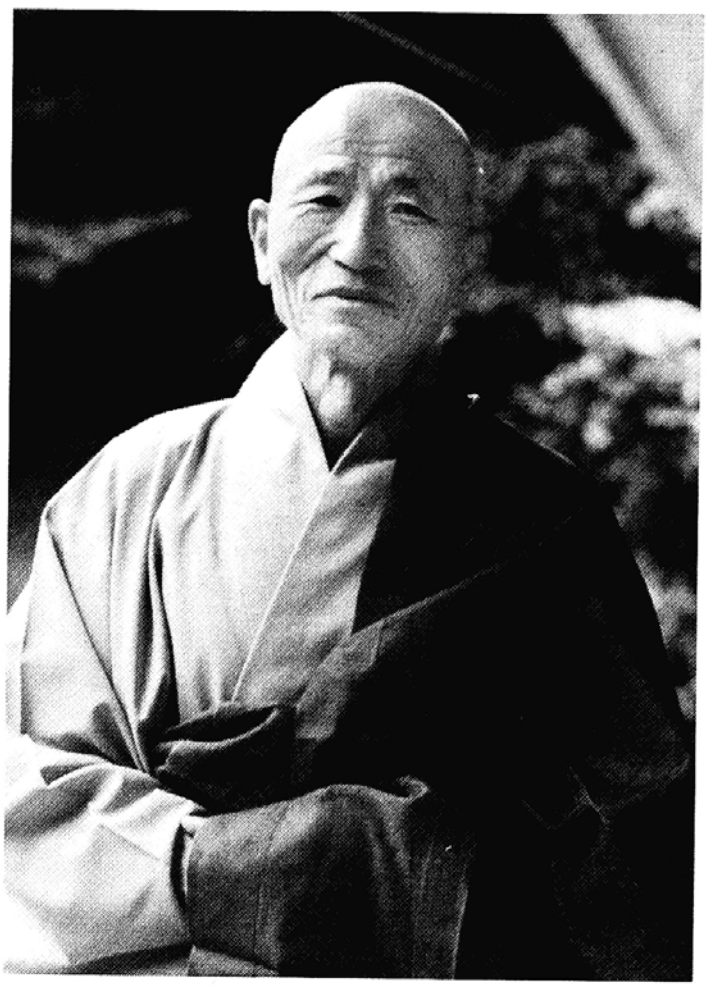
만약 전후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돈문과 점문의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비울수록

영월스님〈법해사 주지〉



스님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초발심자경문〉입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일체의 육락을 뛰어넘어 복과 지혜를 겸하여 닦을 것을 당부하고,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계를 설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는 스님 생활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재물과 색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재물과 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몸을 펴 그름을 알아 항상 멀리 여의어라' 하고 일러둔 것이지요. 색을 좋아하면 재물을 탐하게 되어 있고 색을 탐하면 몸을 청정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색을 탐하게 되면 자연히 상을 내게 됩니다. 옛부터 스님들 감투는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스님들은 감투에 대한 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회사람들이 오히려 스님네들한테 제발 감투싸움 그만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스님들이 목숨걸고 벗어던져야할 감투에 대한 집착과 명예, 재물에 대한 탐착을 새삼 질타를 통해 일깨우고 있는것 아닙니까. 더도말고 처음 출가해서 배웠던 〈초발심자경문〉 내용만 명심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법시대일수록 우리는 어서 빨리 지혜를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지혜의 눈은 어두우면서 입으로만 염불외고 불교는 어떻고를 떠들어대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저 시주 많이 모아서 절 번듯하게 지을 궁리나 하고 성불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보이고 포교마저 게을리 합니다. 몸뚱이마저도 버리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토록 물질에 집착하는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납자들도 있지만, 세속에서나 따질 부귀와 영화에 관심을 두는 현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니 덕높은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삼독이 끈질기다 해도 좋은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닦으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절로 생깁니다. "심(心) 즉불(佛)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 닦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미혹한 중생이 마음을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저승길 노자는 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참선이든, 주력이든, 염불이든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부처님 형상만 모시지 말고 부모님을 생불로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요, 효의 근본입니다. 불법을 어디 딴 곳에서 찾고 절에서만 찾는다면 오히려 불법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절대 대신 가줄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직면했을 때 부지런히 닦은 정진력이 지옥마저도 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들은 얼굴이 맑고 밝습니다. 흔히들 사주다 뭐다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주보다는 관상이 좋아야하고 관상보다는 심(心)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심상이 좋으면 관상은 저절로 따라 좋아지는 것이요, 그러면 사주는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관상을 책임 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심상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약력
- 1928년 양산 물금 生
- 44년 군산 은적사 출가
- 48년 범어사 몽산스님을 은사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받음.
- 범어사, 통도사, 선방에서 정진.
- 장산사 주지
- 대한불교 종군 포교사 역임
- 관음종 부산경남 초대 종무원장
- 현재 법해사 주석

"사주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죠 심상좋으면 관상 절로 좋아지니 자기관상 책임질 수 있게 정진을"

다.

요즘은 나는 바라는 것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여시여시하게 지내는데 이것이 이른바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크지 않은 절이지만 운동 삼아 도량 주변 잡초도 뽑으며 소일하고 있지요. 밤에도 한숨만 자고 깨면 어떻게든 이 몸을 벗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반야심경이나 광명진언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절이지만 이 절을 인연 닿는 이가 나타나면 넘겨줄 생각입니다. 뭐 갈준비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이 "왜 불사를 안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절을 크고 번듯하게 잘 짓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공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주위를 통해 보아왔지만, 절 불사에만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재물에 착을 두게 됩디다. 요즘은 재물에 끄달리고 상에 끄달려서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인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스님네들을 만나면, 스님으로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고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나는 16살에 군산 은적사에서 출가했습니다. 특별히 불법을 알아서 절에 간 것은 아니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절에 가라고 하기에 그냥 갔어요. 고향이 양산인데 전라도 은적사까지 갔으니 말도 다르고 영 어색하더군요. 멀리 보낸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첫날 저녁에 밥 먹고 잤는데 새벽에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것이 목탁소리인줄도 몰랐을 정도입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맛있는 거 해 줄려고 준비하는 도마 소리인줄만 알았습니다. 참 어리고 순진하기만 했지요. 새벽에 깨워 일어나니 종을 치고 아침 예불을 하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기 시작했는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가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 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큰스님 수행한담

즐거움은 커져요”



◇ 1952년 대각사에서 경월스님, 석봉스님(태고종 경남교육원장) 등과 함께 수련 법회를 마치고 (뒤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영월스님)

“상황이나 여건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자 바른길”

재물과 색 탐하면 자연히 相을 냅니다
삼독 질겨도 마음 닦으면 물리칠 힘 생겨

데 나는 뭐든 외우길 잘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단체기합을 받을때 노스님께서 매를 들고 야단을 치셔도 나한테만큼은 잘 외우니 참 기특하다고 아껴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내가 하도 산으로 들로 나다니며 노래부르기를 즐기니까 “야 이놈아, 너는 노래나 부르지 가까운 통도사, 범어사를 두고 멀리 이 절까지는 왜 왔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철도 없었지, 곧바로 노스님께 “가까운 절 두고 전라도 절까지 온 것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겠지요”하고 답한 겁니다. 이 답에 노스님께서는 오히려 기특해 하시더군요. 인연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철부지가 맘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염을 받으면서 절에 있었건만, 어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절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차츰 희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과의 인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십대 후반, 범어사 선방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된 것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역력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즈음 우연히 속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을 읽고 계시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접장이셨던 외할아버지셨지만 풀이하는 초발심자경문에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방안으로 들어가 강사스님께 배운 대로 바로 잡아 드렸지요. 그러자 외할아버지는 무척 놀라시면서 “참 네가 바른 공부를 했구나” 하시고는 “불교가 이렇게 깊고 좋은 공부였구나” 하시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적극 권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흔들리던 신심이 가닥을 잡아가더라구요. 그리고는 불교공부가 재미있어져서 또 한번 발심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은적사에서 보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어영부영 지내다 와버려서 정식으로는 범어사에 와서 몽산스님을 은사로 동산스님에게서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금산사, 범어사 통도사 선방을 다니며 참선 수행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잊지못하는 것은 김해 무척산에서 7일간 용맹정진을 할때입니다. 도반 8명이 같이 주력을 했는데 물만 한 그릇 떠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오로지 앉아 주력만을 계속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캄캄한 방안인데도 눈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는데 그것을 공부과정이라고 생각한 나는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글을 적어도 밝은 곳에서 적은 것보다 더욱 똑바르게 써졌습니다. 한번은 주력을 하고 있는데 20리쯤 떨어진 고향마을이 보이고 아버지가 모내기를 하고 있더군요. 모내기를 할 때 새끼줄을 치고 참나무, 솔가지를 꽂는 것이 보이구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적어놨었지요. 그리고 7일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께 확인을 해보니 공부중에 보이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한참 재미있을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좋으니 어쩌니 해도 공부하는 재미만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한 것을 동산스님과 경봉스님께 질문을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경봉스님께서는 내가 절을 짓는다 하니 법해사라는 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을 바다와 같이 널리 퍼지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탱화를 하는 석정 스님이 김해포교당에 와 있을때 경봉스님께서 법문을 하러 오셔서 일주일동안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시봉을 해드렸거든요. 음식도 스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보아 두었다가 하루도 중복되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아서 해주느냐”고 칭찬을 해주며 글을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지켜보고 한 젓가락이라도 더 드신 것을 돌아가면서 해드렸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시봉하니 어른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지요. 가능한 스님곁에 붙어 공부한 내용을 참 열심히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잊지못할 큰스님으로 수좌들을 아주 잘 지도해 주시기로 정평이난 동산스님은 상좌를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풀려 나온 이들이 스님 밑으로 출가를 많이 했거든요. 주위에서 스님께 “그렇게 무턱대고 출가를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리면, 스님께서는 “학이 천 마리면 봉이 한 마리는 나온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직후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배급을 받아 먹었습니다. 보리쌀과 쌀을 조금씩 배급받아 넘치는 대중이 나누어 먹자니 항상 부족했지요.

내 소임이 별좌라 유과나 강정등을 만드는 소임이지만 당시는 동래포교당에 가서 배급을 받아오곤 했었어요. 그 당시 선방에는 성수스님, 경우스님, 흥법스님 등이 같이 있었고 얼마전 입적한 광덕스님이 ‘고처사’로 불리며 함께 공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함께 공부했던 스님네들이 이제 대부분 열반했으니 세월이 무상할 뿐이죠.

공부를 꾸준히 해도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인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지요. 공부를 할 때 달콤한 음식에 맛을 들이듯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든 참선이든 지극하게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꽃 중에서 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었겠습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은 묻지 않고 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말하자면 연꽃이 물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공부의 단계 단계를 거쳐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을 해야 합니다. 견성 성불은 물속에 있던 중생이 물 밖을 내다보는 것 즉, 연꽃이 물 밖에서 피어난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와서 피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연밥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인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불법의 인연을 만났으니 연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여 해탈해야 합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한 길 수

〈(주)제일약품 감사〉

‘평상심이 바로 道’ 삶의 좌우명
받으려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그래,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것을 일깨우는 이 가르침을 나는 잠으로 오랫동안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마음으로 바꾸고, 남을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편안함을 주고, 푹 익은 과일처럼 성숙된 여인이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밖으로 갈구하는 마음을 가능한 안으로 거둬 헐떡임을 쉬게 하여 늘 나를 맑히고 밝히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상심이고 이것이 또한 나의 길, 도(道)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온 것이다.

사실 출가 스님들처럼 수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재가자의 생활이 아니던가.

어머니는 생일이나 제사 등 특별한 집안일에는 절에서 불공을 드렸고, 나를 꼭 데리고 가셨다.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게 참 힘들고 벅찼지만 〈천수경〉 독경 소리에 아침 잠을 깼던 것은 내 신심의 뿌리처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나는 불교가 그저 나의 숨결처럼 느껴지고 부처님도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처님, 오늘 한 이 일은 잘 한 일이지요?” “부처님, 이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부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부처님께 그랬듯이 어리광쟁이도 되고 떼쟁이도 되어 하루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왜 그리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지…. 이렇게 늘 자기전에 앉아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다.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을 공부하고 사경하며, 또 손길 닿는 대로 크고 작은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도 하면서 나의 아만과 이기심을 줄여가고자 노력한 시간으로 치면 수십년을 헤아리지만, 언제나 나는 늘 불교 초심자이다. 그럼에도 부처님과의 인연은 과거 오랜 전생부터였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친가 외가 모두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는 인연에 너무 감사한다. 그덕분에 어린시절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논두렁도 지나고 흙먼지도 쓰고 들꽃들도 보면서 절에 올랐다. 개울물이 불어 허리까지 물에 잠길 때도 좋아하고 노래까지 부르며 건너서 절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절에 불사가 있을 때면 온 동네를 화주하러 다니시는 할머니를 따라 다녔다.

그때는 주로 시주물이 쌀이었는데, 할머니는 당신이 직접 다니시며 화주를 하셨던 것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 지극한 신심은 서예가이셨던 어머님(불명 자안심)과 사업가인 아버님(불명 고봉)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어머니는 친정서 길러진 신심에 시댁 불심까지 합쳐져 참으로 큰 보살이셨다.

또 내가 즐겨하는 등산을 가서도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 내가 외울 수 있는 모든 경전들을 소리내어 외운다. 그리고는 “나무 바위 새 풀벌레 다람쥐 등 삼라만상 모든 산천초목들까지도 이 소리 들으시고 성불하여지이다”고 발원한다. 어떤 이는 묵례하고, 어떤 이는 싱긋이 웃고, 어떤 이는 합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한다.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들이다. 스치는 바람소리, 흐르는 물소리, 허공 중의 구름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라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 조용히 미소지을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을 들어보이자 당신의 제자 가섭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염화미소·이신전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불교의 생활화 지성화를 간절히 서원한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은빛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 · 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 과 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 남 불 교 대 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새천년의 지도자가 될 大道眞人과 전통육경신 道通기도 및 동양철학 秘法 건강·수명·재산·운명 관리법 특강

양 11월 3일 해시부터 4일 해시까지 양일간 육경신 도통기도와 특수동양철학 특강으로 도통군자·사명자·예술가·서예가·철학가·신명가·전문상담가·도인지망생·직장인·명퇴자·포교사·지도자·상담인들에게 천장지비의 본뜻과 본인외기도로 직접 삼라만상를 통섭하는 고차원적인 기도와 학문으로써 경신기도 입문자들에게 하늘의 권능를 기도로 통하는 날인고로. 삼라만상 모든이치는 근본철학에 있고 15진주 사만다 사구계의 근본철학을 모르면 도를 통할수 없는고로, 육경신도통 수행근본인 천안통·천리통·타심통·신족통·숙명통·루진통을 통섭하는 경신기도에 입문하시여 상통천문 하달지리로 인사명치 대우주의 비밀장를 열어 모든마장를 항복받고 전생 금생 내생의 윤회생사 해탈법으로 새천년의 태양을 맞는 사명자상으로써 만중생 제도하시는 약사대 미륵부처님의 후천증상운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11월 3일 亥시부터 4일 亥시까지 양일간
●회 비 : 1박2일, 침식제공, 일금 5만원 간편한옷차림
●온라인 : 농협029-01-167866 곽대일 (※선착순)
●전 화 : 02)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太日宮.육경신도통회본원
대한역학풍수지리 학술원
대 한 불 교 약 사 선 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졸 탁 동 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기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챠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홧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체조 도인건강법(33) :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거워도 30분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벅찬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리산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변화무쌍한 '공간의 멋'

가람의 장면들 14

'99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합천 해인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바람 일으키는 판전 해인사 판전사이의 긴 마당. 이 마당은 골뒤의 판전을 산맥으로 삼아 인공으로 만들어진 계곡과도 같이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판전실내로 들어가 경판들이 습기에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국보적 가치의 마당이다.

복도형 공간 일주문~천왕문 가로수길 운치

방형 공간 대적광전마당 법회 · 행사 열려

역복도형 공간 경판전 골바람 경판부식 막아

20세기에 나온 건축선언 가운데 '건축의 주인은 공간이다'라는 말이 있다. 조각과 건축이 다른 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양건축이나 현대건축에 꼭 들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건축은 상황이 달랐다. 웬만한 고찰의 대웅전은 20평이 채 안되어, 실내에 들어가 법회를 열 수 있는 인원은 불과 40명 정도이다. 그러나 대웅전 앞의 마당은 몇백명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다. 기능적으로도 우선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이 내부보다 쓸모가 있다.

실내 공간을 갖는 건물은 각 사찰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순천 선암사의 대웅전이나, 부안 개암사의 대웅전은 시대적으로도, 규모로도,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건물이다. 그러나 외부공간은 사정이 다르다. 선암사 마당은 여러 전각들로 감싸진 아늑한 마당이고, 개암사는 아무 건물 없어, 오로지 시원하게 터진 마당에 대웅전만 우뚝한 모습이다.

가람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건축물들을 특징있게 구별해 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들로 이루어진 외부공간의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주인은 외부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공간이라는 말이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붕이 있는 공간인가 아닌가의 차이다. 외부공간은 하늘을 지붕으로 삼는다. 지붕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공간과는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1:10 이론'에 의하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스케일 차이는 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예컨데, 3m 짜리 방안의 크기감을 외부에서 느끼려면 30m 정도의 마당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만큼 외부공간은 넓은 크기를 필요로 한다.

팔만대장경판을 소장하여 법보사찰로 유명한 가야산 해인사로 가보자. 우선 일주문부터 천왕문까지 전개되는 진입부가 인상적이다. 길고 곧게 펼쳐진 길의 양쪽에는 높은 전나무, 자작나무들이 가로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들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심어져 진입로의 공간감을 형성하는 나무들의 벽이다. 이 벽들이 좁고 긴 진입공간을 만들며, 이러한 형태의 공간을 '복도형 공간'이라 부른다.

구공무를 올라가면 대적광전 앞에 네모반듯한 마당이 펼쳐진다. 해인사의 중심 마당이면서 각종 법회와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대적광전과 누각, 승방들로 감싸진 이 마당은 외부라기 보다는 '방밖에 있는 방', 즉 반(半)내부적 마당이다. 한국건축에서 가장 발달한 외부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처럼 정사각형에 가까운 외부공간은 '방형 공간'이라 부른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장경판전으로 올라간다.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기다란 2개의 창고건물이다. 대장경판뿐 아니라, 이 창고건물 역시 국보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지만, 그보다 더,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이루어진 긴 마당 역시 국보적인 마당이다.

우선 이 마당은 좌우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길다. 하늘에서 보면 가로:세로의 비가 4:1이 넘는다. 보통 마당들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에 비하여, 이 마당은 옆으로 긴 이상한 형태의 마당이다. 그러나 이 이상한 마당이 있기 때문에 기다란 두 개의 판전 건물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마당은 앞 뒤의 판전을 산맥으로 삼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계곡이다. 계곡에는 골바람이 분다. 이 마당의 골바람은 판전 내부로 들어가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대장경판들이 습기에 부식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정방형의 '방형 공간'이나, 좁고 긴 '복도형 공간'에 익숙한 우리의 공간감각을 여지없이 해체하면서, 낯설고 충격적인, 그러나 안정되고 감동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가야산 해인사의 건축이 감동적인 이유는 건물들에 있지 않다. 일주문, 천왕문은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대적광전은 짜리몽땅한 지붕을 가진 볼완전 건물이며, 최근에 중건된 구공루는 우악스럽고 사납다. 그러나 하나 하나의 외부공간들은 완벽하게 구성된 공간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변화무쌍하다.

해인사는 진입로의 '복도형 공간', 주마당의 '방형 공간', 그리고 경판전의 '역(逆)복도형 공간' 등, 다양한 모습의 마당을 다 가지고 있다. 해인사의 건축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온화한 미소에 입체감 뚜렷

남원 마애여래입상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남원 양기리에 있는 마애여래입상.

남원시 이백면 양기리 수정산 여원재 커브길 낭떠러지에 있는 마애여래입상. 남원과 운봉을 이어주는 여원재는 그 옛날 길을 오가던 나그네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며 쉬어 갔을 법하다. 오랜 세월동안 불상을 호위하였을 고목나무가 답사반에게 무언가 잊혀진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다.

불상 상단부 배수로 시설
"균형미 부족 고려말 작품"

병풍같은 바위 중앙에 양각으로 조성돼 있는 마애불은 전체높이 2m30cm, 견폭 1m20cm 크기로 두상과 손목의 오른쪽 일부가 파손됐고 미소를 머금은 눈과 코와 입의 형태가 뚜렷하다. 귀는 커서 늘어졌으며 상호는 원형감이 풍부하여 듬직하게 보이고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불의는 통견으로 옷주름을 완만한 원형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하려 했으나 선이 굵어 무거워 보인다. 법의가 두텁고 광배는 음각으로 형식적으로 표현했으며 상체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이 불상의 상단부에는 홈을 파서 좌우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마애불옆으로 2개의 돌기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는 보호각이 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씨는 "신체적인 균형미, 법의의 두터움, 신체의 육감적인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마애불옆 왼쪽으로 가로 세로 1.5m의 바위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 양기리 불상은 96년 도로확장 공사시 비지정문화재 보호소홀로 인해 훼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제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조성된 안정감있고 정제된 모습을 갖춰다.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고증: 정영호 박사

안정감 있고 장식사용 정제미 갖춘 고려불상



김제 문수사 석불여래좌상(본지 239호 14면 참조)은 화강암의 판석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발의 머리위에는 반구형의 육계가 있고 상호가 정제돼 있으면서 원만하여 인자하면서도 근엄하게 보인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보이는데 양쪽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삼도가 돌려져 있다.

특히 큼직한 다섯 연꽃잎 사이에 피어난 소형의 연꽃봉오리를 장식한 양련좌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당당한 어깨, 안정감있는 무릎, 장식적인 조각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이다.

아쉬운 것은 수인과 선을 후대에 뚜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점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석가 · 가섭 · 아난 부처님조성 천불 만불

천산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 ·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일 함이 없이 해야 대자유인 되죠"



그림 · 최주현

내가 공한걸 알면 물 흐르듯 살수있어
인과 해결하려면 둘 아닌 도리 알아야

안팎 공한 이치 알고 싶어요

문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불명이 용광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지혜 그릇은 간장종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간장종지 자체도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용광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몇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팎이 공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정된 나가 있고 고정된 너가 있어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팎이 공한 이치를 뼛속 깊이 체득할 수 있을는지 먼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항상 말했듯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공한 줄을 안다면' 하는 소리는 과거도 지금 이런 때가 있었고 또 미래에도 이런 때가 있을 거고 현재에도 이런 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데 그 하나 마저도 공했다. 그 공한 도리에서 우리도 역시 공해서 살고 있다. 공했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게 그대로 공한 것이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자유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준다구요. 아들을 부르면 아들 노릇을 해주고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해주고 모든 역할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말이 많으면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말이 적으면 실천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랬듯이 마음 속으로 자꾸 편안치 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수행의 잘못된 점 지적을…

문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때때로 시간이 나면 혹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너만이 내면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두들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틉나는 대로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 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잘된 것이 없다구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전부 내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다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없이 말을 하고 함이 없이 함을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함도 없구요.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대로, 바람이 불듯이 구름이 떠다니듯이 그대로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땐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지금 걸음을 걷다가 멈춰지는 건 걸음이 아니니깐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찰나찰나 그냥 걸어가는 거지 멈춰서 쉬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은 그냥 쉴 수 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습 나오기전에 녹이려면…

문 예, 알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부터는 저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이나 과거에 묻은 습이 나오는 것을 전보다는 조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제 자리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묵은 습이 하도 두텁고 질어서 정말 스님 말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밖으로 나온 것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스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습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녹이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 나오기 전에 돌려놓으려고 애쓰지 말구요 내가 살아나가는 데에 닥치는 모든 걸 하나로 등글려서 생각하세요. 모든 거를 요. 말겨놓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 저런 일이 생기지 말라 이러고 놓는 게 아니죠. 놓을 때에 그런 사연이 모두 쉬게끔 '너만이 쉬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놓아야죠. 자기의 요량이에요, 그것도. 길을 갈 때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해야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더디든 빠르든 상관없이 그냥 거길 가듯이 말입니다.

놓는방법 개인따라 다른지요

문 감사합니다, 스님. 놓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너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든 살리든 너 알아서 해' 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것도 법 안 짓는 것도 법이니 지을 만 하면 짓고 안 지을 만하면 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풀어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법우님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첫 번째, 이 공부를 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되는 방향으로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재미도 보고 힘도 얻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그것마저 놓아야 하니까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너 알아서 해' 라는 단계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큰스님처럼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르면 '필요하면 집을 짓고 필요 없으면 안 짓고, 이렇게. 그때는 아무 것도 안 걸리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가르침이 결국은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의 근기가 워낙 다양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법문을 하실 수 없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신 거지, 사실은 그게 개개인에 따라서 다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게 맞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답 맞아요. 개개인이 그릇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쓸 것이 있고 큰 사람이 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지죠. 그릇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구요. 그런 사람은 그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본래는 다들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과 여러분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또 차원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똥두간의 똥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한 겁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를때 부모가 항상 똥 닦아주듯이 자기를 떠나는 법이 없거든요. 자불이 자기를 떠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 수없이 해 나가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잘 살펴 돌보고 있는데 단지 자기가 돌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거를 알고 간다면 고통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길을 걷기도 하구요. 손을 잡아끌기도 하구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정신병 · 암에 걸리는 사연

문 감사합니다, 스님. 이번에는 심성과학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스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이라든지 각종의 암 같은 것은 현재의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난치 내지는 불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암이건 정신병이건 간에 과거에 인과성 유전성 이런 영향이 많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암 같은 경우도 정상세포의 분할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고, 정신 분열증 같은 것도 이 신경전달 물질을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 결함으로 지금 그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계성이라든지 과거의 인과성이 원인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또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찢어먹고 찢김을 당하고 서로 인과 업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다 과거 생에 수억겁을 두고 서로 인과를 주고 받았을 텐데 하필 정신병이나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 사연이 새록새록이 많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없애고 둘 아니게 할려면 둘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외국이나 여기 한국이나 하여튼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1권 ❁ 행복 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제2권 ❁ 사랑 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제3권 ❁ 수행 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 · 사랑 · 수행 · 지혜 · 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② 빨간책 ① 노란책 ③ 파란책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범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祝 創宗 六十八周年

初 代 宗正 金慧宣 大宗師
第二代 宗正 金惠皓 大宗師
第三代 宗正 崔大植 大宗師
第四代 宗正 金慧潤 大宗師

元老院長 朴鍾和
總務院長 金光泰
總務部長 徐惠性
教學部長 柳金石
社會弘報部長 金妙蓮
財務部長 徐輔光
宗會議長 金惠明
監察院長 朴世藏
弘法教育院長 金慧旻
서울教區宗務院長 金榮藏
京畿教區宗務院長 朴玉山
忠南教區宗務院長 金炳俊
忠北教區宗務院長 朴 雄
慶北教區宗務院長 徐宗山
釜慶教區宗務院長署理 金妙蓮
江原教區宗務院長署理 李法蓮

佛紀 二五四三年 十月 日

韓國佛教 法華宗 總務院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전화 : 02)745-1590 / 팩스 : 02)742-159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놓는것이 그대로 공부

☞ 15면에서 계속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한 일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울어도 안되고 웃어도 안되고 그런 문제죠, 모두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예전에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불집게로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 동네에서 또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이 세간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는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오는 뜻과 같죠. 그런 업보가 생기는 것이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을 쓰는 거지 그것이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본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을 때 뱀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삽으로 척척척 해서 죽여버리고 딴 생명들도 그냥 잡아서 태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게 하나서부터 열 가지 다 귀하게 여기질 않고 우습게 여겼던 때가 많았죠. 물론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이 가든지 이태가 가든지 또는 그 후생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인과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정신병자는 인과 무거운지요

문 스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스님 말씀을요, 정신병이라든지 암 환자들은 보통사람보다 조금 더, 말하자면 정도가 심한 그런 인과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 살아온 대로니깐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대로니깐요.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브시를 가져라 하는 거죠, 항상.

병치료보다 참회가 우선인지

문 제가 두 번째 여쭐려고 하는 걸 스님께서 바로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병들이 과거 생에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업식 보따리 속에 다 담겨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사춘기, 10대 후반, 20대 초에 생기니까 그것은 인과 보따리 속에서 좀 빨리 드러나는 셈이고, 암 환자는 주로 장년 이후 노년기에 생기는 거니까 몇 십 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을 인제 불후에 공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서 숙명통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 속에, 보따리 속에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과거의 업 보따리, 인과 보따리를 빨리빨리 녹여야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심성의학적이고 예방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선원에 뿐이 아니라 대개 불법을 찾는 사람 가운데 극히 상근기 몇 분을 빼놓고는 육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가난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법을 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 선원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그 병만 나으려고 그 병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님의 일련의 가르침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질병이 생겼건 다른 어떤 괴로움이 생겼건 간에 그 괴로움을, 눈앞에 닥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쓸게 아니라 먼저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높으신 법력이 있으니까 중생제도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 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닌

내가 고운말 하면
상대방 곱게 나오고
내가 악 쓰면
상대도 욕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을 나을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같은 일반 신도나 혹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지도를 할 적에 요컨데 병만 나을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좀더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님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 얘기를 하죠. 나무에 싹과 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뿌리는 본래 그냥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쌓아서 이 콩 한 알갱이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하나로 했을 때 그 콩 하나를 짊어지니까 세상에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라. 그러면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큼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뭣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단지 자기 정성에 의해서 조금 나을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수미산 같은 산이라고 한다면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면 무거우니 그냥 다 놓아라 합니다. 이 소리를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믿어야만 하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종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놓아야죠. 진짜로 믿고 놓아야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깐요.

그러니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바보제자가 가르쳐도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빗자루로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 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는 다 놓아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론이 많아서 오히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거죠.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영화나 TV를 보면 배우들이 온갖 배역을 다 맡아서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짭니까? 환상이죠? 앉아서 보니까 그게 모두 환상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사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 그렇게 환상이 온통 다 하고 살 듯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다면 울고 불고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진짜 안다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관해서 놓으면 어떠한 영계성이나 환상도 이 한 모습에 한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구요. 그렇게 수 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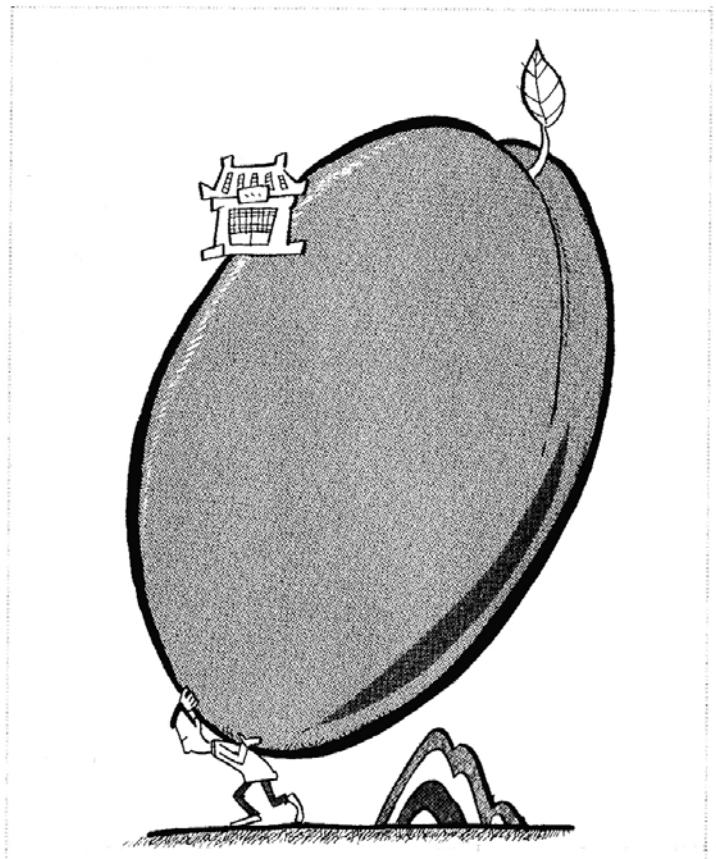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自佛이 자기 돌보는 걸 모르면 고통 아는것 못놓으면 이론 많아 갈길 더뎌

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난치병 낫게 하려면…

문 스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 질문 올린 대로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난치 불치병 환자들은 과거생으로부터 좀더 여느 사람과 다른, 각별한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큰스님 같은 대 선지식을 만나서 그 고리를 풀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녹이지 않으면 어쩌면 이 생에서 그 병으로 한 생을 마감하고도 다음 생에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길에 가다가 댁 같은 사람만 만나도 고리가 풀어질 거예요, 아마. 하하하.

둘 아니게 놓는법 잘 안돼요

문 스님!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둘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둘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에는 뭔가 걸립니다.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나름대로 관해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덕을 스님, 좀 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댁 같은 경우는 '둘이 아니잖아' 할 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다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 백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 천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전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에 그 유전을 대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도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이고 아까 한 시간 전도 과거니까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되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물 한 모금을 마셨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래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근본에서만이 모든 걸 해나가죠.

처음에는 부처님을 보고도 '저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시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고 그 만들어 놓은 찬불가를 가만히 들어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다면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원인도 이 보는 눈이,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봐라, 공식으로 봐라. 아무리 강도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가 아니게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악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놓아 버려라. 그래서 네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고,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워서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가 짝이 없어서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게 되죠.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벌레 하나라도 다 둘이 아니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때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달마대사의 둘 아닌 뜻

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크게 불사를 일으키신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마조사께서는 똑같은 행을 한 왕을 보고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결국은 스님 자신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달마조사님의 둘 아닌 뜻은 무엇입니까.

답 달마스님은 그렇게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양무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달마스님은 죽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었다.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구선 신 한 짝을 그 주장자에다가 걸고서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날까지 그 말씀이 그냥 내려오고 있으니 그 왕도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양무제가 스님을 죽인 죄업은

문 그러면 그 왕은 그 스님을 죽인 죄에 대한 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답 그거를 뉘우치고 둘 아니게 봤다면 없을 것이고 둘로 봤다면 그거는 인과성으로서 또 흘러내려가겠죠.

지장보살의 소원과 보람

문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지옥 문고리에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상계를 보면 전혀 보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답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소감일 겁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살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걸 항상 둘로 보시지 말고 따로 따로 보시지 마세요.

큰스님 마음 느끼고 싶어요

문 예, 스님께서는 이미 다 구족하시고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더 이루실 것도 없으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신 스님께서 이렇게 시끄럽고 험악한 이 자리에 그냥 나투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저는 느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스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만은 오리무중입니다. 도저히 스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살아계신 스님을 보고도 그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고 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님!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제가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역력하게 살아계신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여러분, 제 삼자인 내 마음을 아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항상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내내, 세세생생에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관하면서 자신의 마음부터 알려고 하세요. 이끌어 온 것도 온 거지만은, 자기 마음을 안다면 모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만 알면 모두를 알게 될텐데 누구 누구를 그 하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누구 다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만 해도 그렇게 모두 전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마음으로다가 뚱글려서 하나로만 해서 모든 걸 집어넣는다면 저 땅 속에서 사는 벌레도 알고 아마 인사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이제 벌레의 모습을 벗어날 거야' 하고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진짜로 자기 근본,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가는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고, 어디를 가든 들어오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거를 거기 맡겨놓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공부예요. 진짜 공부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 옳은 것도 거기 놓고 그른 것도 거기 놓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게 둘이 아니다. 모든 게 우리가 살아도 함이 없이 사는 거니까 그대로 놓아라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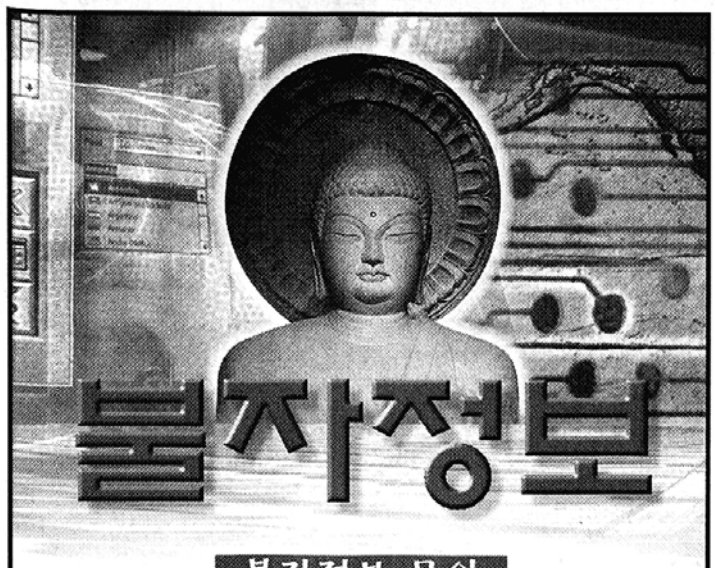
그래서 서로 토론 삼아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첫째, 이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날 거고 공기주머니 안을 벗어나면 자유스럽게 자기하고 싶은 대로 에너지로 발생을 해서 진화가 돼서 살든지 여기 저기 뭐 살고 싶은데 가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처럼 우리가 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못해서 그렇죠.

우주도 많고 또는 혹성도 좀 많습니까, 별성도 많고. 그런 데서부터 종자가 생겨서 인간으로 된 거니까요. 이 공기주머니도 그렇게 해서 내려준 거구요. 우리 생명이 생기니까 그렇게 공기주머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있을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또 만납시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5일 법형제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잠을 통 못 주무시는 분
▶이유없이 몸 아프신 분
▶종일 온몸이 나른하신 분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노약자, 사업이 부진하신 분
▶기타 운세의 호전을 원하시는 분
02)734-2118
011)239-6817

강좌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 ?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10월 25일부터 주3회
(월수금) 4개월간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포교원

구인

무료기초교리 · 천수경강좌
저희 사찰은 재가불자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로 위 강의를 무료로 개설하였으니 많은 불자들의 참여바랍니다.
● 개강 : 2개월 과정, 주 1회 150분 강의
- 기초교리반(10월 5일 오후 2시)
- 천수경반(10월 8일 오후 2시)
● 강의 : 심준보 법사(동대 박사 수료)
● 수시 접수 가능
백화도량 수미정사 부설 재가불자교육원
동대문구 용두2동 118-87(등대문 구청 300M)
T 02-929-0929 / F. 02-929-105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
359-731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351)
874-7923

스님지망생,법사구함
본사찰은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며 도심포교의
진력하는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도와 포교에 매진하며 공부할 젊은 인재를 구함.
군필한 30세 미만 고졸이상 성실한자.
(인천소재)
017)321-4883

공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암 환자 임상연구 대상모집
말기 암 환자라도 완치에 도전합니다.
현대인술의 한계를 극복한 미래의 바른 인술을 임상연구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 상: 암 환자 및 어떤 병이든 중환자
▶모집인원: 00명(신심깊은 불자님 우선)
▶비 용: 무료
02)355-5523 원장 정공 합장

법당보살님 구합니다.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화사
0414)742-2057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공고

탈종공고
일승종 총무원장 귀중
◇사찰명: 성전사
◇주 지: 석영산
◇소재지: 김천시 부곡동 681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0. 18.

정정공고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귀중
연화사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 63
송 창 호(도일)
상기인은 위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한 바 있으며 연화사와는 무관하게 본인만 탈종하기에 이에 정정합니다.
199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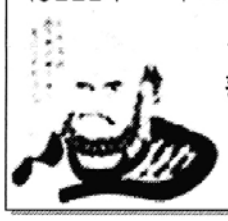
기타

건강에의 신비! 춘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길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현재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힘
이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017)229-8711

사찰을 찾습니다
동양철학과 침술을
20년동안 연구한
비구승입니다.
사찰운영을 맡기실
사찰은
연락 바랍니다.
011)876-9108

왕성한 기와 영험을 간직한 달마
작가 : 거산 박성열
(상반신달마도 :크기 34.5×35)

삼각산
황룡사
02)
372-
7016

땅
대구시 팔공산
신라시대 마애석불
계신 3만평 땅
· 가격 절충 ·
053)358-2705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위치: 서울 ◇법당: 15평
◇부지: 만평 ◇요사: 25평
◇가액 : 15억
02)723-4082 광진불사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대지 : 80평 외 추가사용 30평
◆건물 : 법당(단청) 30평 / 요사 : 35평
◆가액 : 3억 3천만원
◆위치 : 인천부평
◆대지 : 100평 추가사용 대지임야 300평평
◆건물 : 법당 20평 / 요사 : 40평
◆가액 : 답사후 절충
다보불사 02)3545-056
019)234-5506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법당 : 20평
◇요사 : 50평
◇부지 : 100평
◇가액 : 2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전화상담 요망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암자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내
◆지목 : 대지 250평평
◆가격 : 3천 5백 (건물1동 있음)
◆특징 : 경치 교통좋고 조용함.
주인이 고건축기능 보유자로
목조건물 신축원할시 최저가로
시공해드림.
0563)336-4480 박허운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샴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
(댐부근 경관좋은도량)
◆부지 : 1100평 ◆법당:33평
◆요사 : 40평 ◆기타 19평
◆특징 : 산속바위틈에서 나오는 일급 생수 무한량 중공사면 당시소유된 공사금에 3억6천만원 급한사정으로 답사후 최저가격절충 시설비 일체 무상기증
0599)933-8599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고령군 고령읍
저전동(낫길) 442번지
◆대지 150평, 법당 18평,
요사채 - 방 7개
◆가액 : 5천만원
0543)955-5683
011)819-0279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도청앞
삼성생명 빌딩옆
◆최신시설 완비, 3층 50평
◆가액 : 전세 3천(월세가능)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209-1016
042)221-1071~3
42)253-1016

사찰 안내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대동사
◆터 - 국유지(북한산 국립공원내 위치)
◆실평수 : 대웅전 12평, 칠성각12평,
요사(방3) 18평 · 요사(방2) 9평,
산신각2평, 종각1동, 창고1동, 우물有
◆가액 : 상담후 결정요망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5만평 전지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431)223-0377/017)430-9051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진역 부로 대로변
◆평수 : 3층 건물 22평
시장상가 밀집지역
◆가액 : 보증금 3백(월 25만원)
시설비 있음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파동 445-1
◆부지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 용왕당 · 방6칸
시유휴부지 사용 可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053)768-5788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평수 : 37평
◆전세 : 4,000만원
011)564-4171
052)247-6125

사찰 안내
◆위 치 : 경주시 내남면
박달동
◆사찰부지 : 500평
◆요사채, 임법당
011)548-1900

사찰 안내
※정사 인수하실 분 모십니다.
◆위치 : 부산온천장 금강원 입구
◆대지 : 37평 (등기필)
구거부지 10평 사용
◆건물 : 단층 슬라브 14평
◆가액 : 1억 1천만원
051)553-2005
011)9563-5551

포교원 안내
◆위치 : 상계동
(전철역서 5분거리)
◆1층 - 22평, 2층 - 약 20평
◆가액 : 1억 2천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011)753-3822

천탑 천불 조성하는데 같이 투자하여 창건주로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 내리 계곡앞
태백산 청정수행도량 **천탑사**
◆6만도량내에 사찰부지 1,800평 · 기와단층, · 요사채 50평 · 임시법당 외 방10칸 · 천탑조성하고 있는 중
◆도량경치는 아주 좋음
◆가격은 인수하실 분이 답사한 후 결정함
0373)378-4777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평수: 법당 60평, 요사채 50평
대지 140평, 전 60평, 건물 1동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 소금강 입구 구라미
온천뒤 온천구역
0391)661-3369
019)248-9636

토굴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부근
◆임법당 및 황토방, 산세 좋음
◆가액 : 전세 1,500만원
매매 5,000만원
◆조건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황토방 안내
◆태백산 적송으로 지은 황토방2칸
◆규격: 열자방 다락과 벽장완비
◆자격: 부처님을 믿는 선남선녀 및 노후와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분
◆1인 1칸 이천만원 · 2인 1칸 삼천만원
◆법당 30평 대중칸 40평
◆대지 1300평 숲 300만평활용
◆자세한 내용 본 절에 상의바람
◆위치: 경남 고성군 배가면
연지리 902번지 관음정사
011-839-4862/019-556-5036

사찰 안내
◆위 치 : 부산
◆부 지 : 200평
◆법 당 : 30평
◆요 사 : 60평
◆백년고찰임
◆가 액 : 7억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진천
◆부 지 : 400평
◆법 당 : 20평
◆요 사 : 25평
◆가 액 : 7천 5백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부 지 : 5,500평
◆법 당 : 30평(목조)
◆요 사 : 30평
◆가 액 : 4억 5천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울산광역시
◆부 지 : 천평
◆법 당 : 30평
◆요 사 : 90평
◆산새 좋음
◆가 액 : 7억
018)273-9390

사찰 안내
◆위 치 : 분당수지
◆부 지 : 200평
◆법 당 : 40평
◆요 사 : 120평
◆가 액 : 6억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금정구
◆경치좋고 교통편리
◆대지400평, 법당15평, 방2
욕실 화장실
◆보증금 500 월 2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851-0115

토굴 안내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부근
◆대지 : 137평(건평40평)
◆가액 : 3천 5백
◆천연암반수, 방3, 주방, 큰창고 (법당가능)
◆조용한시골 (바닷가 차편 10분거리)
0667)772-696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서울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축제) 28일 '서울 시민의 날'을 기념해 서울지역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28일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서울 월드컵 개최 카운트 다운 축하쇼'가, 30일에는 운현궁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의식이, 31일에는 여의도공원에서 '새천년 맞이 청소년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세금 인터넷으로 자동계산

(통신) 종합법률서비스 사이트인 오세오월드(www.oseo.co.kr)는 각종 세금과 소송비용 등은 물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부동산등기 등록세, 교육세 등과 상속세, 연간자동차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02)700-2452

서울-인천 교통카드 하나로

(교통) 12월부터 서울과 인천지역의 버스카드로 서울 지하철 1~8호선(국철포함)은 물론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탈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서울 인천에 이어 경기도의 버스카드로도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의료보험 약값 31%인하

(의료) 정부는 11월부터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내리는 한편 의료보험수가는 평균 9% 올리기로 했다. 의료보험 약가 인하분을 수가인상과 연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의 추가 진료비 부담은 없으며 진료비 중 약제비가 낮아지는 만큼 약제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다소 낮아지게 된다.

원주서 국제걷기대회

(체육) 제5회 한국국제걷기대회가 이달 30~31일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한국체육진흥회(회장 선상규) 주최로 열린다. 유아 및 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한 거리종목(10, 20, 30, 50㎞)을 2일간 또는 1일간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풍물놀이 공연, 음료 맥주 무료시음회, 매직 농구쇼, 축구공 넣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열린다. (02)849-7077

양초 태울때 납 방출

(건강)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를 켜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납(pb)이 방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미시간대 환경보건학과 제롬 응리아구교수는 조사결과 양초 1개가 타면서 방출하는 납은 미국환경청 권고치의 22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쌓이면 중병된다



◇과중한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 이들에게 불교의 일심사상과 수행정신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직장인 업무과중-경쟁극심 '자살까지도'

규칙적 운동 · 취미생활 · 긍정적 사고 가져야

프랑스의 경제 · 사회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4백여개의 주제어 풀이를 통해 본 미래예측서에서 스트레스를 '제1의 직업병이자 근무 중 사망의 첫번째 원인'으로 풀이했다.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 직장인의 자살까지로도 이어지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이고 극복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최근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IMF 이후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나면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중한 업무부담에다 조직 내 인간관계까지 메마를대로 메말라 가면서 살맛을 잃고 있다고 직장인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조사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모든 질병에 관계하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 자살이 97년에 비해 각각 18.1%, 41.1%나 늘어났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은 최근 10년간 81%, 자살은 128.7%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내적 · 외적 요인이 있으며, 대부분이 내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 사회적 환경과 조직사회, 생활의 큰 사건, 일상의 복잡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외적 요인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며, 이것이 곧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는 관념에서 나오며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을 편히 하거나 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생활습관과 관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카페인 끊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천천히 먹는 식습관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취미생활 ▲관념방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다른 사람과 충돌 피하기 등이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노력 ▲시간관리 ▲상대방에 대한 친절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 등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몸과 마음이 일과 함께 어우러지는 장인정신을 통해 업무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조절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해 나갈 때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사물과 나 하나로 보라"

불교에서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수행을 한다. 스트레스는 실질적으로 집착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런 집착을 모두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곧 스트레스를 이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사물과 나를 하나로 보는 불교의 '일심사상'은 마음을 통일시켜 미혹하지 않게 하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다.

박남진 박사(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스트레스는 모든 사물의 허물을 보는데서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관하고 남의 허물을 놓는 불교의 수행이야 말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가까운 절이나 집에서라도 참선수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해외여행 씀씀이 '일본 두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씀씀이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소득수준을 감안한 여행경비는 여전히 일본의 2배, 대만의 1.5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국민들의 1인당 출국경비는 각각 1,821달러(국민소득 3만2,301달러)와 1,240달러(국민소득 1만3,697달러)로 국민소득대비 5.6%와 9.1%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1인당 945달러(국민소득 6,823달러)로 국민소득에 대비해 무려 13.9%에 달했다.

게다가 이같은 추세는 올해들어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1인당 해외여행경비는 일본이 1,908달러, 대만은 1,088달러, 우리나라는 878달러였다.

이를 소득대비 여행경비율로 따져보면 일본이 6%대, 대만은 7~8%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는 하나 일본 대만에 비하면 한국인들의 헤픈 씀씀이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강망치는 건강보조식품

납 · 메탄올등 독성물질 검출

소비자보호원은 17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지않은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신종 건강보조식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최근 국내 시판중인 25종의 건강보조식품 가운데 18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메탄올도 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건강보조식품 가운데는 유해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시론

도청 공포증



이 하 석
〈시인 · 영남일보 논설위원〉

국가정보원의 감청기구 운영 의혹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계가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제기한 국정원의 국내외 전화 24시간 불법감청 주장에 대해 여당은 "불법 감청은 절대로 없다"며 팽팽히 맞서, 이 문제는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인 논리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다 이부영 총무에 대해 사법처리가 논의되고 한나라당은 또 국정원장에 대해 고소를 생각하는 등 이전투구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당혹스럽다.

국정원의 도 · 감청 의혹 제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져온 '도청 공포증'의 중심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중요한 일이다. 이부영총무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감청을 전담하는 조직과 감청요원의 규모, 감청방법과 실태등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도 · 감청은 검찰과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총무의 국정원 조직 공개를 두고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국민들이 추측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인만큼, 단순히 국가기밀을 이유로 묻어둘 경우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부풀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국가기밀이라면 의혹시설들을 국회정보위에 만이라도 공개하여 의혹을 풀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특정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의 실체인만큼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 문제는 중요하지만,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막무가내식 불법이 허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도 · 감청 문제가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까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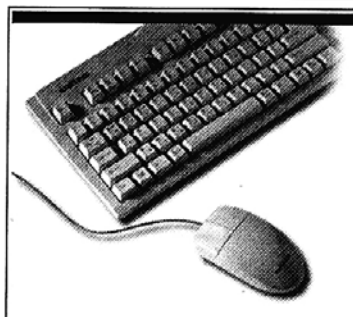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청 공포증'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도급 인사들이 도 · 감청 공포를 느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몰래카메라식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첨예화된 도청장비로 언제 도 · 감청의 그 물에 걸릴 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관이니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믿지못하는 불신시대의 복판에 서 있다는 황당함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 "국익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마땅히 보호돼야"

차제에 국정원의 불법 도 · 감청 문제가 분명하게 의혹이 밝혀지지 못하면 도청 공포에 휩싸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이 수시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등의 개인 기본권 보호의 미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정치계의 논란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익도 중요하고, 당의 이익도 챙겨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다.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엿보기'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 심하게 메말라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체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속을 엿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물주체적인 태도이다. 불교는 마음을 바로 세워야 깨달음에 이른다고 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자신의 주체가 바로 서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급하다.



특성화 고교지정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네트워크 디자인과 모집요항 및 교사초빙

네트워크 디자인과란?

"20세기의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신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인터넷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학 분야의 전자상거래, 산업디자인 분야의 웹 디자인, 또한 공학분야의 정보기술 부문**들의 학문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컴퓨터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디자인과"라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교육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21C의 미래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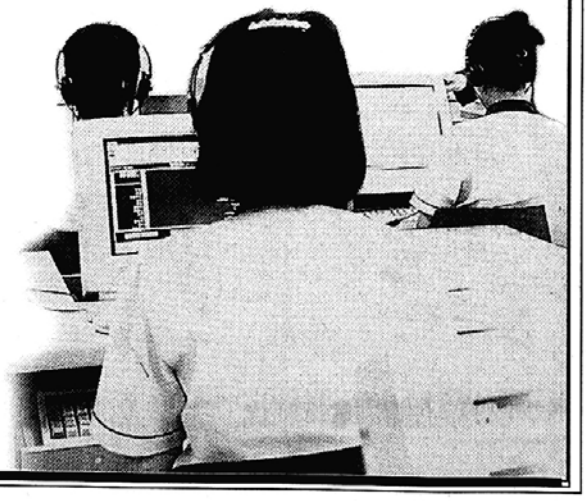
◈모집정원 : 90명(남 · 여 공학 3학급)
◈지원자격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다.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
◈원서접수
가. 1999. 10. 25(월) ~ 1999. 11. 2(화)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모집과 동일
◈전형일정
가. 수험생 예비소집: 1999. 11. 4 (목) 14:00
나. 면접 및 필기시험: 1999. 11. 5 (금) 09:00
다. 합격자 발표: 1999. 11. 8 (월) 10:00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다. 각종 경시대회 상장 사본 및 자격증 사본 1통
◈특전 / 졸업 후 진로
가. 현대식 생활관 운영
나. 최첨단 교육장비 도입(1학생 1PC제공)
다. 본교 재학시 공모전 참가토록 하여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라.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대기업, 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취업
마. 국내 벤처기업과 연계, 산하협력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바. 우수학생들은 방학중 해외 순찰 연수(미국 실리콘벨리)등
사. 졸업후 창업 지원

◈교사초빙
가. 초빙분야: 웹 디자인, 웹 프로듀서, 웹 마스터, 인터넷 서버, 전자 상거래 일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실무
나. 초빙인원: 각분야 약간명
다. 응모자격: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산업체에서 각 학과 관련분야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3년이상) 하고 있는 분
라. 제출서류: 1)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및 전화번호, 응모분야 기재)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3) 재직증명서
마. 제출기간 및 제출처
1999년 11월 2일 17:00까지 본교 행정실
(0333)691-8095, 9100, 7635
(우)451-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홈페이지: www.chongdam-ich.ad.kyonggi.kr

21세기 정보화를 주도하는 특성화 교육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학교법인 청담학원 설립자 이혜성
이사장 김광복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교 장 이근우 합장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생명나눔 실천' 전국 확산

10월 은해사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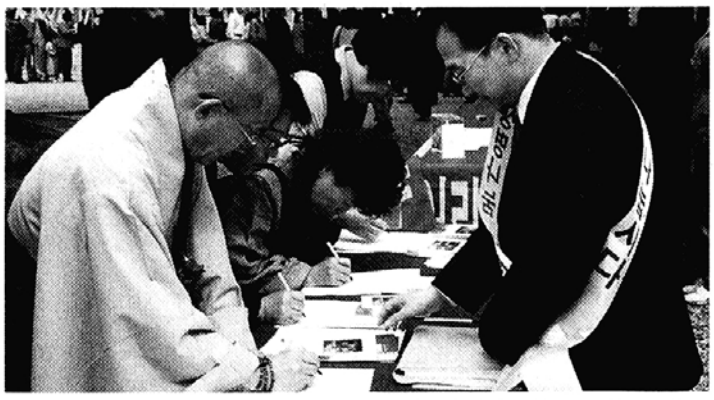
장기기증 52명 서약
화장유언 3백23명

개산 1190돌 수계법회
주지진산식 · 음악회도

본사와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10월대법회가 지난 16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주지 법의)에서 열렸다.

오전9시부터 시작된 이날 캠페인은 은해사 개산1190주년과 제21대 은해사주지 법의스님 진산식 및 보살계수계법회와 맞물려 이 지역불자들의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쌀쌀한 가을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천 대구 경산 포항등 경북 각지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은해사주지 법의스님을 비롯한 52명이 장기기증 서약에, 323명이 사후화장 유언서약에 동참해 생명나눔운동이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실감케했다. 특히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벌이는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도 나란히 개최돼 동체대비사상과 생명존중에 대한 불자들의 경각심을 드높였다.



◇은해사 캠페인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백여명이 서명에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회 이사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송광사주지 현지스님 봉주무비 지하 성진 법조 법타 혜인 혜국 묘유 몽산 돈관 법산스님, 이성순 대구불교방송 방송국장,정재균 영천시장, 조창현 경북도 문화관광국장 등 중진스님들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의스님은 "동체대비의 숭고한 사상으로 충만된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불교가 앞장서야한다"면서 불자들이 생명나눔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끝난후 오후에는 공옥진보살의 1인창무극과 대구불교방송 국악관현악단 및 홍순지 실내악단 초청 산사음악회가 열려 고즈넉한 산사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은해사=이윤호 기자
(yrlee@buddhapia.com)

이모저모

장기이식 받은 불자 참여

O…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중앙본부는 물론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심업)에서도 지도법사 득도스님을 포함한 1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가했으며, 특히 만성신부전증을 앓다 생명나눔실천회를 통해 지난97년 장기를 기증받은 박대석씨(44세 대구)도 부인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자원봉사에 나서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北돕기 캠페인 병행

O…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벌이던 박정숙(43세, 서울)씨와 박창규(55세,서울)씨 등 금강국수공장 후원회원 4명도 이날 화장유언서약에 동참, 특히 박창규씨는 93년도에 이미 장기기증서약까지 마친 신심깊은불자로 "생명나눔운동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며 소감을 피력했다.

장병들도 줄지어 서명

O…이날 진산식을 가진 은해사주지 법의스님은 누구보다 앞서 사후각막기증 및 뇌사시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해 모범을 보였으며, 이어 화장유언서약에 동참한 스님수가 20명을 넘어서는등 스님들이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산대재와 진산식행사를 지원하러 온 제201특공여단 소속 이윤석상사(34세 영천시 하양읍)외 10명의 장병들도 줄지어 화장유언서약에 동참해 이채를 띠었으며 서울 보광사(용산구) 자비회 신도들도 줄줄이 서약해 박수를 받기도.

"화장정착" 한목소리

O…서약에 동참한 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한마디씩. 문경에서 왔다는 함계옥 보살(50)은 "불교는 이미 2천여년전에 화장을 주장했으니 참으로 멀리 내다보는 종교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주지 법의스님 법문



오늘은 은해사가 산문을 개창한지 1190주년이 되는 날이자 제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은해사가 불국 정토구현의 시발점이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다짐하고 이를 실천할때 생명나눔운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눔운동은 누군가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마다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잠식되는 현실에서 우리불교가 아니면 누가 화장문화정착에 앞장서겠습니까? 장기기증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체대비 정신 본받아 나와 이웃을 사랑하자"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고 나아가 동체대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불교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여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상의 현실종교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부터 지혜를 증득케하여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 화합된 생활로 이끌어주는 종교인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남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곧 개인의 불행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불행입니다. 우리모두 화합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종단발전과 국가발전이 이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보살행원과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자기혁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⑱



유 상 종
(대구전문대교수)

"특별한 건강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화사신도회 유상종회장(69 금강)은 요즈음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얼마전 새로 조직한 동화사신도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조직정비와 신도교육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바쁜가운데서도 유회장은 매일 아침5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30분간 금강경을 독송하고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

이어 비가오건 눈이오건 근처 운동장을 찾아 30~40분간 여름에는 속보를, 겨울에는 조깅을 한후 맨손체조를 한다. 한때 만보계를 허리에 차고 하루 만보걷기를 생활화했던 유회장은 많이 걷는것이 건강에 제일좋은 비결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속보를 할 때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는데 이렇게하면 마음을 모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한다.

매일새벽 금강경 독송 · 걷기 운동
"욕심 많으면 병생긴다" 마음 비워

대구신행단체연합회장과 대구과학대 명예교수등을 겸하고 있는 유회장은 교회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로 규칙적인 생활과 중학교시절부터 계속해온 조깅을 꼽는다. 조깅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12기생인 유회장은 연대장 재임시절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km구보 테스트에서 일등해 직업을 잘못택했다는 주위의 평판을 얻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건강비결의 하나로 꼽는다. 욕심이 많으면 남과 다투기 쉽고 마음이 산란해지며 그러다보면 기가 흩어져 건강을 잃기 마련이라고.

"욕심이 많으면 병도 많다"는 유회장은 "부처님께 의지해 착실히 신행생활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기자

방송소식

BBS가을개편 '역사산책' 등 3개프로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7일부터 청소년 및 신행, 교양 프로등을 보강한 가을철 프로그램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BBS역사 산책' '참선이야기' '살며 생각하며' 등 3개 프로가 신설됐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BBS역사산책'(PD 문태준, 밤11시10분~밤12시). 중앙승가대 김상영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는 역사학자와 향토사학자들을 초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 유입 문제 등 불교의 역사와 고승의 행적들을 재미있게 소개하고있다. 또 '살며 생각하며'(PD 강선문, 밤12시~새벽1시)에서는 초격스님(광명선원 원장)이 전화 연결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준다. 이외에도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마음다스리는 법을 일러줄 '참선이야기'(PD 이영준, 아침7시10분~아침8시)도 방송된다.

BBS후원회 ARS 개통

700-0180…1통화 5천원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이 지난 11일부터 후원회 ARS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후원회 ARS는 기존 후원모금 방식인 은행 지로와 자동이체가 후원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 ARS모금은 청취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 통화당 5천원의 금액이 다음달 전화요금 고지서로 청구된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은 양질의 포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02)700-0180

법회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서약(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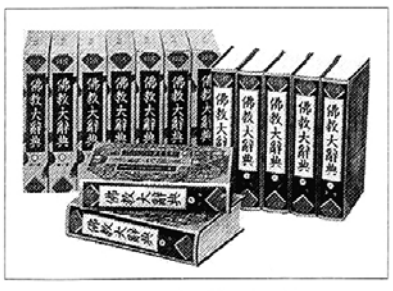
법의스님 지성스님 돈명스님 강영선 고 현 권 혁 김갑임 김은영 김응철 김일영 김재일 김학수 김한수 류명하 박노경 박은영 박준언 박준희 박찬희 박형욱 백군자 백명옥 신영옥 양현주 유태일 이기원 이선한 이순재 이은옥 이은주 이인권 이정기 이종선 이종환 이춘자 이춘희 이현경 임영자 임영희 임찬배 장금자 전소영 정순종 조석한 조채희 조치완 차상식 최춘환 한용주 허임성 현의숙 홍현숙 황도인

화장유언서약(323명)

법의스님 계도스님 금강스님 법산스님 법성스님 보운스님 선용스님 소요스님 손묵스님 원응스님 자영스님 종원스님 지공스님 지성스님 혜월스님 돈명스님 강미경 강영선 강정희 강태출 강현숙 고 현 고덕자 고운조 권 혁 권기순 권도성 권숙희 권오욱 권용백 권점수 권현순 김 준 김갑임 김경미 김경심 김경조 김경화 김귀화 김금숙 김길조 김낙식 김다남 김대원 김도이 김미순 김미자 김선걸 김선화 김성보 김성복 김성훈 김순자 김쌍점 김양호 김영순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옥련 김옥자 김용부 김윤옥 김윤조 김은영 김응철 김일영 김재일 김재환 김정길 김정숙 김정숙 김정연 김정희 김종훈 김주본 김춘자 김춘희 김태동 김태순 김필심 김학수 김한수 김한주 김향숙 김현숙 김형중 김혜영 김희남 노영희 노재완 도한준 도해인 류명하 류잠상 무유성 문순남 민경옥 박계년 박계수 박계자 박남순 박노경 박대석 박동철 박명자 박무옥 박병옥 박선미 박연자 박영옥 박영정 박옥남 박용대 박운영 박윤자 박정숙 박준언 박준희 박찬희 박춘자 박춘자 박치민 박태관 박태기 박태희 박해인성 박형욱 배옥기 백군자 백명옥 백영화 백정임 백형순 서외숙 선종렬 설대원 성덕화 손정해 송귀종 송기활 송성용 송은수 송춘희 신대일성 신미옥 신보천 신상희 신영옥 신영주 신재균 신정훈 신태금 심길연 안갑련 안귀분 안임숙 양명순 양선자 양자이 양현주 여성향 오봉순 오혜경 우연옥 우옥란 우옥현 유근순 유상섭 유순옥 유옥성 유은경 유태일 윤분옥 윤불국화 윤석곤 윤손용 윤순이 윤옥자 윤윤심 윤인숙 윤종남 이경미 이경향 이광숙 이기원 이남숙 이달철 이동희 이명숙 이미경 이상선 이선한 이성희 이순남 이순남 이순이 이순재 이순조 이승경 이신자 이영자 이영자 이옥숙 이옥희 이외숙 이윤호 이윤화 이은숙 이은숙 이은옥 이은주 이인권 이재희 이점순 이정기 이정례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종선 이종환 이춘자 이춘자 이춘희 이충래 이태숙 이한용 이현경 이혜련 이화준 이효걸 이효숙 임영자 임영조 임영희 임정식 임찬배 장금자 장금자 장선희 장성숙 장을곤 장정남 장지현 장태수 전남수 전소영 전위만 정경수 정경희 정기순 정명숙 정문옥 정미경 정석기 정석현 정선수 정숙화 정순종 정윤철 정인숙 정정애 정자은 정해원 정희숙 정희채 조규귀 조동숙 조석한 조석한 조영숙 조영애 조채희 조치완 조태진 조희석 조효제 주염두 주영희 지창림 진귀남 진성근 진성자 차명심 차상식 채윤근 채정예 천연화 최덕순 최봉선 최신애 최영수 최정기 최춘환 최혜숙 최희숙 추일남 추춘임 하정애 한상대 한성우 한용주 한정숙 한지혼 함계옥 허영득 허영윤 허임성 허정자 허필자 현의숙 형창수 홍성혁 홍영숙 홍현숙 홍현희 화명애 황경희 황도인 황매호 황명순 황보양숙 황순자 황옥자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불교대사전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전7권/ 값 350,000원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꽃피운 전통불교의 모든 것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20만 수천 매라는 방대한 원고량을 검토, 수정, 정정을 거듭하여 완전무결하게 다듬은 불교사전의 결정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사상, 예술, 문학,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 사전으로서의 완결판인 불교대사전은7만 5천여 항의 진수만을 골라 일반인은 물론 전문인들이 불교를 연구하는데 손색없는 사전이다.!

명문당 ☎ 02)733-3039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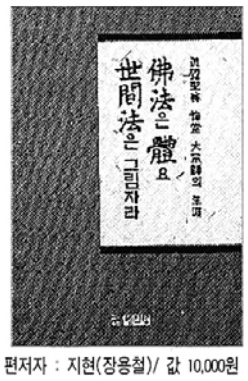
성내경 지음 / 값 15,000원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불일 수 없을 때 진의가 드러나리라

중명출판사 ☎ 02)2636-6873

佛法은 體요 世間法은 그림자라



편저자 : 지현(장용철)/ 값 10,000원

한국밀교를 일깨운 중흥조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

심(心)은 곧 불(佛)이요,
불은 곧 심인고로 불법은 심의 법이라,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가 되나니, 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이라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 02)913-0753

차가있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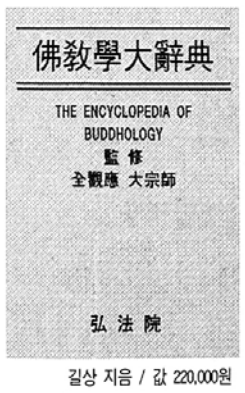
이연자 지음 / 값 7,000원

차는 우리에게 멋과 여유 그리고 차선(茶禪)으로까지 이끌어 주는 영물(靈物)

차가 있는 삶, 차와 함께 하는 삶은 언제나 멋과 여유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차는 맑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맑음 속에 건강과 웃음과 덕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는정(淨)·중(中)·동(動)이 어우러질때 그 멋과 여유가 더욱 드러난다. 이 책은 이연자씨가 차를 가까이 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이다. 이연자씨는 말한다. "차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아지지만 참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영물(靈物)이다."차가 들어있는 음식, 차가 들어있는 음료, 차가 들어있는 모든 것은 차향반큼이나 그 정신이 향기롭다.

초롱 ☎ 02)738-5791,730-0235

불교학대사전 (상, 하)



길상 지음 / 값 220,000원

불교학대사전(상, 하)

총 65,000여 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사전은 그 방대함과 현대적 표현이특징이다.
용어의 채집에 있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중요한 불교문헌 들을 널리 섭렵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각국의 민간신앙이나 제방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들까지 수록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트어 등의 원어를 표시하여 설명의 정확을 기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문장을 간결하고 쾽이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설명으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홍법원 ☎ 02)734-7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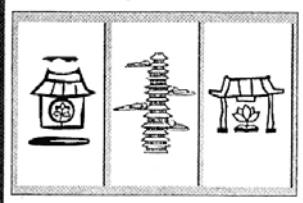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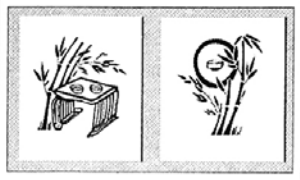
마 하 몰
(http://www.mahamall .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찻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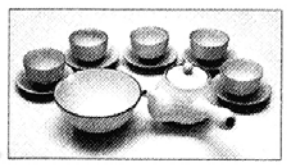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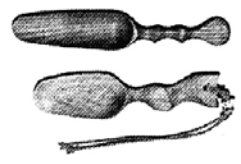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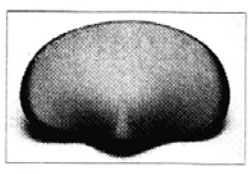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짐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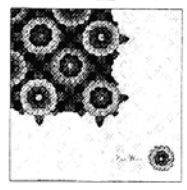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9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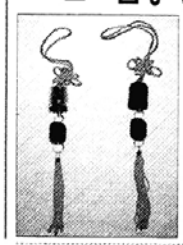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색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장살
가격:₩5,0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8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분홍, 녹색
· 재질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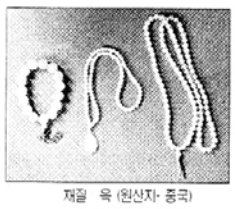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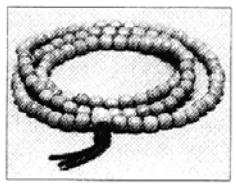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코팅 · 골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용거북시계

가격:₩64,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한국불교총람 CD

韓國佛教 總覽
가격:₩6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상반신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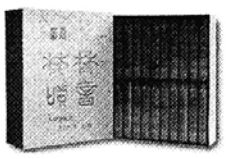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전신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6분
가격: 각 ₩25,000

문구암 스님 범음범패 테잎

가격:₩60,000

청화선사 대법회

비디오 테잎
가격: ₩15,000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잎 (아동용)
가격: ₩1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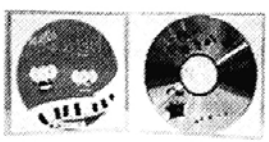
가격:₩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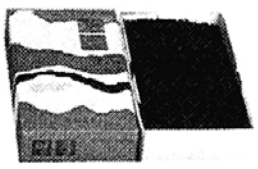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협(오색원),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학산가족 숫자놀이

아동용CD 3세 ~ 5세
가격:₩20,000

전단향

가격:₩9,000(개당 ₩3,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55×85×3cm
가격: ₩4,200

날개CD

가격: ₩9,500

향나무 열쇠고리

· 안전운전
· 자수대통
· 소원성취
· 달마정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가격: 각 ₩3,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꽃양면자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좌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좌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바라밀 건강칫솔

가격: ₩3,9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9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거지성자

가격:₩6,750

감잎차

가격:₩35,000

법회안내

관음전 천일기도 입재



혜장 죽림정사 주지 스님은 7일 관세음보살전 천일기도 입제법회서 법문. 02)679-3490

29일 금강경 주제법문



자명 마하보리사 주지 스님은 29일 오후7시30분 만해교육원에서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 02)730-9108

27일 다보법회 법문



양일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 주지 스님은 27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 02)703-0108

'어린이 법회운영' 특강



장명문 법사(진선여고 교사)는 3일 오후7시20분부터 조계사 내 원심회 법당에서 '어린이법회 운영'에 대해 강의. 02)738-786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0월28일 (목)

■능인불교연구소 창립 학술회의=능인불교연구소는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심재룡 교수(서울대)가 '불교의 명상수련', 정승석교수(동국대)가 '윤회', 신규탁 교수(연세대)가 '선과 정토사상'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02)3461-4077

10월29일 (금)

■제주본말사 주지연수=조계종 교육원은 오전10시 관음사에서 제주지역 본말사 주지연수를 개최한다. 02)732-4923

■실직자 돕기 알뜰장터=부산 삼광사는 2일까지 경내에서 실직자돕기 알뜰장터를 연다. 농산물, 수산물,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된다. 051)808-7111

10월30일 (토)

■10만 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전국신도회는 오후5시 김해 봉화산 정토원 특설 법단에서 제1차 10만 불자 결사 전진대회를 갖는다. 02)732-7272

■부석사·청량사 순례=문화유적답사회 옛돌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수안보, 봉화 청량사,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 풍기 인삼시장을 순례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2266-1233

■정병조원장 육조단경 강의=서울구도회는 오후3시30분 구도법당에서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동국대 교수)에게 듣는 〈육조단경〉 법회를 연다. 02)3411-6167

10월31일 (일)

■봉화산 호미든 관음개발성상 봉불식=전국신도회는 오후2시 김해 봉화산 정토원 특설 법단에서 호미든 관세음보살상 봉불식을 봉행한다. 0525)342-2991

■청교련 관악산 환경보호활동=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관악산에서 '녹색도시인 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환경보호활동을 벌인다. 02)737-9260

■친구초대의 날 행사=동불교청년회는 오전10시 정릉 동산선원에서 제2회 친구 초대의 날을 개최한다.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를 도반들에게 알려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북한산 산행으로 진행된다. 무진장스님이 '불교적 인간관'에 대해 법문한다. 02)732-1206



◇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정토'를 위한 일요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아리야라뜨네박사 참여불교 특강=정토회는 오전11시 정토회관에서 스리랑카 아리야라뜨네 박사로부터 '참여불교'에 대해 듣는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연다. 02)587-8993

■정락스님 초청법회=본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은 오전 10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02)584-1108

11월2일 (화)

■내장사 성지순례=불교문화연구회는 내장사 단풍나무와 천연기념물인 굴거리 나무, 비자나무 군락을 보고 백련암, 원적암을 찾아간다. 02)2275-4333

11월3일 (수)

■무진법장사 동안거 백일기도=무진법장사는 오전11시 입재해 내년 2월12일 회향하는 동안거 백일기도를 봉행한다. 02)932-2333

게 시 판

알림

▲등지청소년의 집 방문=서울불교청년회는 7일 대부도 자현사 등지청소년의집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출발은 당일 오전8시 사당역 과천방면 편의점 앞에서 한다. 02)730-9108

▲무료한방치료=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8일, 30일 복지관 6층 진료실에서 한울의료봉사단의 도움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 2백여 명에게 무료 한방치료 실시. 02)989-4215

▲노인무료진료=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관음사에서 관내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51)265-9471

▲금강경 강좌=부산불교연구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051)462-3427

▲무료 애니메이션·영화 상영=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2~4시 지역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다. 02)2282-1100

▲자원봉사활동 사진전=대전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0일까지 평송 청소년수련원 전시실 외 6개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을 개최한다. 042)488-0732

강좌

▲노래로 배우는 수화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 토요일 오전 10시30분 '노래로 배우는 수화교실'을 연다. 0443)652-0900

▲머리미용 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3시 머리미용 자격증반을 주·야간반으로 운영한다. 수강료는 월 3만7천원이며, 4개월 과정이다. 02)817-8054

▲어린이 뮤지컬 영어=양정청소년회관은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어린이 뮤지컬 영어 강좌를 개설한다. 선착순 마감. 051)868-0750

▲초급 종이접기 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월 과정의 초급 종이접기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주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2시~4시, 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6시~8시에 열린다. 02)817-8054

모집

▲기초교육원 96기=서울불교청년회 기초교육원은 3개월 과정의 96기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수 오후 7시30분 만해교육원. 02)730-9108

▲시민불교교양대학 수강생=조계종 인정 신도교육기관 시민불교 교양대학은 제2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알기쉬운 불교예절, 불교상식, 부처님의 일생, 기초교리, 참선법,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13일까지. 02)932-2333

▲무의탁 노인돕기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말벗과 생활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환경보호 청소년자원봉사자=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린다. 02)737-9260

▲도서분류 자원봉사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분류되지 않아 자리를 찾지 못한 도서를 분류해 서가에 배정하는 일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 주1회 3시간이상. 02)385-1351

▲무료급식 후원자=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결식청소년들을 위한 무료급식에 쌀과 금전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0271-0560

▲소쩍새마을 후원물품=소쩍새마을은 원생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줄 뜻있는 후원자들의 손길을 기다린다. 필요한 후원물품은 성인용 팬티, 기저귀, 피죤, 샴퓨, 옥시크린, 겨울용 슬리퍼, 김장용 젓갈, 마늘 고춧가루, 생강 등과 부식류다. 0371)762-9870

▲태안사·쌍봉사 운주사 순례=터사랑은 13일~14일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의 안내로 곡성 태안사와 쌍봉사, 운주사, 벽나리 민불을 순례할 계획으로 답사단을 모집한다. 02)725-1284

▲인도성지순례단원=한국제이티에스는 '새천년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라는 주제로 인도성지순례를 떠난다. 내년 1월9~24일 15박16일 일정으로 이달 31일까지 접수 마감한다. 02)587-8995

답사

▲자인사·산정호수 답사=여래지 답사회는 31일 산정호수, 자인사, 삼각봉, 등룡폭포, 비선폭포로 답사를 떠난다. 02)3445-0202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도반 만남행사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30·31일 양일간 참사람수행관에서 제2회 도반만남의 날 행사를 갖는다. '99년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를 통해 배출된 수련생 1백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행사는 화합의 시간, 다정스님의 선실수와 강연, 단풍감상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85) 392~7502

건봉사 통일범종 타종

금강산 건봉사는 17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범종소리가 끊어진지 50년만에 범종불사를 완료하고 첫 타종식을 가졌다.

주지 해장스님은 "이 종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간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미망에 덮여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박신명 종무원장 취임법회



경기북부종무원은 11월 3일 포천 극락사에서 박신명 종무원장〈사진〉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홍인곡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등 총 5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태종

월경사 불교회관 낙성

진주 월경사(주지 용암)는 11월 5일 오전 10시 진주시 망경동 233번지 현지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주로 본존옥불 점안 및 종합불교회관 '일승전' 낙성식을 갖는다. (0591)753-6411

진각종

종조·열반스승 추념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6일과 20일 각각 총인원 종조전과 대강당에서 종조 회당대종사 제36주기 열반절 추념불사 및 61인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20일 열린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사진)에서 성초통리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덕높으신 스승님들의 유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땅 방방곡곡에서 나아가 세계일화를 향한 열망으로 지구촌 곳곳에 기필코 심인의 대법륜을 굴리고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륜종

지장암 보살계 수계산림

충남 논산 노성면 지장암 금강계단에서 28일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전계아사리에 영산정각 대종사, 갈마아사리에 혜안유경 대종사, 교수아사리에 탄공백운 대종사이고 증명법주는 금암대종사(법륜종 前 종정) 일화대종사(현 종정) 혜우대종사(前 총무원장)이다. (0461)733-5628

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 가족수계

제주교구종무원(원장 강설)은 3일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산방산 보문사에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전가족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2천여명의 불자가족이 동참했다.

아미타종

통합불교 아미타종 창종





통합불교 아미타종이 불교의 대중화를 목표로 17일 창종했다. 아미타종의 종정은 지산스님〈사진위〉 총무원장에는 법성스님〈사진아래〉이 추대됐으며 총무원은 강남구 논현동 167-28 승서빌딩 3층에 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장=금봉 △사정원장=유화 △교육원장=정담 △포교원장=보경 △예경실장=금해 △총무부장=법안 △교무부장=주형 △사회부장=자광 △기획부장=도원 △재무부장=진각 △호법부장=혜안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이제 자연식품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약사보살님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이 건강한 정토를 기원하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를 흐르는 기가 조화를 잘 이룰 때를 말합니다. 기의 조화가 깨지거나 기가 부족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해와 경쟁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에서는 무공해 자연재료를 가지고 선조들로 부터 전래된 비법으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의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본사생산제품 : 불로화정, 원기대보탕, 익수영진고, 보혈청신탕, 치신왕기환, 신비환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참 다슬기 엑기스



무공해 청정지역인 지리산 뱀사골, 백무동에서 채취한 자연산 참다슬기(민물고동)를 달여서 만든 엑기스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으로 소화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참 다슬기 환(丸)



소화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가가 탁월한 지리산 참다슬기(민물고 등)를 환(알약)으로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내용량 : 500g(2개월분)
◇가 격 : 30만원

유황오리 죽염간장



서목태유황오리죽염간장 사리장은 서목태콩을 우리밀 누룩과 전래의 기술로 띄워서 유황오리와 밭마늘, 홍화씨를 달인물을 죽염과 숙성, 발효시킨 무공해 간장입니다.
◇내용량 : 36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혼합솔순식초



햇솔순과 솔잎을 벌꿀, 벌집 등과 함께 오랫동안 발효 숙성시켜 부드러운 맛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든 고기능성 솔순식초 건강음료입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30만원

무우엿 청



무공해 무우, 찹쌀, 생강, 마늘 등을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 옛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고아 만든 최상의 상품입니다. 무우엿 청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내용량 : 500ml(2개월분)
◇가 격 : 20만원

무우엿 환(丸)



옛부터 매일마다 무우 한조각을 먹으면 산삼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무우엿 청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내용량 : 250g(2개월분)
◇가 격 : 20만원

솔효소정액

솔잎, 솔순, 솔씨방 등 지리산 조선 소나무 12가지 원료에 당귀, 감초, 표고버섯 등을 배합 발효시킨 효소정액으로 고단위 영양소가 함유되어 자연 치유의 힘을 길러준다.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으로 질병예방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내용량 : 2800ml(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솔선식

곡식종류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솔효소정액과 같이 소나무의 12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다. 밥을 먹지않고 3개월만 복용하여 비만체형이 바뀌고 당뇨를 포함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내용량 : 환약(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한방식초

검은 쌀밥에 농주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누릅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내용량 : 1800ml (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치료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요통, 신경통, 당뇨병, 위장병 등 각종 질병을 치유

◆가격 : 20만원(1 Set) - 압축쑥 1개월분, 쑥뜸기 일체, 안내책자 포함.

금정산 정상서 맞는 새천년 첫햇살

범어사 제야법회 연다

등밝히기·국악공연·108타종 행사
부산 2백만 불자와 나라평안 발원

2000년을 연등으로 장엄된 금정산 정상에서 맞자.

범어사(주지 성오)가 한세기를 돌아보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제야법회를 기획, 금정산 자락을 연등으로 장엄하고 고단봉 정상에서의 해돋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회는 떠오르는 새 천년의 첫 햇살이 맨 처음 금정산을 비춘다는 한국천문연구소와 국립지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라 더욱 뜻깊을 뿐더러 금정산 자락에 안겨 부산 불교의 중심을 지켜온 범어사가 부산의 2백만 불자와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큰 법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0년대 한두차례 산발적으로 치뤄지다 중단된 제야법회가 제모습을 갖추어 맥을 잇게 된 것. 산사에서 보내는 제야와 첫 아침은 시작의 마음을 올곧게 다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범어사측의 설명이다.

범어사는 한세기를 정리하며 새로움으로 이어나가는 행사로 제야법회와 새 천년 맞이 1인 1등 밝히기, 산사의 국악향연, 새 천년 맞이 108타종 등을 계획하며 새천년을 맞는 시작의 마음을 올곧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천년의 첫날 새벽 6시 31분부터 떠오르는 해돋이를 위한 고단봉 정상 오르기로 힘찬 시작의 걸음을 내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발원으로 밝혀진 환한 연등 사이로 금정산을 오르며, 걸음 걸음에 새천년 부산의 도약을 기원하게 되는 것이다.

범어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민전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새로운 한세기를 준비하는 한편, 부산발전, 나라평안을 기원하는 큰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의 제야법회와 고단봉 등 밝히기는 부산시에서 12월 25일부터 1월초순까지의 기간을 정해 기획중인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천년맞이 문화축제"와 맞물려 부산 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울산 정광사 낙성법회

법당·유치원·예식장 갖춰

동부경남지역에서 단일사찰로는 최대규모인 천태종 정광사(주지 영제)는 17.18일 낙성법요식 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1만 5천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낙성법회에서 영제스님은 "지역민들을 위한 사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사는 지하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270평 규모로 현대건축양식과 전통건축양식을 병행해 건축되었다. 대웅보전과 지관전은 작은 문화, 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유아 인성교육의 장인 유치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예식장과 작은 법당등 소강당은 각종 세미나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천미희 기자



◇화엄사는 19일부터 3일간 화엄석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부산 삼광사 열린 문화공간

내달1일 창립 30돌
기념법회·문화행사
결식아동·실직자돕기

1969년 창건된 천태종 삼광사(주지 덕수)가 11월 1일 30주년을 맞는다.

삼광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알뜰장터를 마련하여 결식아동 도시락보내기운동과 실직자돕기운동을 전개한다. 이운동은 알뜰장터에서 판매된 농산물, 수산물, 생필품 등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 1일 지관전에서 기념대법회와 문화행사를 치루고 문화행사와 축하공연에는 삼광사 합창단의 찬불가, 연예인 초청공연, 사물놀이등 문화행사가 다채롭다.

3만5천평에 건립된 삼광사는 1개지부, 15개 지회, 223개의 분회 조직을 갖춘 신도회를 중심으로 매월 1.2일 정기법회를 비롯 지회법회, 새신도입교법회, 봉사회 등을 통한 신행다지기는 물론 놀이방, 독서실, 서예교실, 삼광한글학교, 삼광한문서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광사는 봉사단체인 부일회와 원회, 관음회, 청년회, 봉사회 등이 나환자촌 방문, 군부대위문, 군장병 수계 및 정신교육법회, 교도소 재소자 교화법회, 영세장애인 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인 삼광사, 학술, 문화, 복지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천미희 기자

화엄사 정대불사·수계법회

동오층석탑서 유물 330여점 발견…일반 전시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는 19일부터 3일간 각황전에서 보성(송광사방장) 천운(향림사조실) 종걸(화엄사조실)스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보살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석경정대요잡에 참석하여 화엄경과 석경복사인쇄본을 머리에 이고 대웅전과 4사자석탑을 참배했다.

화엄사는 7일 기단의 균열과 이완으로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기위해 보물 132호 동오층석탑을 해체복원했다. 이때 발견한 부처님 진신사리 8과, 석경 326점을 보제루에 전시하고 사리병, 사리함, 금관광배, 청동좌대, 용상방지, 구슬 21점등의 유물은 문화재관리청에서 3·4개월 보존처리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1층 탑신부와 기단내부에서 발견된 화엄석경은 탑의 속채움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화엄사는 이번 동오층석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친견법회를 17일부터 보제루에서 2천년 10월8일까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공개한다. 화엄사의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은 의상스님이 화엄사를 중창하며 장육전에 석각의 화엄경을 둘렀다는 기록이 전하며 임진왜란 당시 훼손됐다. 법난이 일어나면 불경의 소멸을 막기위해 유행한다는 석경조각은 6·25당시 보관해둔 상자가 파손되며 노천에 퇴적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현재 석경편은 1백63상자에 1만4천여점으로 부조된것과 선각된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관화에서 볼 수 있는 화엄변상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형평 어긋나" 국가에 소송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3〉

초파일 공휴일 씨뿌린 김선흥씨 〈강화군수〉

불교계 대명절 부처님오신날. 1600년 한국불교사 속에서 '사월초파일'이란 이름으로 국민정서에 깊숙히 각인된 뜻깊은 축제로 맞이하고 기릴 수 있게된 여건은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확실하게 조성됐다. 초파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불교계 대응은 71년 8월 조계종 총무원이 '4.8절 공휴일 지정'을 당국에 건의함으로써 가시화됐다. 이어 추진위를 발족하고, 72년 석주스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73년 다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 결정적으로 용태영변호사가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청구소송'을 내면서 마침내 75년 정부가 공휴일 선포를 했던 것. 크리스마스보다 무려 30년이나 뒤늦은 대접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 64년 종교 형평성을 들어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을 소장으로 행정소송을 냄으로써 처음으로 초파일 공휴일 지정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 숨은 동국대 대학원생이 있었다. 당시 무종교 법학도였던 그는 현재 강화군수가 됐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신교도이다.

불교계서 세운 동국대 법대를 나와 同대학원까지 다닌 김선흥(63세) 강화군수는 학생회장을 맡는등 줄곧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6·3도 가담, 행동하는 지성이고자 했다.

"대학원 2년차때인 63년 12월 25일인데, 학교근처 명동까지 다 방이란 다방은 젊은이들이 성 개방의 날이라 정해놓고 하루 임대를 예약하느라 가관이었습니다. 당시는 서양문물이 급속히 밀려들어 오면서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 성(性)질서가 파괴에 가깝게 추락하던 땐데, 그 꼴을 보자니 과연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싶어 참담했습니다. 재동을 걸어야겠고, 12월25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하는 착안을 한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살펴보니 유일하게 기독교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돼있음이 새삼 확인됐고, 법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제 1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초파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처음 불을 지핀 김선흥 강화군수.

64년 동국대 법학도 시절 소 접수후 제주도로 도피

그러나 막상 소장부터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했다. 당시 불자이자 변협서울시협회장을 지냈던 김호섭씨를 찾아갔다. 도움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 포기하라고 권하는 것이었고, 이후 두루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우려반 냉담반이었다. 어쩔 수 없이 서점에서 '서간문쓰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그 안에서 '고소하는 법'의 내용을 교과서삼아 법이론에 맞춰 소장을 작성했다. 막상 문제는 인지대였다. 당시 2만원은 학생신분으로 큰 돈이었고, 불교계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해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총무원장 경산스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야랫사람들이 차단했다.

"이차돈의 순교를 봐라, 학생이 정의감으로 총대를 맸는데.... 이건 분명 아니다는 느낌과 큰 실망을 안고 조계사를 나왔습니다. 겨우 친구들에게 돈을 빌어 해결해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더니 접수자가 한참동안을 읽어보고는 '꼭 해야하느냐'고 묻더라구요. 내 의지가 워낙 강경하자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켜보던 법원 출입기자가 기자실로 가자며 데리고 가더니 여러 기자들에게 행정소송내용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모 기자가 은밀히 '내일 신문에 터지기 전에 도망가라'고 귀띔하더군요. 그길로 제주도로 갔습니다."

1주일후 그는 하도 궁금해 무작정 학교로 갔다. 후문 수위를 통해 형사2명이 잠복하고 있음을 알았고, 조명기총장을 은밀히 만나게 됐다. 총장실에서 20만원을 쥐어주었던 조총장을 회고하고는 김군수는 눈물을 머금었다. 그후 동아방송 생방송 토론 '종교자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프로그램에 박완일법사 조향록목사와 함께 출연해 공론화되면서 비로소 경찰의 감시망에서 풀려났다. 자유인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소송접수 1년후 재판이 열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검사와 법논쟁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기전 용태영 변호사가 초파일 공휴권에 대한 소송을 한다기에 자료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 분과는 6.3때 내 무료변론을 해주신 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제됐던 군사정부시절 학생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김군수. 그는 지금은 '종교 공휴일'이 국민정서 순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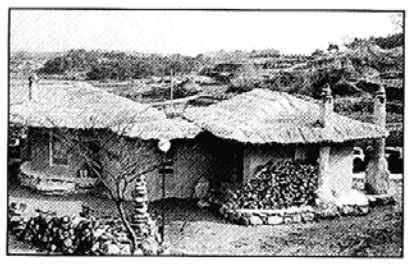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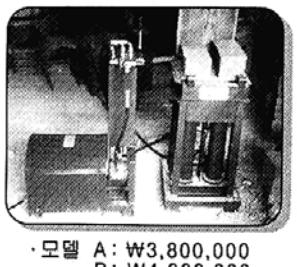
감로사 마애삼존불 조성

감로사(주지 혜총)에 부산유일의 사찰내 마애삼존불이 조성돼 불자들의 기도처가 되고 있다.

17일 봉안된 마애삼존불은 감로사 삼천불전 옆 부처바위에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좌우에 각각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조성했다.

혜총스님은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을 위한 기도처가 되길 발원하며 조성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파타 코스
밝은길 아파타센터
◐ 아파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세존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 세존도 - 500인승 사랑의 유람선 지항
여지껏 불자의 입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전설적 성지이며 소원성취한다는 석가세존의 신비를 간직한 남해의 최남단 세존도에 마침내 500인승급 대형 크루져 유람선이 취항함으로 불가의 전설적인 세존도에서 소원성취 기도 및 방생법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는 신라고대사찰인 금산 보리암, 용문사, 화방사가 있는 불교의 산교육장으로 고대사찰 삼사순례와 세존도 소원성취 방생기도법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과 불자여러분의 불심을 한층더 새로이 할 것입니다.
■ 소요시간 : 왕복 3시간,
(매주 일, 월요일 10시 정기운항 및 수시운항)
■ 전 화 : 0594) 862, 863-0947
남 해 해 상 관 광 레 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스님 108명에 치질 무료시술"

유옥현-김경재母子 "부처님 가피 회향"발원

지금까지 입은 부처님 가피를 의료보시로 회향하겠다고 나선 모자(母子)불자가 있어 조계사 분규로 상처받은 불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영등포구 도유의 과의원 김경재 원장(37)과 김원장의 어머니 유옥현보살(63·주식회사 금토상사 대표이사).

김원장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질로 고생하는 108명의 스님들에게 입원비나 수술비 등 치료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리겠다"며 "불우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무료로 치료해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유옥현보살도 "아들의 의료보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장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김원장은 지난 9월 병원문을 열기까지 개업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강화 보문사에서 기도를 했다. 병원건립과 직원을 구하는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자 보문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상하리만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를 통해 부처님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올곧은 불자의사가 될것을 다시한번 서원했다. 그러자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됐다. 보문사 주지 향적스님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를 마칠 즈음 향적스님이 병원이름을 지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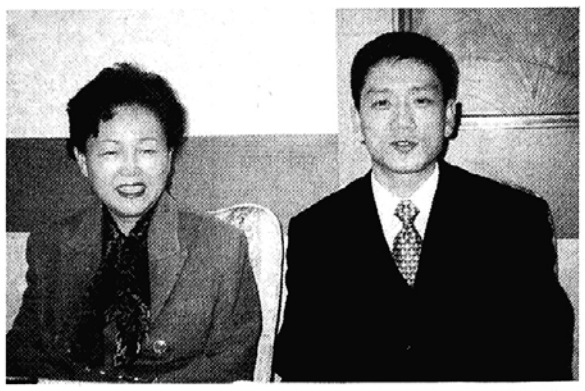
'도유(道癒)', '수행하면 치료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병원이름을 받으면서 오랜 좌선생활로 인해 치질로 고생하는 스님들이 많다는 향적스님의 말씀을 떠올린 김원장은 자신의 전공과목이 대장항문 계통이니만큼 이 분야에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주위에서 신심깊은 불자로 소문난 어머니 유보살은 아들의 결심을 전해듣고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반도체장비 수출업체인 (주)금토상사의 대표이사인 유씨 역시 사업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 믿고 사회에 회향할 방법을 생각해오던 터였다. 유보살은 아들에게 "스님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불자와 장애인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자"고 제안했고 김원장도 어머니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원장은 어머니를 따라 철원 심원사, 정선 정암사, 구미 도리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참배하며 불심을 키워왔다. 유보살 또한 사찰 참배는 물론 신행단체인 정목회 유순현 회장과 함께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모시고 〈금강경〉과 〈육조단경〉 등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유보살과 김원장은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이타행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02)2637-639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은혜에 보답하고자 이타행을 펼쳐가겠다는 유옥현(왼쪽) 보살과 김경재원장.



◇'남을 위해 참회기도 하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7일7야 8만4천배를 하고있는 불자들.

"성철스님 가르침 되새기자"

열반 6주기 맞아 8만4천배…성철넷 개설

청빈한 생활과 강철과도 같은 수행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퇴옹당 성철스님. 요즘같이 불교계가 내분으로 어지러울 때는 더욱 그리워지는 큰스님이다.

성철스님열반 6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기며 불자들이 남을위한 7일7야 8만4천배 참회기도를 했다. 3천여불자들은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21일 오전 7시 입재해 낮과 밤 구분없는 7일7야 참회정진을 시작했다.

2시간마다 천배씩 총 8만4천배를 하는 이 기도는 해가 갈수록 참가자가 늘어나 올해 역시 전국 각지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가 모였고 가족이나 부부가 함께 참석한 불자들도 많았다.

불자들은 법복으로 단정하게 갈아입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갑시다'던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에 몰두했다. 21일 막 일천배를 마친 한 거사는 "절을 많이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대구에서 왔다는 한 보살은 "불교계가 싸우니까 무소유를 강조한 큰스님이 더욱 그립기만 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과 성철스님문도회는 27일 오후1시 사리탑앞에서 3천배 참회기도를 실시한뒤 '인터넷 사바세계와 함께하는 성철큰스님' 설명회를 갖는다. 컴퓨터세대 및 전세계 네티즌들을 위해 성철스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전문사이트인 성철넷(songchol.net/songchol.org)을 개설하는 것. 오전 10시30분 추모제가 열리는 10월28일부터 11월21일까지 한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11월 22일 정식가동될 성철넷에는 스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다룬 '큰스님'과 육성법문을 AOD로 수록한 '내말에 속지마라' '장경각(선서출판)' '사진으로 보는 큰스님' '사이버백련학당'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다. (02)744-1541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진각사회봉사단 발족

법률·간병등 생활속 보살행 실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6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생활속의 보살행을 실천할 전문봉사단인 진각사회봉사단 발단식을 가졌다. 봉사요원 50여명과 복지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단식에서 성초 이사장은 "봉사단의 정식 발족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를 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봉사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진각사회봉사단은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봉사단 △간병, 목욕, 이·미용 기능보유자 등 기능직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청소년봉사단 △국제자원봉사단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계속 봉사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02)942-0144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16일 발단식을 가진 진각사회봉사단.

강남한방병원 내달 1일 개원

동국대 한의대 부속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이 11월1일 개원한다. 강남한방병원은 대지 319평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물로 약사여래불을 봉안할 법당, 세미나실, 진료실과 20실의 병실을 갖추고 있다. 강남한방병원은 한·양방 협진,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수도권 지역 300여 동문 한의원과의 진료 연계 체계 구축 등으로 병원을 특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양방 협진 체제를 위해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교수를 물색 중이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등이고 내년 3월까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후과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원철 원장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이 되려면 전문화된 치료질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러지와 장수센터를 특성화하려고 계획 중이다"며 "조계종 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계 종단에 소속된 스님은 20%, 신도증을 가진 신도들은 10%에 한해 병원비를 할인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02)3416-9700 강지연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태고종 수계산림 행자 199명

장기기증·사후화장등 서약

지난 11일부터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태고종 제23기 합동득도수계산림 행자 199명이 11월 3일 오전 11시 선암사 대웅전앞에서 단체 헌혈과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서약을 한다.

태고종 행자교육사상 교육생 전원이 헌혈과 사후 장기기증·화장서약을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생명나눔의 참뜻을 펴는 일로 출가의 시작을 장식, 초발심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수행자로서 평생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헌혈과 사후 장기기증·화장서약은 수계산림 1주일째인 18일 행자들이 자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 행자대표를 통해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무부장 백운스님에게 뜻을 전해와 이뤄지게 됐다.

백운스님은 "행자들의 이러한 결의는 진정한 수행자로서 평생을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요, 신심의 발로에서 나온 거룩한 불사"라고 뜻깊게 평가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5기 불교귀농학교 개설

11월12일부터 한달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층 강의실에서 한달간 제5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귀농학교는 도법스님의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 김종숙교수(한국농업전문학교)의 '환경농업의 개념과 필요성', 이병철씨(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의 '어떻게 귀농을 준비할 것인가' 등 모두 14개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23-1884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내달 28일 조계사 가사전시회

조계사(주지 지홍)는 당초 지난 10일 개최키로 했다가 조계종 분규로 연기시켰던 '가사 전시회'를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또 전시회 기간중인 12월4일에는 가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시회 전까지 이번 행사에 전시되는 가사 사진과 설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시회 참가국 수와 가사 종류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15개 종단의 20여종이다. 한명우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

충북불교호법위원회를 비롯 천주교원불교 기독교계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북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충북종교계는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다"며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새 천년의 미래를 위한 공동선이라는 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충북의 각 지역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정당 지구당 방문, 종교별 서명운동과 법회 및 기도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김원우기자

화엄불교대 '꿈나무 교실'

화엄불교대학(학장 도영)은 20일 전주시 삼천2동 사무소에서 꿈나무 학습교실을 개강했다. 화엄불교대학 꿈나무 학습교실은 전주시 대학생자원봉사단의 후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학습지도와 함께 취미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꿈나무 학습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며 수학 영어회화 미술실기 단소와 민요배우기 국어 글짓기 등을 가르친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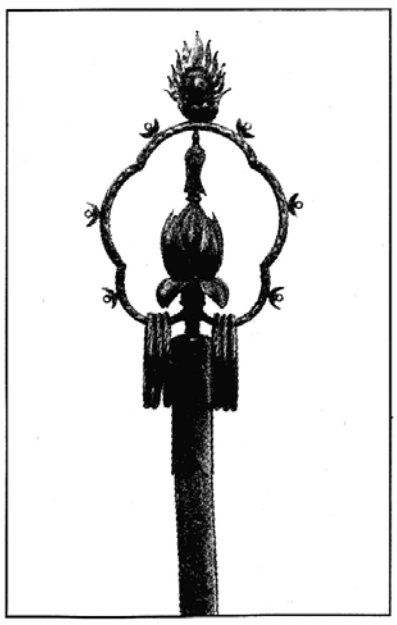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불교지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은 9월 29일부터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에서 봉행해왔던 제4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가 19일 회향됐다. 불교의 생명윤리사상의 확산과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아기영가와 부모의 평안을 위해 천도재를 지낸 이번 회향식에는 서울 신흥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길동 관음의 집 등에서 2백여 불자가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대불련 서울지부 수계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은 27일 오후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불자 1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계사로 진정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실천불교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한다. 도필선 기자

육환장 소리 떨그렁 떨그렁… 시방세계 꽃이 피네



■ **육환장** : 구세구난, 법계의 상징물,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제작, 108개 한정제작해 법의 상징으로 함. 머리부분은 청동재료로 장엄하고 몸체는 자연목 그대로 사용했다.

사원전통 수공예 2 소나무전



원목찻상 날개 달린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날아 잠깐의 허기를 채우지만 뿌리나 큰 꽃은 영원을 이을 씨앗을 얻습니다. 우리네 삶도 꽃처럼 여유있게 살고 싶지만 나비처럼 분주해도 부족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쯤 하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까지 살아야 하는가 싶으면서도 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날 차 한잔의 여유를 가져 보십시오.
「같은 값이면 분위기라」고 하는데, 백두대간 소나무(육송·적송·잣나무·전나무, 낙엽송)로 띡판처럼 두툼하게 만든 원목찻상은 활력과 행운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또한 1000여 년 생 소나무뿌리를 자연그대로를 살린 우담발화 찻상은 긴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진물통 소나무는 건강·장수·길상의 상징인 바 上·高·元이란 뜻의 「솔」로 배달겨레의 聖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술잎과 송화가루·송차 등을 즐겼으며, 만병통치의 상급 약재로 써 왔습니다. 소나무는 죽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않고 혹단처럼 물에 가라앉아 그 자체가 「氣 덩어리」라는 靈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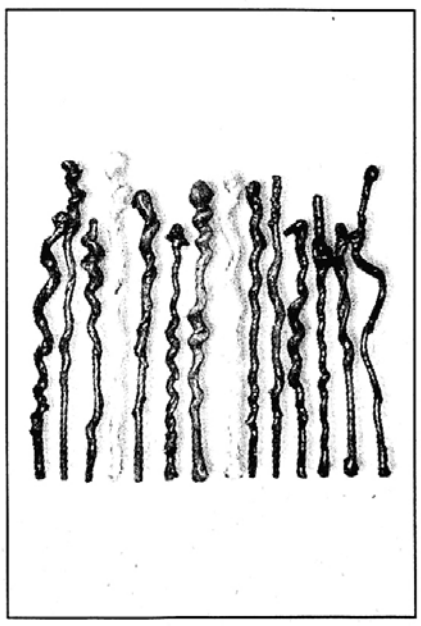


솔향꽃이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진목(5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 20년쯤되면 「송진목」이 됨)으로 만든 솔향꽃이는 천연향이자 살균제 공기청량제로 여법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묘미와 제행무상의 향기가 천년세월 한결같을 것이다.

◆ 모시는 글 빛 바랜 단청이 고요를 지키는 작은 암자의 한 점 구름이고 싶은 계절, 행복하셨습니까! 최고만이 살아남는 지구촌, 반만년 슬기와 경험이 축적되어 「인류의 보배」인 우리 문화, 황토방처럼 재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檀紀처럼 없애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의 왼쪽 심장 한국, 수 천 번의 외세침입을 이겨내고 대륙을 호령했던 檀君神市의 한민족, 그 활력의 원천 솔! 오곡백과를 대체한 식량이자 약재·수행·건축재였는데, 우주가 蕃氣된 靈木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장수는 생명체의 화두, 인류의 영원한 동행은 자연, 神仙이 떠오르는 壽福의 체험 소나무, 그 진골은 巨松이 죽어 수 십 년 발효된 솔뿌리 기름(松眞)인데, 소백산(백두대간 중심지)송진목으로 手作業한 禪師秘傳 「송진 생활용품」을 인연합니다. 「발해의 기상」을 바라며, 활기넘치는 여유, 향기 그윽한 「어바부바 솔」로 늘 푸른 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을 빛 학처럼 자유롭길 기원드리며.

- 육환장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

◐일시 : 불기2543년 10월 25일(월) ~ 10월 31일(일)
◐장소 : 부산 태화백화점 원앙홀 전시관(지하철 서면역)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 연구원
◐후원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대한불교신문사
◐문의 : 0584-653-6788, 011-888-1118



■ **주장자** :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특수건조해 휘거나 좀슬지 않음.



◇자수불화를 수놓고 있는 정초순씨와 적극적인 후견인인 시어머니 박순채보살 (서있는 사람).

불심이 빚은 48폭 자수불화

정초순씨 연흥사에 보시

현존하는 불화·후불탱화 23종류가 한 땀 한 땀 자수로 수놓아져 총 48폭의 자수불화로 조성됐다. 불갑사의 삼세불도·표충사의 아미타삼존불 등 채색화로나 볼 수 있었던 성보 불화들이 자수로 재현됐다. 전통자수작가 정초순씨(38)가 20년동안 닦아온 기량을 날실로 또 지극한 불심(佛心)을 씨실로 해서 이루어낸 것이다. 자수불화의 종류로서는 완결편이랄 수 있는 정씨의 이번 작업 동기마저도 원찰인 영광 연흥사 불사를 위한 발원이어서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수의 세계로 들어갔나봐요. 부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보니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아요."

수(繡) 결만큼이나 차분하고 말수적은 정씨는 대작을 마무리한 소감을 짧게 털어놓는다.

"아씨는 보살이여.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랑께."

영광 이른이 젓갈집으로 유명한 정씨의 시어머니 박순채씨(73)는 며느리를 '아씨'라고 부르며 감격해한다. 아침저녁 천주를 돌려 관음주력을 하고 108배로 시작한다는 박씨는 아들내외의 신심을 감추지 않는다.

정씨와 남편 김정기씨는 2년전 자수불화 제작불사를 착수하고부터는 낮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젓갈장사를 하고, 저녁 8시부터는 목욕재계하고 방문을 걸어잠근뒤 새벽 2시까지 부부가 함께 수를 놓았다. 워낙 대작이다 보니 남편이 수틀 뒤에서 받아 다시 바늘을 꼽아 정씨에게 넘겨주기도 한다. 손재주 좋은 남편은 대형수틀 태작업 등을 직접 해주는 실질적인 후원자인 것이다. 한 올 한 올 채워진 그 정교함이 도무지 채색불화인지 수예작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정씨는 내년 초파일을 전후해 전시회를 가진후 작품 전체를 연흥사불사금으로 시주할 계획이다. 형형색색의 색채로 수놓아진 자수불화로 가득 채워진 정씨 집안은 부처님 광명이 나툰 것 처럼 환하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주부신행담

집착 (上)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인과 어떠한 모습으로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욕심과 아집과 착으로 인해 바로 눈 앞의 생활에 끄달리면서 동동거리며 살던 30대 중반의 가정 주부였다. 자식들에 연관 지어진 일은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여기던 나를 그나마 가장 괜찮은 말로 표현한다면 최선을 다하던 엄마요, 부지런한 주부였다.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노력만큼이나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나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연중 행사처럼 같은 반 아이의 학부형과 드러나도록 부딪치는 갈등을 겪었다.

큰 아이가 4학년, 작은 아이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두아이 모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할뿐만 아니라 친구들간에도 우애가 좋았다. 4학년인 큰 아이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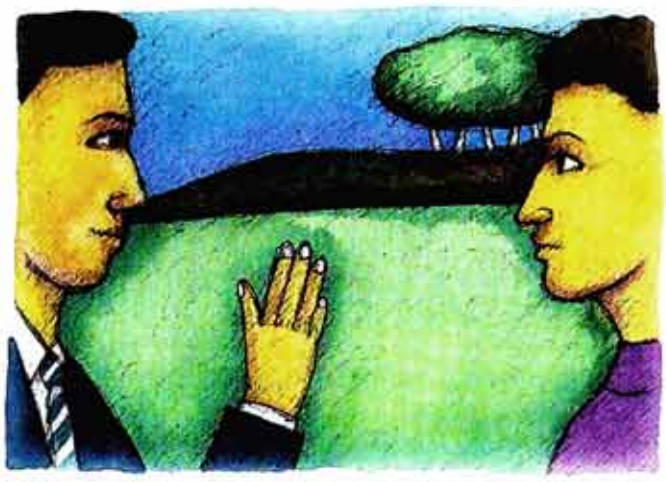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집착은 욕심을 부르고 본래 나를 잃게 하지요"

투표로 반장에 뽑혀 소임을 맡아보고 있고, 둘째 아이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반장을 맡고 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아이들을 최고로 키운 것 같아 나 또한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기치도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둘째 아이가 선생님의 추천으로 반장을 맡게 되자 다른 학부모들의 시기가 극심해 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자모회장과 격한 싸움을 벌인 나는 가슴에 심한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야 했다.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은 자연히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이 짜증스러웠고, 신경질적이 되었다.

어딘가에 하소연이라도 실컷해야 응어리가 풀릴 것 같은데 어디 마땅한 대상이 없었다. 마침 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나와 연배가 비슷해 마음이 끌렸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기가 시작되고 얼굴만 뵈었을뿐 어렵고 조심스럽게만 생각하던 아이 담임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해봐야겠다고 어떻게 마음 먹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쑥스러운 일이다. 인연이리라.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선생님과 근교의 조용한 전원 레스토랑을 찾았다. 선생님은 내가 마구 쏟아붓는 넋두리를 아무 말없이 다 들어주셨다. 내가 웬만큼 진정하자 조용히 다이어리 하나를 집에게 읽어보라며 꺼내 주셨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는 "집착은 욕심을 부르고 본연의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 말을 가슴에 소중히 담아 집에 돌아온 나는 간만에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정민(충남 천안시 신부동)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 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둡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느름나무
■ 가격 : ₩85,000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참선명상방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명상에 부분을 놓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건강한방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이젠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심자리에 한쪽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뻐근스럽거나 피곤한 분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 짧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숙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한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싸이버 성덕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종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종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싸이버 에밀레종(봉황)
재질 : 합금
종류 : 청록, 동록, 청동
규격 : 좌대높이 30cm
좌대크기 15cm×15cm
종 5cm×11cm
가격 : 14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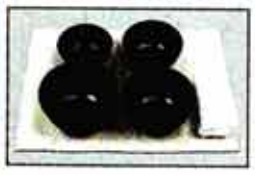


■ 싸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 주석
종류 : 개금, 골동
규격 : 종 17cm×12cm
가격 : 200,000



■ 싸이버 에밀레종(나무사각)
재질 : 합금
종류 : 청록, 동록, 청동
규격 : 좌대높이 26cm
종 5cm×11cm
가격 : 143,000

참목으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니해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팔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알에 맞는 그릇(適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태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와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와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 kg
(재질은 재기 불가능하여 일부 입니다)

눈안마기



1. 눈을 밝게 해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3. 이용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 49,000원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3 수험생,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쁘신 분들, 평소에 머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잎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민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신,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청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록-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증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장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가격:₩120,000

Maha Mall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